

3040세대 신혼가정을 위한 공감목회

: 치유하는교회 사례연구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김성무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1년 5월

Copyright © 2021 Seongmoo Kim

All rights reserved.

## Abstract

### **An Empathic Ministry for 3040 Newly-Wed Couples : A Case Study of Healing Church, Seoul, Korea**

Seongmoo Kim

Healing Church, Seoul, Korea

The enthusiasm for God has saved the group of faith before lots of historical crisis. The earnest enthusiasm for God and cry to God have changed the crisis to the opportunity of grace. However, this enthusiasm for God is breaking the group of faith in this Korean Church field. We have a lot of collapsed field with all kinds of conflicts and divisions as we cannot narrow down difference between ideologies, generations, and culture. Those who oppose have enough enthusiasm for God. But, in the pastoral field, as they have and express more enthusiasm, they have more conflicts among them. This time is not enough by having the earnest enthusiasm for God. This generation needs the pastoral attitude which empathizes and serves more each other, so that the enthusiasm for God would save and strengthen the group of faith.

The empathy is more necessary for 3040 newly-married family generation. They are ambiguous generation between young and old generations. Nobody defines the characteristic of their generation and accepts their identity. While they have feelings of alienation and cannot find out where they belong to, they just try to keep their faith. If they don't exist, the next generation of church won't exist, too. They are the only hope and the connection of young and old generations. 3040 newly-married family generation is the essential part of our future church. Therefore, we have to carefully watch them and

give them pastoral attention.

This researcher has found out their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things to do to save 3040 newly-married family generation. I analyzed their social characteristics by using six stages of Family Life Cycle theory of Carter and McGoldrick and their cultural characteristics by using Epic theory of Leonard Sweet. And I specified the pastoral methods by applying the concept of empathy. For the social pastoral empathic method, I devised Newlyweds' School, 10th Parish, and Family Worship. For the cultural pastoral empathic method, I ran programs of Counsel Visit, Image Notice, Men of Church, and Women of Church. I have seen a big possibility that they can settle in church and connect each other well by participating these programs.

Surely, we keep trying to eliminate the cultural and ideology differences between 3040 newly-married family generation and the other generations. I hope those pastoral empathic methods would help a lot to hold up 3040 newly-married family generation and make them to be a strong group of faith.

국문초록

3040세대 신혼가정을 위한 공감목회

: 치유하는교회 사례연구

김성무

치유하는교회, 서울, 대한민국

수많은 역사적 위기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살리고 세웠던 단 하나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심과 부르짖음이 위기를 은혜의 기회로 바꾸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가 분열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장을 본다. 이념과 세대와 문화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대립과 분쟁과 분열이 생겨나는 현상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립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열심이 있다. 그러나 열심을 낼수록 더 나뉘고 더 분열되는 모습을 목회의 현장에서 빈번하게 관찰하게 된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믿음의 공동체를 살리고 세워가도록 공감하며 섬기는 목회적 자세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3040세대 신혼가정은 특별히 공감이 더 필요한 세대이다. 다음세대도, 장년세대도 아닌 사이에 걸쳐 있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그들 세대의 특성을 정의해주지 않았으며, 그들의 신앙 공동체성을 존중하려 귀 기울이는 교회가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내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공동체의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교회공동체 내에서 오랫동안 버티며 신앙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이 무너지면 다음세대도 없고, 미래교회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장년세대와 다음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요 핵심적 위치의 세대들이다. 미

래교회를 준비하기 위해, 미래교회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대가 바로 3040세대 신혼가정이라는 말이다. 이들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 이들에게 목회적인 관심과 투자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가장 먼저 3040세대 신혼가정을 살리고 세우기 위하여 그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특징과 문화적 특징을 파악하여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카터와 맥골드릭(Carter & McGoldrick)의 6단계 가족생활주기 이론을 사용하여 그들의 사회적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의 EPIC 이론을 사용하여 그들의 문화적 특징을 분석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특징의 분석을 통한 그들의 필요에 공감의 개념을 적용하여 목회방법론을 구체화하게 되었다. 사회적 공감의 목회 방법론으로 신혼부부학교와 10교구, 가정예배를 고안하였으며 문화적 공감의 목회 방법론으로 상담 심방, 이미지 알림, 교회남자, 교회사람 등의 프로그램 등을 고안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교회공동체 내에 연결되기 어려운 3040세대를 위한 공감목회 방법론을 적용하여 교회공동체에서 다른 세대와 융합하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도적인 신앙생활로 서로가 함께 잘 연결되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로의 회복을 이루도록 그 과정을 살펴보며 가능성을 가늠해보았다.

앞으로도 교회 공동체에 연결이 필요한 많은 세대와 문화와 이념의 차이가 항상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본 연구자의 3040세대 신혼가정을 위한 공감목회의 작은 시도가 이러한 간극과 격차를 좁히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을 전할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미래목회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목 차

감사의 글 .....	xii
표 목차 .....	ix
그림 목차 .....	x
I. 서론 .....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선행연구 - 강서구 치유하는 교회 3040세대 신혼가정교구 .....	7
II. 3040세대 신혼가정의 이해 .....	11
사회적 특징 .....	11
문화적 특징 .....	26
III. 공감에 대한 이해 .....	51
공감의 일반적 이해 .....	42
상담심리학에서의 공감이해 .....	54
성서에서의 공감이해 .....	71
구약에 나타난 공감이해 .....	74
신약에 나타난 공감이해 .....	81
IV. 공감이론을 적용한 3040세대 공감목회: 치유하는 교회 10교구를 중심으로 ..	87
사회적 공감 .....	87
가정공감: 가정예배 .....	120
10교구 가정예배에 대한 인터뷰 피드백 .....	127
영적공감: 치유프로그램 .....	128

문화적 공감 .....	137
모임공감: 남선교회 .....	146
활동공감: 보물찾기(야외예배).....	156
<b>V. 결론</b> .....	160
요약 및 평가 .....	160
결론 및 제언 .....	163
사회적 공감 .....	165
문화적 공감 .....	168
<b>참고문헌</b> .....	171



## 표 목차

<표1> 가족생활주기 단계 .....	13
<표2> 신혼부부학교 커리큘럼 .....	88
<표3> 신혼부부학교 Q-SHEET .....	90
<표4> 치유동산 커리큘럼 .....	129
<표5> 부부행복동산 커리큘럼 .....	132
<표6> 아버지학교 커리큘럼 .....	134
<표7> 어머니학교 커리큘럼 .....	135
<표8> “해결중심 단기가족치료의 5가지 질문” .....	141

## 그림 목차

<그림1> 최근 10년간 예장통합교단 전체 교인 수 추이 .....	30
<그림2> 최근 10년간 주일학교 학생 수 증감률 추이 .....	32
<그림3> 신혼부부학교 홍보 포스터(봄 시즌) .....	92
<그림4> 신혼부부학교 홍보 포스터(가을 시즌) .....	93
<그림5> 신혼부부학교 홍보 포스터(코로나 시즌) .....	94
<그림6> 신혼부부학교 첫 번째 강의안(학습자용) .....	97
<그림7> 신혼부부학교 두 번째 강의안(학습자용) .....	98
<그림8> 신혼부부학교 두 번째 강의안 나눔 자료1(학습자용) .....	99
<그림9> 신혼부부학교 두 번째 강의안 나눔자료2(학습자용) .....	100
<그림10> 신혼부부학교 세 번째 강의안(학습자용) .....	101
<그림11> 신혼부부학교 세 번째 강의안 나눔자료(학습자용) .....	102
<그림12> 신혼부부학교 네 번째 강의안(학습자용) .....	103
<그림13> 신혼부부학교 네 번째 강의안 나눔자료1(학습자용) .....	104
<그림14> 신혼부부학교 네 번째 강의안 나눔자료2(학습자용) .....	105
<그림15> 신혼부부학교 다섯 번째 강의안1(학습자용) .....	106
<그림16> 신혼부부학교 다섯 번째 강의안2(학습자용) .....	107
<그림17> 신혼부부학교 여섯 번째 강의안1(학습자용) .....	108
<그림18> 신혼부부학교 여섯 번째 강의안2(학습자용) .....	109
<그림19> 신혼부부학교 일곱 번째 강의안1(학습자용) .....	110
<그림20> 신혼부부학교 일곱 번째 강의안2(학습자용) .....	111

<그림21> 신혼부부학교 수료증 .....	113
<그림22> 신혼부부학교 수료 감사카드 .....	114
<그림23> 영적공동체 목장모임을 위한 가이드라인 .....	115
<그림24> 10교구 가정예배 가이드라인 .....	123
<그림25> 10교구 가정예배 예시(1) .....	124
<그림26> 10교구 가정예배 예시(2) .....	125
<그림27> 10교구 가정예배 예시(3) .....	126
<그림28> 교회남자(1) .....	148
<그림29> 교회남자(2) .....	149
<그림29> 교회남자(2) .....	149
<그림30> 교회남자(3) .....	150
<그림31> 교회남자(4) .....	151
<그림32> 교회남자(5) .....	152
<그림33> 교회남자(6) .....	153
<그림34> 교회남자(7) .....	154
<그림35> 교회남자(8) .....	155
<그림36> 보물찾기(1) .....	158
<그림37> 보물찾기(2) .....	159

## 감사의 글

논문의 모든 과정을 은혜롭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막막한 발걸음에도 한걸음씩 걸어낼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새 힘과 용기 주셔서 결실을 맺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합니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어떠한 주의 일에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주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시간마다 미래목회에 대한 필요한 내용과 좋은 강의로 길목을 인도해주시고, 목회의 지경을 넓혀주신 김영래, 조병호, 레너드 스윗 교수님,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허락해주시고 지지해주시며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격려해주신 치유하는교회 김의식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힘이 들어 주저앉으려 할 때마다 손내밀어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준 유태경, 유태광, 김현준 목사님, 그리고 함께여서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던 드루 디민 과정 동기 목회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과정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살피고 도와주신 전민경 간사님과 최병환 전도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 곳에서도 아들의 공부를 돕기 위해 새벽부터 기도하시며 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부모님의 영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순간순간 힘을 얻어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누구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의 연약함을 감싸주려 누구보다 고생하며 가수고한 가장 큰 조력자 사랑하는 나의 아내,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할 시기에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이었던 하나님의 귀한 선물 연우와 지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사랑으로 도와주시며 힘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장모님, 그리고 일일이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교구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의 순간마다 함께 기도하며 도와주셨던 교구 권사님과 교구 식구들에게 그 도움의 손길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021년 4월

김성무

## 제 I 장

### 서 론

####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한국교회에 대한 위기와 침체의 분위기는 오래전부터 수없이 이야기되어 왔다. 위기론에 대해서 회자된 지 한두 해가 지난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의 침체에 대한 많은 이야기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전체적인 방향성이 기대하던 만큼의 밝고 가능성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지는 않았다. 많은 노력과 도전과 연구의 성과들이 있었지만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감소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교회 전문가들에 의하면 교회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40세대는 여전히 매년 10만 명 이상 교회를 떠나가고 있으며, 신앙생활은 유지하면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1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sup>1</sup> 뿐만 아니라 청년, 청소년, 아동부에 이르기까지 다음세대라 칭할 수 있는 교회의 미래세대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어색하지 않은 시대의 일반적 기류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현상으로 이러한 수치는 더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할 필요한 영역이 다음세대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미래적 대안으로 “다음세대”에 대한 목회적 방향성들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 장년세

---

<sup>1</sup> 이도영, *페어처치*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25.

대와 다음세대라는 두 가지 프레임으로만 미래교회를 진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외되는 또 다른 선명한 다른 세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는 이를 3040세대라 칭하고 싶다. 결혼한다고 해서 곧바로 장년세대의 정체성에 합류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다음세대와 같은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해주지도 않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다. 그저 장년세대와 다음세대의 두 가지 프레임으로 해석 하려다 누구에게도 세대적 특징과 문화를 존중 받지 못한 채 주체성 없이 흘러가는 잉여세대로 남게 되는 것이 대부분 한국교회내의 3040세대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물론, 3040세대도 기혼자와 미혼자의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3040세대 신혼가정 즉, 결혼한 3040세대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본 연구자는 3040세대 신혼가정이야말로 위기 속 한국교회에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30-40세대 신혼가정은 50-60세대와도 세대적 차이가 있고, 10-20세대와도 많은 시대적, 문화적 다양성의 차이가 구분되어 전혀 다른 하나의 세대처럼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지만, 이 30-40세대야말로 윗 세대와 아랫 세대를 그나마 연결하며 신앙의 세대연결을 실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가교 역할의 세대이기 때문이다.

3040세대는 현재의 다음세대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청소년 세대와 함께 많은 문화를 공유한다. 또한 3040세대의 자녀들이 아동부와 유아부로 직접적인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세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세대이다. 로마서 10장 14절~15절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말씀하듯이,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이서 들려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는 역할의 세대가 바로 3040세대라는 것이다. 얼마 전 인터넷 기사에서는 이러한 3040세대를

“젊은이들이 노는 판에 기웃거리는 아저씨가 아니라 10대와 20대가 와서 놀 판을 깔아주는 멋진 형”<sup>2</sup>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10대와 20대까지도 공감력을 미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연계할 수 있는 중요한 세대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5060이상의 장년문화에도 함께 공감하며 반응할 줄 아는 세대이다. 물론, 3040세대를 대표하는 X세대<sup>3</sup>의 특징처럼 자아와 취향을 찾는 개인주의적 특성이 강한 세대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5060세대와 함께 자라고 그들 향유한 문화를 함께 경험하며 그들로 부터 많은 것을 전수받아 그들의 위치와 상황을 이해할 줄 아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3040세대는 5060세대와 1020세대의 문화를 고루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세대이며, 현재의 시대적 위치에서 현재의 문화를 소비하는 주세대로서 자리 잡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다음세대와 장년세대가 위기 속 한국교회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며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3040세대의 움직임과 적극성이 분명히 필요하다. 중요한 위치와 역할이라는 것이다. 교회의 위기를 논할 때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세대이며, 다음세대와 교회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집중하며 관심 가지고 투자해야 할 중요한 세대이다. 그래서 이러한 3040세대를 통한 미래교회의 정책과 방향성들이 더욱 연구되고 제기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한국교회의 위기적 상황 앞에서 3040세대의 필요와 상황에 집중하며 교회 내에서 활동 할 수 있는 장(field)을 만들어 주는 것이 다음 세대 뿐만 아니라 장년세대를 위해 필요한 미래교회의 대안이라

---

<sup>2</sup> [http://www.entermedia.co.kr/news/news\\_view.html?idx=4072](http://www.entermedia.co.kr/news/news_view.html?idx=4072)(2021년2월20일 접속).

<sup>3</sup> 광고회사 제일기획이 작성한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개성파였으며 경제적 풍요 속에 성장했던 세대로 경제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었던 세대”라고 표현하며, 캐나다 작가 더글러스에 의하면 “정의할 수 없는 세대”, “이전 세대의 가치관과 문화를 거부하는 이질적 집단”, “Personal, Amusement, Natural, Trans-border, Service를 지향하는 세대”로 표현한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지난 5년간의 청년사역을 마무리 짓고, 3040세대 신혼가정교구를 담당하게 되면서 이러한 3040세대의 세대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 그리고 이들의 신앙적 연계를 향한 요청과 필요는 많은 시간 동안 교회 내에서 존중 받지 못했으며, 고려대상으로 여겨 지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회적으로는 “다음세대가 중요하다”, “다음세대를 세워야 한다” 라고 심도 있게 다루며, 결혼한 젊은 세대들이 교회 내에 빨리 적응해서 장년들과 함께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에 참여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그들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교회내 3040세대 신혼 가정들에게 불편한 강요와 그들의 교회적 적응을 방해하는 일방적인 조치로서 들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분명 교회내 장년세대들이 원하는 것은 3040세대들의 교회내 정착 및 성장인데, 왜 이들에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부터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비단 일부교회에만 국한되는 사실은 아니다. 많은 한국교회의 현실도 비슷한 상황과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서로가 교회의 감소세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열심이 없어서도 아니다. 열심이 있고, 성장과 회복을 원하고 있다. 자료도 많고, 자원도 많다.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 라는 심도 있는 고민을 던질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은 같지만 서로가 소통되지 않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 집중하고 고민하면서 공감능력의 부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국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세대 간의 서로를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공감능력이 부족한 소통은 서로에게 불편감을 주고, 상처를 주며 관계의 외면과 회피를 유발시키게 된다. 얼마전부터 한국사회에 분열과 이념의 대립이 극심하게 나타난 현상들을 살펴보면, 맞는 말, 옳은 말은 많이 하지만 서로에 대



한 공감의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대적, 사회적, 그리고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뉴 노멀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는 10년 단위, 혹은 그보다 더 짧은 단위의 기간으로 문화세대가 형성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수시로, 다양한 세대들이 만들어지고, 형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미래를 우리는 이미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다음세대를 이끌기 위해 그리고 그 가교역할을 할 3040세대를 세워 가기 위해 필요한 일이 바로 공감하는 자세 즉 한국교회의 공감능력의 회복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한국교회 공감의 부재로 인하여 정착하지 못하고, 분리되어 교회 밖 성도로 유리하게 되는 3040세대 신혼 가정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의 공감적 자세이며, 이러한 교회의 공감적 자세를 통한 목회적 적용을 통해 얼마든지 3040세대가 교회로 돌아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으며,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3040세대뿐만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대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교회적 대안으로 까지 확대 및 그 가능성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 연구의 범위와 방법

3040세대에 대한 범위를 한정하고자 할 때에 그 용어적 정의에 대한 모호함이 있었다. 3040세대라는 용어의 표현은 결혼의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그 세대와 연령의 시기만을 구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그 범위를 자세하게 구분하여 표현하는 용어적 정의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3040세대일지라도 결

혼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청년목회에 대한 연구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하며, 본 연구에서는 결혼한 3040세대를 한정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래서 그 용어적 표현을 “3040세대 신혼가정”으로 표현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는 본 연구자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교구의 구성원들을 나타내기도 하며, 구성원의 대부분은 결혼한지 10년 미만의 가정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는 치유하는교회 결혼한 가정들을 대상으로 교회공동체에 보다 더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한 목회적 도전과 실천으로서 30세부터 40세의 연령에 이르는 결혼가정들을 중심으로 교구사역과 함께 연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본연구자가 담당하는 교구 구성원들과 인터뷰(심층 면담)를 통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교회적으로 준비하고 소통하며 다가 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필요와 공동체의 상황적 배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로서 치유하는교회 3040세대 신혼가정들에 대한 내용을 미리 조사하며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와 목적, 그 범위와 방법을 I장에서 함께 다루었다.

그리고 이를 이론적으로 조명하기 위하여 카터와 맥골드릭(Carter & McGoldrick)의 6단계 가족생활주기 이론을 살펴보면, 3040세대 신혼가정이 해당하는 단계를 집중 조명하여 그 당시에 경험하고 나타나는 사회적인 특징들을 살펴보면 이들의 시기와 주기에 대한 환경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이들의 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보게 되었다. 더 나아가 사회적 특징과 함께 레너드 스윗 교수의 EPIC교회론을 살펴보면서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을 견지하고 있는 3040세대의 문화적 특징을 함께 II장에서 다루어 보았다.

III장에서는 이러한 사회적특징과 문화적특징을 향유하는 3040세대 신혼가정

에게 필요한 공감이론에 대하여 공감의 일반적인 이해와 성서에서의 공감이해 그리고 심리학적인 공감으로의 이해까지 살펴보면서 이들에게 공감적인 자세와 적용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IV장에서는 이러한 3040세대 신혼가정에게 필요한 공감적 목회적 대안의 실체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실제의 사례를 치유하는교회 10교구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검증하고 확인해 보게 되었으며 이를 통한 미래교회의 연결과 통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이상의 모든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요약 정리하면서 한국교회의 위기에서 미래교회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발판에 3040세대 신혼가정의 공감목회가 필요함을 확인하며 다음세대에 대한, 미래교회에 대한 가능성을 제고해보고자 한다.

### 선행연구 - 강서구 치유하는교회의 3040세대 신혼가정교구

치유하는 교회가 위치한 서울시 강서구의 화곡동은 지역적으로 신혼부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중에 하나이다. 지난 2017년 국민은행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에서 신혼부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지로는 강서구 화곡동이 1위로 뽑혔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2호선, 5호선, 9호선 이용으로 도심 접근성이 좋으면서 비교적 낮은 시세의 주택들이 대거 밀집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sup>4</sup> 이러한 이유로 치유하는 교회가 위치한 강서구 지역 내에는 신혼가정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이 전·월세의 주거형태이기 때문에 보통은 2년 단위로

---

<sup>4</sup>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7/10/712158>(2021년2월20일 접속).

이사를 통해 주거지역을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유입되는 신혼가정이 많지만 그만큼 나가는 신혼가정도 많고, 이러한 순환적 구조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적 요인들로 인하여 아무리 많은 신혼가정들이 유입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만 출석하며 개인 신앙 생활에 머물다 조용히 사라지는 가정들이 다수 존재한다.

또한 이들을 맡아서 양육하고 공동체로 인도할 리더십에 대해서도 훈련된 리더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일정훈련이나 연계된 공동체 없이는 결집력이 다소 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환경적 요인에서 3040세대 신혼가정들을 교회내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러한 지역적,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바로 공동체성의 약화였다. 어떻게 해서든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성장시켜 나아갈 방법이 필요했다. 지역과 환경적 요인들에 의한 구성원들의 유실을 바로 잡기 위해 필요한 공동체성의 회복의 첫 번째는 연대적인 그룹을 구성하여 공동체적인 방향성 안에서 이러한 어려움과 유실의 한계를 이겨내도록 하는 일이었다.

당시 치유하는 교회는 젊은 가정들을 별도로 그룹을 나누는 교구가 아닌 전 연령대에 걸쳐 모두가 함께 섞여 있는 교구와 목장의 구조로 그룹이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교회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이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었다. 그래서 2014년 3040세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가정 교구(8교구)를 신설하였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한 3부 예배

를 시작하게 되었다.<sup>5</sup> 그리고 이 젊은 교구는 2018년 4050세대가 포함된 더 연령이 있는 구성원들을 포함시킨 8교구와 3040세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9교구로 확장분립하여 교구변성을 하게 되었으며, 계속해서 교구가 성장 확장되어 8교구를 9교구로, 3040세대 중심의 9교구는 2020년 10교구로 교구명칭을 새롭게 하며 그 결속력을 더 성장시켜 나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젊은 가정들을 새롭게 결속하여 새로운 교구로 편성하면서 그들의 공동체성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3040세대가 교회공동체에 잘 적응하며 지속성 있는 신앙으로 회복해 가기 위해 필요한 교회적 요청 사항과 요구는 무엇인지를 교구내의 리더들을 중심으로 인터뷰하며 면담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취합하게 되었다.

A: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들에 대한 교회적인 배려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B: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들에게 맞춰진 예배나 신앙훈련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C: 부부관계, 부부소통 등 신혼가정들에게 필요한 강의나 세미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D: 육아로, 가정의 일로 예배, 모임에 참석을 못하거나 교회내 활동에 참여적이지 못할 때에도 훈계나 평가성 발언이 아닌 신혼가정 시기의 어려움에 대한 인정과 위로와 존중을 받았으면 좋겠다.

E: 관례적으로 이전부터 해오던 형식적인 모임을 의미가 느껴지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의미 있고 명분 있는 모임으로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모임을 진행하면 좋겠다.

F: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필요한 예배나 모임 및 신앙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 아이돌봄 봉사나 섬김이 교회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G: 엘리베이터, 자모실 등 유모차 및 육아와 병행하며 신앙에 참여해야 하는 시설과 공간 등에 필요한 물품이나 환경이 구성되며, 임신부나 유모차가 있는 가정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H: 비슷한 가정, 또래 등의 모임과 물물교환 등 사회적인 소통 그룹이

---

<sup>5</sup> 치유하는 교회 교인생활수첩 교회연혁에서 참조.

교회내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sup>6</sup>

이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었다. 이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주기를 원했으며, 이들의 필요에 대한 시설 및 환경적인 구성을 제공해주기를 원했던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들에 대한 많은 요구와 요청이 있었음에도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들의 삶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하는 전통적시선이 대부분 이었다. 그러나 이들 세대가 지역적으로, 교회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이 인지되면서 이들에 대한 필요와 목회적 방향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40세대 신혼가정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는 교회공동체내부로 이들의 신앙을 정착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들의 필요와 함께 이들의 사회적, 문화적 특징을 다시 새롭게 살펴보면서 3040세대 신혼가정에게 필요한, 그들에 의한, 그들을 위한 목회적 방향성들을 정립해 나아가게 되었다.

---

<sup>6</sup> 3040세대 신혼가정 200가정을 대상으로 심방하며 인터뷰한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았으며, 이를 통해 이들이 교회내에서 자신들의 시기적 상황과 특징에 대해서 인정받고 존중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교회적으로 공감하며 지지할 수 있는 목회적 전략과 이들의 필요에 의한 맞춤형 목회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통한 공동체적 목회적용을 연구하며 시도하게 되었다.

## 제 II 장

### 3040세대 신혼가정의 이해

#### 사회적 특징

지난 목회의 현장을 되돌아보며 3040세대 신혼가정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시기”에 관한 내용이었다. 결혼 전 청년의 시기에 함께 신앙 생활했던 많은 이들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한때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미래와 비전을 외쳤던 이들조차 결혼 후 신앙의 신생아와 같은 모습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결혼 전과 이후의 시기에 대한 사회학적인 역학관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신앙의 문제를 떠나 사회학적인 인생의 사회적 변화와 과정의 인식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사회적 특징은 무엇이었는가?’라는 첫 번째 질문을 가지고 3040세대 신혼가정의 변화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해하고자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질문과 문제제기는 그들의 삶을 좀 더 객관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였고, 그 과정 가운데 관찰 되어진 사회적 특징의 면면들은 3040세대 신혼가정을 공감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 때로는 이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이전에, 변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믿음의 크고 작음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 때로는 강한 믿음을 요구하는 편협한 신앙 지도를 스스럼 없이 행하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편협한 시각과 지도는 오히려 이들을 부담스럽게 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데 걸림

들이 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 가기 시작하였다. 물론,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사회적 특징을 공감하며 상황 즉, 삶의 주기에서 필요한 믿음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의 변화가 그저 믿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닌 시기별, 주기 별로 진행되는 과정의 하나임을 보여줄 수 있는 사회학적인 이론과 모델을 살펴보며 확인하게 되었다.

시기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사회학적인 삶의 패턴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고,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삶의 주기, 그리고 3040세대 신혼가정에게 해당하는 그 시기와 삶의 특징들은 이들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요소라고 생각한다. 가족생활주기는 이러한 삶의 특징을 그 시기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단계별 특성은 학자들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담당하고 있는 3040세대 신혼가정과 시기가 비슷한 특징들을 열거하며 3040세대 신혼가정의 시기의 특징과 문제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카터와 맥골드릭(Carter & McGoldrick)의 6단계 가족생활주기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족생활주기(Family cycle, family life cycle)는 인간이 가족생활을 경험하면서 미혼, 결혼, 출산, 육아, 노후의 각 단계에 걸친 시간적 연속을 말한다.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족이 형성되며, 자녀의 출생과 분가를 통해 확대 되어가며 자녀의 결혼과 분가로 인해 마지막 노년기에 이르며 축소 소멸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한다.<sup>7</sup>

---

<sup>7</sup> 유영주 외 2명 공저,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2000), 39.



<표1> 가족생활주기 단계<sup>8</sup>

가족생활주기 단계	전환의 정서적 과정: 주요 원리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가족 상태에서 요구되는 이차원적 변화들(발달과업)
1단계: 결혼 전 미혼의 청년 단계	자아에 대하여 정서적, 재정적, 책임감 수용	a. 원가족과 관련하여 자신을 차별화(구별) b. 친밀한 또래집단의 발달 c. 일과 재정독립에 관하여 자아를 확립
2단계: 결혼을 통한 가족간의 결합인 신혼부부단계	새 가족구조에 헌신	a. 부부체계의 형성 b. 배우자가 포함되도록 확대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 재정립
3단계: 어린자녀가 있는 가족 단계	가족의 새 구성원을 수용	a. 자녀출생을 준비하기 위하여 결혼구조 조정 b. 자녀양육, 재정, 가사에 공동참여 c. 부모, 조부모 역할이 포함되도록 확대가족과의 관계 재정립
4단계: 사춘기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족 단계	자녀의 독립과 조부모의 연약함을 포함하기 위하여 가족 경계의 탄력성 증가	a. 청소년기 자녀로 하여금 구조 밖으로 이동하도록 허락하기 위하여 부모자녀관계를 이동 b. 중년기의 결혼생활과 직업적 문제들에 재초점 c. 노년세대를 돌보는 방향으로 이동을 시작
5단계: 자녀를 떠나 보내고 계속 나아가는 단계	가족구조로의 많은 전입, 전출 수용	a. 부부관계를 2인 1쌍구조로 재조정 b. 성장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성인대 성인의 관계로 발전 c. 부모 또는 조부모의 무능력과 죽음에 대처
6단계: 노년기 단계	세대간의 역할 이동을 수용	a. 신체적 쇠퇴에 직면하면서 자신과 부부의 기능과 관심사 유지 b. 다음 세대가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 c. 연장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지혜와 경험이 활동 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 d. 배우자, 형제, 친구의 죽음에 대처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대비하며 삶을 되돌아보고 통합

사회적인 확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3040세대 신혼가정은 가족생활주기의 전체적인 연속선상의 흐름에서 보면

<sup>8</sup> Betty 외 2명 공저, *가족생활주기와 치료적 개입*, 정문자 역 (서울: 적성출판사, 2000), 33.

모든 것들이 가장 급격하게 사회적 확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개인과 개인의 연결과 확장을 넘어선 가족과 가족 간의 연결로서, 결혼이라는 단 하나의 연결로 상상이상의 많은 사회적 확장이 증폭되는 시기이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사회적인 관계적 확장만이 이루어지는 시기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그 관계의 확장을 통한 가족 문화의 확장, 언어 및 생활습관의 확장 등 결혼 당시까지 심도 있게 고민하지 못했던 많은 영역들의 확장이 시작되는 것이다. 원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확장되는 자연스러운 연결들이 이 시기에 주된 스트레스와 어려움의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어떠한 사회적 확장이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을 알고,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준비하며 연습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3040세대 신혼가정에 해당하는 단계는 가족생활주기를 중심으로 2단계와 3단계에 해당한다. 결혼 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단계인 2단계와 결혼 후 출산 및 육아의 과정으로 표현되는 3단계가 주로 해당된다. 그래서 3040세대 신혼가정에 주로 해당하는 2,3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젊은 직장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멘토 중 한명인 오구라 히로시는 서른부터 마흔까지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후의 모든 인생이 결정된다고 강조한다.<sup>9</sup> 그만큼 인생 전반에 걸쳐 3040세대 신혼가정의 시기적 위치가 중요하며 이때를 중심으로 가족생활주기의 전반을 나누어 보는 것은 가족생활주기의 전체흐름에서 부분적인 관찰일 수 있지만 인생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가늠하는 척도내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sup>9</sup> 오구라 히로시, *서른과 마흔사이: 30대에 이루지 못하면 평생 후회하는 70가지*, 박혜령 역 (서울: 토네이도미디어그룹, 2010), 28.

사회적 확장을 통한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시기이다.

카터와 맥골드릭(Carter & McGoldrick)은 이러한 가족생활주기를 가족 내에서의 세대간의 연관성으로 이해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활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도 보았다. 사회적 확장의 인지는 시간의 흐름이 연속적으로 지나갈수록 점점 더 증대 되어진다. 배우자의 가족, 친척, 친구, 직장동료 및 익숙하거나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관계적 구조 및 생활 환경은 서로의 시간의 연속에 의해 확인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사회적 스트레스를 가족생활주기의 프레임을 통해 구분해 보는 것은 가족문제와 가족의 장단점들을 잘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치료적인 반응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sup>10</sup> 3040세대 신혼가정이 직면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은 시기의 연속성, 시간의 연속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일들이다. 이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일은 또 다른 스트레스요인으로의 어려움을 증폭시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의 연속성, 연관성, 그리고 특징들을 살펴보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해결점을 찾아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며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주기와 연계된 전체적인 단계를 살펴보는 것은 그 단계의 현실성만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넘어갈 때 적응상의 문제들, 어려움, 그 특징들까지도 확인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방향성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족생활주기는 시간의 흐름과 연속선상에 각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

<sup>10</sup> Betty 외 2명 공저, *가족생활주기와 치료적 개입*, 16.

각 단계에서 다음단계로 넘어갈 때 적응하는 시기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며 적응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고, 이 과정을 통해 안정화 되는 시기, 또다시 그 다음단계로 넘어갈 때의 반복적인 적응상의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반복적인 주기를 살펴보면 그 적응상의 문제와 어려움을 알아보고, 특징을 관찰하는 것은 3040세대 신혼가정의 변화와 새로운 단계로의 적응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족생활주기를 통해서 한 가족에 나타나는 주기상의 긍정적, 부정적 문제와 이로 인해 나타나는 새로운 모습과 현상적인 발달의 과정의 관찰은 그 다음 단계로의 준비를 하기에 충분한 역할을 한다.

#### 수평적 스트레스<sup>11</sup>와 수직적 스트레스<sup>12</sup>

다른 가족생활주기 모델들<sup>13</sup>과 달리 카터와 맥골드릭은 결혼 전 원가족의 상황에서부터 그 주기의 단계를 시작하면서 원가족의 정서적 체계로부터 자기를 분화 시킬 때 즉, 새로운 가족생활주기 단계로 넘어갈 때 수직적 스트레스가 그를 따라가는 것 까지도 주기에 포함시키면서 연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sup>11</sup>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족생활주기의 전환점 마다 발달적으로 즉,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들과 불예측적으로 발생하면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발달과정상의 스트레스, 불의의 사망, 장애아의 출산, 만성적 질병, 전쟁 등)가 이에 해당한다.

<sup>12</sup> 정서적인 관계를 통해 다음 세대에 전수되는 가족 구성원의 관계 유형과 기능유형이 포함된다. 이는 가족내에서의 오랜 시간 발생, 학습 되어온 위계에 의한 스트레스를 말하며, 가족의 패턴, 가풍, 생활사, 태도, 규칙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익숙하지 않은 타가족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적용될 수 있다.

<sup>13</sup> 가족생활주기에 대한 대표적 학자인 듀발(Evelyn Duvall)과 힐(Reuben Hill)은 1950년대 가족생활주기를 2세대 핵가족 중심의 8단계로 세분하여 나누었으며, 결혼하는 상태부터 단계의 시작으로 삼는다. 결혼 이전의 단계는 주기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한국적인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 살펴보기에는 그 단계별 주기 구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주지시킨다.<sup>14</sup> 결혼이전에 있던 스트레스가 결혼을 하며 새로운 사회적 체계를 이루어가는 시기에 그대로 연계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족생활주기의 변화되는 단계에 따라 수직적 스트레스와 수평적 스트레스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한다. 수직적 스트레스는 가족의 태도와 반응, 가족내의 금기항목, 기대수준, 호칭, 그리고 관계하면서 갖게 되는 많은 사건들을 포함하며 이것은 수직적 스트레스의 주요 요인이 된다. 그리고 수평적 스트레스는 가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느끼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야기되는 불안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수평적 스트레스는 예측 가능한 발달상의 스트레스와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로 이루어지는데, 이것들은 가족생활주기의 과정을 어렵게 만들거나 침해할 수 있다.<sup>15</sup>

아울러 카터와 맥골드릭(Carter & McGoldrick)는 수평적 스트레스가 수직적 스트레스와 교차할 때는 가족근심의 양적 확장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수평과 수직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이 양자의 스트레스가 일으키는 근심의 정도는 그 가족이 자신의 생활주기 변화를 얼마나 잘 헤 나갈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주된 척도가 된다고 주장한다.<sup>16</sup> 즉, 가족이 가족생활주기의 변화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단계를 넘어가는 적응의 어려움을 안정적으로 잘 감당해내고, 다음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의 주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3040세대 신혼가정에게는 이러한

---

<sup>14</sup> 신혼가정에게는 결혼이전의 원가족적인 상황과 특징이 결혼 이후의 삶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다른 모델처럼 결혼 이후의 상황적 특징만을 고려하는 것보다 결혼 전 원가족의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이해 및 공감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상당한 가정의 경우 결혼 전 원가족의 상황을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적이고, 신앙적인 방향성들이 개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sup>15</sup> Betty 외 2명 공저, *가족생활주기와 치료적 개입*, 22.

<sup>16</sup> Ibid., 23.

수직적 스트레스와 수평적 스트레스의 요인들을 확인시켜주며 인지하고 공감하며 나아가는 과정과 함께 이를 해결해 나아가기 위한 정서적 과업이 필요하다.

또한 카터와 맥골드릭(Carter & McGoldrick)은 가족생활주기가 시간에 걸친 구성원들의 이동과도 관계가 있으며, 다른 사람과 관련된 가족구성원들의 위치변화 와도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역기능적 가족은 위치, 존재, 기능에 있어서 이동에 혼란을 겪으며, 이것은 가족구성원들의 위치나 역할을 넘어 실제 느끼고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sup>17</sup> 이러한 주장은 각 단계에 가족 체계에 의해 수행해야 할 정서적 과업이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황들 마다 맞추어 각 가족구성원들의 지위 변화가 필요하며, 단계의 이동 마다 감당해야 할 복잡한 정서적 과정이 있음을 의미한다.<sup>18</sup> 단지 가족구성원의 사회적 변경과 변화만으로도 얼마든지 많은 스트레스가 경험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정들은 이러한 사회적 스트레스 즉, 원가족적 변화와 이동에 대한 스트레스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며 어려움과 침해요인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실재가 존재하고, 이를 해결해 나아가기 위한 목회적, 신앙적 대안이 필요한 것이다.

#### 자녀가 없는 신혼가정(가족 생활주기 2단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단계인 제 2단계는 결혼 후 출산 전까지의 시기로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관계와 상황들을 고민하고 받아들이며 익숙해져야 하는 복잡다단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결혼 전 자신의 익숙함을 가지고 상대방 즉, 배우자에게 반응하며 나의 익숙함에 대한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무엇이었는지를

---

<sup>17</sup> Ibid., 24.

<sup>18</sup> Ibid., 26.

알아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가족상담 전문가인 김용태 교수는 이 시기를 남편과 아내가 되어가기 위해 배워야 하는 기간이라고 말한다.<sup>19</sup> 새로운 것을 배워가고 익숙해지는 과정은 언제나 스트레스를 발생시킨다. 어렵고, 고되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학습해야 하는지 그 내용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배우자를 통해 본인의 스타일을 알아가고 분석해 가는 추가적인 시간도 필요하다. 이 시간을 통해 때론 익숙한 생활패턴을 포기해야 하기도 하며, 적응하고 싶지 않은 과정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을 직면하기도 한다. “부부가 서로의 차이를 직면하고 익숙하기 위해서 부부는 자신이든 상대든 많이 알수록 좋다”<sup>20</sup>고 심리 치료사 마티 올슨 래니(Marti Olsen Laney)는 말한다. 물론, 자신에 대한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고 익혀가는 과정이 간단하거나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차이점들은 사회적 변화로 인한 성역할에 대한 정의, 가족 구조 내에서의 부부의 경계, 부부가 맺고 있는 친구, 활동, 취미, 그리고 배우자를 통해 확장되어지는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이다.<sup>21</sup> 성역할에 대한 부분만 하더라도 넓게는 동양과 서양 및 각 나라와 문화마다 차이가 있고, 세대와 세대사이에서 전해지고 공유되는 정보의 차이에 의하여 역할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한국이나 동양 문화권 내의 전통적 문화에서는 결혼을 양가의 균형 있는 결합 이라기보다 여성이 남성의 가족에 소속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

---

<sup>19</sup> 김용태, *부부 같이 사는 게 기적입니다* (서울: 텐스토리, 2017), 5.

<sup>20</sup> Marti Olsen Laney and Michel Laney, *사랑과 성격 사이*, 박윤정 역 (서울: 다산북스, 2010), 27.

<sup>21</sup> Betty 외 2명 공저, *가족생활주기와 치료적 개입*, 145.

이 존재한다. 심지어 일본의 전통적 가족문화 내에서 아내는 아직까지도 남편 가족의 일부가 되며 순종할 것을 기대하기도 한다. 반면 미국이나 아일랜드국가에서는 부부체계의 경계가 강한 편으로 부모의 관심과 조언을 간섭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외에 아프리카지역이나 이탈리아 같은 국가에서는 부부간의 갈등이나 자녀의 문제를 확대가족에게 의존하며 조언을 구하는 성향이 발생하기도 한다.<sup>22</sup> 이처럼 문화차이로 인한 사회적 역할상의 차이가 전혀 다른 반응과 인식으로 마주할 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90년대생 며느리가 온다’<sup>23</sup>라는 기사를 통해서 한국의 성역할에 대한 세대간의 인식 차이를 보여주었듯이 동일한 나라와 전통, 지역적 공통 영역내 세대 간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또한 가족내에서만 전해질 수 있는 고유한 문화와 풍습 등도 나이와 세대의 차이에 의한 성역할과 차이들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 이를 위해 2단계에서는 서로가 인지하고 있는 가족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

신혼부부단계인 2 단계에서의 발달과제는 결혼한 사람이 갖는 새로운 역할 속에서 각각 상대방에게 적응해가는 과업이 그 어떤 발달과업보다도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간다.<sup>24</sup> 가족상담 전문가인 김용태 교수는 결혼 후 ‘남편 되어가기’는 ‘아내 알아가기’라고 말한다.<sup>25</sup> 발달과업을 안정감 있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남편이라는 성역할의 위치에서의 기능과 특징을 발휘해내기 위해서 알아가

---

<sup>22</sup> Ibid., 146.

<sup>23</sup>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09433>

<sup>24</sup> 최정숙,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부부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1996), 25.

<sup>25</sup> 김용태, *부부 같이 사는 게 기적입니다*, 26.



는 과정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알아가는 과정이 잘 진행이 될 때 적응과 함께 발달과업이 이루어 질 수 있고 사회적 변화에 의한 역할상의 위치와 기능들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세대의 구성, 집안일 분담, 재정계획, 안정된 일자리 만들기, 사회적 위치로서의 지위 만들어가기, 부부 성생활의 적응, 사회활동 및 취미의 계획과 적응, 영적성장을 위한 교회 봉사 및 신앙생활의 계획 등 추가적으로 함께 알아가야 할 다양한 사회적인 발달 과업을 가지게 된다.<sup>26</sup> 알아야 하는 발달과업의 가짓수가 적지는 않다. 그러나 신혼부부단계에서 감당하며 수용해야 할 발달과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나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온전하게 수행해내지 못할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의 불안, 우울, 정신분열, 비행 등 정신병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후 시간의 연속선상에 따라 성취하고 진행되어야 할 발달과업을 이루지 못한 채 그 다음단계로의 전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sup>27</sup>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에 힘을 쓰는 노력이 필요하며,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지도를 통해 배워가기에 힘쓰는 과정들이 요구된다. 이 단계에서 안정적인 적응과 부부로서의 발달과업이 성취가 되었을 때에 다음단계인 어린자녀가 있는 단계로의 전환이 수월해지게 된다.

#### 어린자녀가 있는 신혼가정(가족생활주기 3단계)

어린자녀가 있는 단계는 3040세대 신혼가정들에게 또 다른 전환기를 이루게 한다. 3040세대 신혼가정 사역을 하면서 서로를 그룹으로 연대할 때 가장 뚜렷하고

<sup>26</sup> Jack Balswick and Jidith Balswick, *크리스찬 가정, 황성철 역* (서울: 두란노, 1998), 25.

<sup>27</sup> Irene Goldenberg and Herbert Golenberg, *가족치료, 김정택 외 2인 역*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7), 72.

일반적인 공통점은 결혼을 한 부부라는 사실이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함께 시작한 그룹이 하나의 공동체로 연속성을 띄며 성장 및 발전될 것이라 여겨졌고, 그것이 당연한 흐름이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 연속성은 자녀라는 또 하나의 사회적 요소에 의해 극명하게 해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결혼이라는 공통분모로 청년의 시기로부터 독립하며 같은 연대로 묶이는 하나의 그룹이 조성되었 듯이, 시간의 흐름 속에 자녀의 출생과 육아의 과정이 도래하게 되면서 자녀가 있는 가정과 자녀가 여전히 없는 그룹들로 또 한 번의 공통분모가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결혼 7년차 내외의 가정들이 함께 모인 목장<sup>28</sup>에서 4가정은 자녀를 출산하지만 1가정이 오랜 시간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해왔고, 많은 영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해왔을지라도 자녀의 유무(有無)는 많은 것을 바꾸고 나누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자녀가 있는 가정과 자녀가 없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재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청년과 결혼한 신혼부부의 관심사가 다르고, 기도제목이 달라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는 내용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듯이, 자녀의 유무(有無)에 따라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됨으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삶의 방식과 기도제목들, 그리고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사이에서 느껴지는 무언의 피해의식과 소외감이 경험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단계차이가 아닌 자녀의 유무(有無)에 따른 단계의 차이를 알고 이에 대한 준비와 대처를 모색해보는 것도 3040세대 신혼가정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일이 된다. 이처럼 2단계와 3단계 가정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

<sup>28</sup> 치유하는교회는 소그룹의 작은 단위 즉 셀, 그룹 등으로 불리워지는 작은 단위를 “목장”이라 칭하고 있다. 결혼한 신혼부부는 나이에 상관없이 결혼 연차에 따라 3040세대 신혼가정 교구인 10교구의 각 목장으로 연결 및 배치된다.

바로 자녀의 유무(有無)라는 것이다. 3040세대 신혼가정을 크게 구분하자면 자녀가 있는 가정과 자녀가 없는 가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목회적 적용과 방향성에 그대로 결과물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이들의 차이를 중심으로 3040세대 신혼가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일은 이들을 위한 사역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

부모기로 전환하여 어린 자녀가 생기게 되면 부모는 자신들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녀양육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된다. 자녀출생이라는 시점부터 가정의 모든 중심이 자녀의 중심으로 흘러가고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자녀중심으로만 진행되는 가정의 패턴은 자녀 이외의 많은 다양한 관계 및 생활상의 발달과업을 방해하는 스트레스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sup>29</sup> 이를 위해 부부가 함께 자녀출생이후에 대한 생활상의 변화와 부부관계의 변화, 이후 육아에 대한이 때 발생하는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알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어떠한 사회적 어려움과 필요한 역할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시각차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분만과정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일과 육아에 대한 분담의 시각차까지 문화와 관습 및 학습되어온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차이도 발생한다. 어떤 가정은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주된 가치로 여기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할머니나 형제, 또는 부모의 대리자가 자녀양육을 담당하기도 한다. 특히 요즘같이 맞벌이가 많은 가정환경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부부가 균등하게 사용하여 서로의 일터가 방해 받지 않으면서 함께

---

<sup>29</sup> Betty 외 2인 공저, *가족생활주기와 치료적 개입*, 331.

육아의 공동책임을 감당해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동시에 부분적인 아이 돌봄 서비스<sup>30</sup>나 양육도우미의 도움을 요청하여 사회적 재편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해 나아가는 방식도 존재한다.

이 단계에서 어린 자녀를 돌보게 되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정서적인 영역이다. 모든 것이 처음이며 경험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여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처리하며 감내해 나아가다 보니, 낯선 환경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정서적 결핍과 소외 그리고 스트레스는 많은 크고 작은 정서적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육아를 감당하는 기간 동안 철저히 사회와 단절되면서 느끼게 되는 정서적인 고독감과 소외감은 모든 육아를 담당하는 부부들의 첫 번째 정서적 어려움일 것이다. 기존의 익숙하던 모든 관계와 단절된 채 어린자녀와의 관계에만 묶여 육아와 청소, 관련된 집안 일, 그리고 가족 내의 대소사까지 새롭게 책임지게 된다. 아울러 삶의 영역이 급작스럽게 증폭되면서,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잘해내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해소되지 못한 채 축적되어져만 간다. 또한 그 일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부담과 압박감도 정서적 어려움을 심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아울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이 미숙함으로 발생하는 부모의 죄책감과 갈수록 높아지는 육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수준, 양육을 위한 경제적인 비용 발생의 측면까지 다양하고 많은 부분을 책임져 나아가야 할 발달과업이 존재한다. 이를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최대한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연결지어가는 일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역할분담 및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해 나아가기 위한 부부관계 안에서의 상호

---

<sup>30</sup> 여성가족부 산하의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소통 및 교육과 훈련, 신앙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사회학적 시기의 공감을 필요로 한다.

3040세대 신혼가정에게는 결혼이라는 과정 외에 그 어떠한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듣고, 경험하고, 알아본 바가 없다. 본인이 직접 닦치지 않는 경험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이 가지 않기도 하고, 결혼에 대한 부푼 기대와 결혼 전의 현실적인 관계와 그 단계에서의 경험들이 이후의 어려움과 계획들에 나아가는 것을 생각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결혼예비학교를 통해 미래의 결혼생활에 대한 준비를 점검하는 가정도 드물다. 많은 가정은 결혼 후 생활에 대해서는 물론이요 더 나아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에 이르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지조차 못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대한 안내와 소개를 받을만한 기회조차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과 지도가 분명하게 필요하며 함께 연대를 가지고 서로의 상황을 공감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신앙의 멘토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결혼 후 많은 새로운 사회적 적응에 익숙해 지지도 않던 무렵 우리 가정에도 출산의 기쁨과 육아의 과정을 담당하는 시기가 찾아왔었다. 그때 아내가 첫째 아이를 안은 채로 ‘왜! 아무도 나에게 엄마가 되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걸 알려주지 않은거야!’ 라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던 장면이 아직도 가슴깊이 새겨져 있다. 많은 것을 몰라서, 알려주는 이가 없어서, 준비하도록 마음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서 너무도 힘든 시기가 있었다. 몰라서 감당하기 어려웠고, 익숙하지 않아서 더 힘들었던 시기였다. 이 시기를 함께 공감해주고, 필요한 부분과 주의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부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사람만이라도 있었다더라면, 훨씬 수월하겠다는 생각과 아쉬움을 나누곤 했다. 결혼을 하고,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남아 양육하면서, 상황은 오히려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는 방법을 알아가게 된 것 같다. 이 시기를 잘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내성이 어느 정도 생긴 것 같다. 그것은 바로 이 시기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오는 앎이고 다음으로는 같은 시기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의 존재 때문이다. 아는 것만으로도 수월해지고, 나눌 수 있어 즐기게 되는 시기이다. 아울러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힘이 날 수 있고, 물어봐 주는 사람이 있어 회복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는 변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다음단계를 위해 필요하다. 공감할 수 있는 과정만 수행된다면 누구든 안정감 있게 얼마든지 이 시기를 잘 감당해 낼 수 있다. 어떠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어떠한 시기를 만나야 하는지 알게 되며, 이들이 겪는 시기에 대한 아픔과 고통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이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안정적인고, 건강한 3040세대 신혼가정의 시기를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는 시기적 공감과 공감을 위한 지식 및 교육 그리고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 문화적 특징<sup>31</sup>

3040세대 신혼가정을 이해하기 위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문화적 특징이다.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이 이제 산업생산시대는 가고 문화생산시대가 오고 있다<sup>32</sup>고 말했듯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문화를 통해 재생산되고, 문화를 통해 소통하며 문화를 통해 연결되어지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

<sup>31</sup>레너드 스윗의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에서 말하는 EPIC교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포스트모던 세대의 문화적 특징을 요약 정리하여 기술한 것임을 밝힌다.

<sup>32</sup> Jeremi Lifkin, *소유의 종말, 이회재 역* (서울: 민음사, 2001), 15.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전염병의 확산으로 포스트코로나<sup>33</sup>라고 하는 새로운 명칭이 부여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내는 문화적 특징을 일반화하여 상세하기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일반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문화적 특징들에 의해서 소통되고,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왔고, 지금과 이후의 세대를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3040세대 신혼가정의 성도들을 목양하고 이끌어가기 위해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관점보다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들을 이해하고, 필요한 대안과 개념을 정립하여 제시한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의 EPIC이론을 중심으로 문화적 특징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스위트는 포스트모더니티를 EPIC문화로 지칭한다. 이는 경험(Experiential), 참여(Participatory), 이미지(Image-driven), 관계(Connected)에 해당하는 네 단어의 앞 글자를 모아 놓은 것으로서 포스트모던 시대 사람들의 특징과 요소를 의미하고 있다.<sup>34</sup> 그리고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문화 또한 이러한 경험, 참여, 이미지, 관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sup>35</sup> 이전에도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많은 이론과 주장들이 있었지만 스위트가 주장한 이론과 개념은 현시대의 교회와 성도 그리고 세상과의 사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설명해주고 있으며, 교회적으로도 올바른 대안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에 충분하다

---

<sup>33</sup> 포스트(Post, 이후)와 코로나19의 합성어. 코로나19 극복 이후에 다가올 새로운 시대, 상황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sup>34</sup> Leonard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서울: 도서출판 좋은씨앗, 2009), 61.

<sup>35</sup> Ibid., 62.

고 할 수 있다. 스윗이 제시한 다음의 네 가지 개념 등을 통해 3040세대 신혼가정에  
 게 어떠한 공감의 필요성이 필요한지 그들의 특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  
 이다.

경험(Experience)을 소비하기를 원한다.

스윗이 정의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첫 번째로 경험을 원한다는  
 것이다. 스윗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  
 고 말하면서 ‘아는 것’ 과 ‘경험하는 것’ 의 차이를 대비하며 포스트모더니스트가  
 무엇보다 추구하는 것은 ‘경험하는 것’ 임을 강조한다.<sup>36</sup> 어떠한 비용을 지불하더라  
 도 그들의 인생의 경험을 위해 본인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는 가차 없이 경험하기를 선호하고 선택한다는 것이다. 누군가의 삶을 간접적으로  
 듣고 아는 것에 넘어서서 자신 스스로가 경험하는 삶을 추구하며 택하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고 말한다.<sup>37</sup> 누군가에게는 의미 없는 일일지라도 자신 스스로에게 의미 있  
 게 경험될 수 있는 일을 찾는 세대가 바로 포스트모더니즘 세대라는 것이다. 최근에  
 등장한 “올로(YOLO)"라는 신조어는 이러한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다. ‘인생은 한번  
 뿐’ 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You Only Live Once의 앞글 자를 딴 용어이다. 이는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여 소비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며 미래 또는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한다.<sup>38</sup> 미래를 위해 현

---

<sup>36</sup> Ibid., 65.

<sup>37</sup> Ibid., 67.

<sup>38</sup>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48848&cid=43667&categoryId=43667>(2021년2  
 월22일 접속).



재의 가치 있는 경험을 참지 않는다. 자신의 가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위하여 미래를 가차 없이 포기하고, 많은 당위성이 발휘되는 삶의 면면들에 얽매이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들은 경험을 소비한다. 포스트모더니즘 세상에서 생산되는 문화를 소비한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되는 문화를 소비하고, 경험을 소비한다. 소비문화 (consumer culture)의 특징은 그 중심성이 대중들에게 있다.<sup>39</sup> 대중들에 의해 소비되고 유지되고 계획되면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들에게 공감될 수 있는 문화만이, 용품만이 이들에게 소비될 수 있다.<sup>40</sup> 이는 이들의 생활방식은 물론이요, 이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영역에까지도 그 맥락이 연결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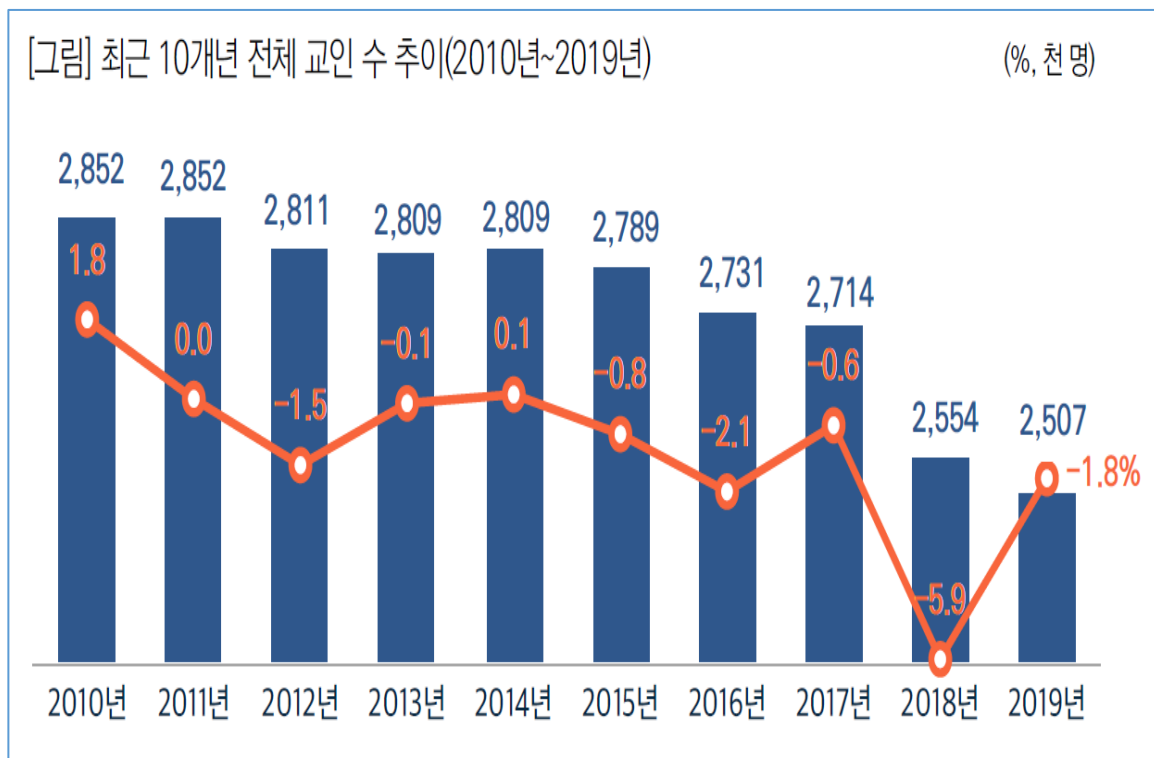
스윗은 21세기의 대중들이 영적인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sup>41</sup> 이들은 더 이상 교회문화로부터 영적인 특별한 경험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이며, 교회는 이러한 경험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이는 한국교회 내에서도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어려움 중에 하나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 속에서 한국교회의 많은 영적각성의 시도가 있었지만, 성도 수는 점점 줄어들어 “다음세대”라는 구호를 외치며 교회의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

<sup>39</sup> 임성빈, *21세기 문화와 기독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90.

<sup>40</sup> 임성빈, *현대문화의 한계를 넘어서*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198.

<sup>41</sup> Leonard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73.

<그림1> 최근 10년간 예장통합교단 전체 교인 수 추이<sup>4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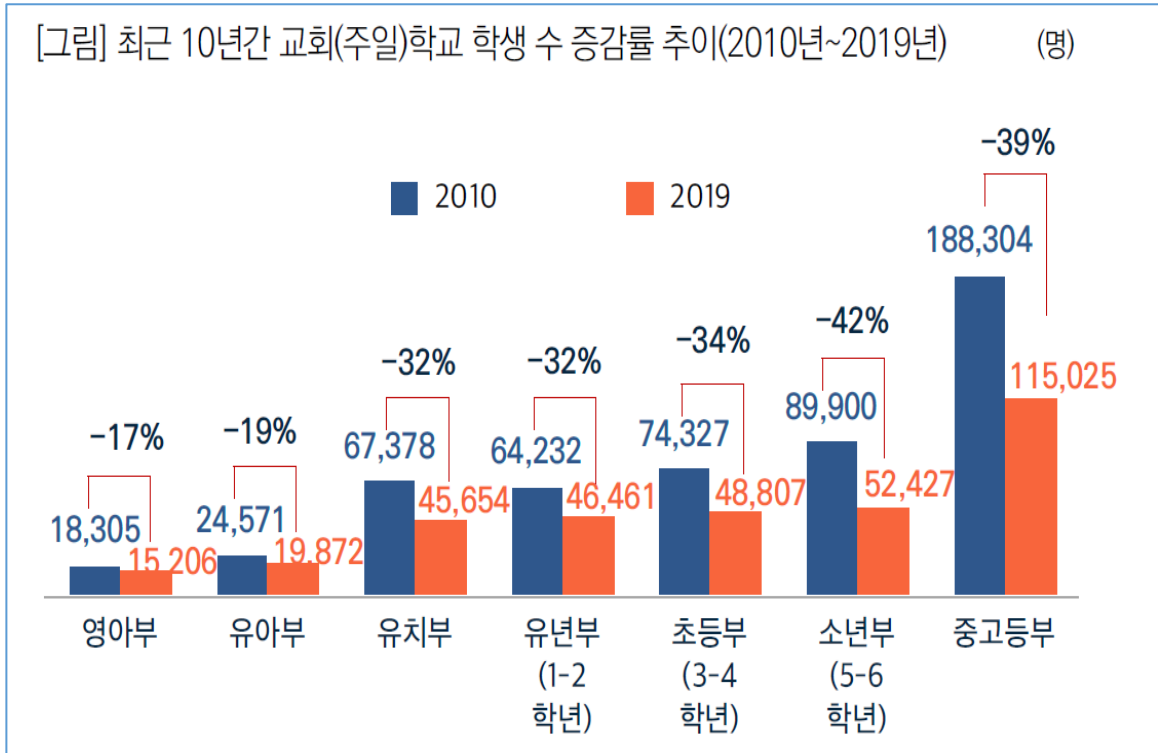
<그림1>에서 나타나듯이 통합 교단의 전체 교인 수는 2010년 285만 명에서 2019년에는 약 250만 명까지 줄어들었다. 10년 동안 약 35만 명, 즉 12.1%의 교인수가 급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 5개년(2010년~2014년)에는 감소율이 1.5%로 그나마 변동률이 낮았지만 후반 5개년(2015년~2019년)에는 10.1%의 격차로 매우 큰 폭으로 급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후 과정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급격한 교인 감소세가 예상된다.

아울러 다음세대인 주일학교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그림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교회(주일)학교의 상황도 최근 10년 동안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출생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저출산 시대이기도 하지만 장년 성도

<sup>42</sup> [http://mhdata.or.kr/mailling/Numbers67th\\_201016\\_Full\\_Report.pdf](http://mhdata.or.kr/mailling/Numbers67th_201016_Full_Report.pdf)(2021년2월22일 접속).

가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숫자도 줄어드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는 학원 및 공부 등의 요인이 증대됨으로 인하여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림2>를 보면, 유치부부터 중고등부의 최근 10년 동안의 학생 수 감소율은 20%가까이 나타나고 있으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는 특별히 30%대의 급격한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년부와 중고등부는 40%내외의 감소율을 보이게 되면서 초등부 이전 연령대보다 더욱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이들과 역학 관계로서 연계되는 청년부와 청장년부에 이르는 성도들의 수 또한 동일하게 급격한 감소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교회는 “다음세대” 를 포함한 감소하는 성도들을 붙잡기 위하여 수많은 영적각성운동을 일으켜왔고, 많은 노력과 시도를 이어왔다. 그러나 여전히 성도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이들이 소비 할만한 영적 경험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교계의 현실이다. 아직도 많은 비본질적 요소로 인하여 이들이 원하는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세대간의 격차 및 공감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이는 계속해서 급감하는 전체교인수와 다음세대의 감소로 나타난다.

<그림2> 최근 10년간 주일학교 학생 수 증감률 추이<sup>43</sup>

그렇다면 이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것인가? 영적인 일에 흥미를 잃어 버려서 인가? 아니다 자신들과 상관없는 예배, 자신들과 관계없는 하나님, 즉, 다른 사람이 정의하는 하나님이나 예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스위트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예배가 사람들로 하여금 강렬하게 느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말씀으로 다가가기 위하여 강렬하면서도 신비스러운 경험적인 방법이 필요함을 말한다.<sup>44</sup> 포스트모던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형태와 방법과 경험의 형식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복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역설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

<sup>43</sup> Ibid.

<sup>44</sup> Leonard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79.

하고, 경험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냐는 말이다. 물론 이러한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마음에 와 닿는 요소를 우리는 연결 지어 줄 필요가 있다. 마음에 와 닿도록, 경험될 수 있도록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적용하며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소세로 나아가는 교인수와 다음세대의 증감률 추이를 반전시킬 기회를 얻을 지도 모른다. 이를 위해 이들이 원하는 경험방식을 경청할 필요가 있고, 수용적인 자세로 이들의 필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경험에 대한 이상화의 우려는 존재한다. 실재와의 관계는 없고, 경험만으로 끝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경험을 위해서, 경험에 의한, 경험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험을 통한 실재와의 관계, 접촉이 필요하고, 경험을 통한 무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sup>45</sup> 그러나 포스트모던속의 사람들은 경험을 원하고, 경험을 중요시한다는 사실이 의미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한 접근과 접촉과 연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윗은 얼마든지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관을 통해서도 ‘전통적’ 교회를 추구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sup>46</sup> 이들이 진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갈급함의 심연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얼마든지 인도할 수 있다. 경험을 원하는 이들과 세상의 필요를 우리가 맞추어 공감하고, 연결 지어 그들의 필요에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가는 문화 속 진리추구의 고민과 적용이 더욱 요구될 것이다.

---

<sup>45</sup> Ibid., 82.

<sup>46</sup> Ibid., 84.

‘상호 작용적인’ 참여(Participatory)를 원한다.

스윗이 말한 것처럼 포스트모던 문화는 선택하는 문화이며, 포스트모던인들은 선택권을 가지고 싶어 한다.<sup>47</sup> 그리고 이러한 선택권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속성은 참여하고 싶어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상호작용하며 만들어가는 문화가 형성된다. 스윗이 이를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들었던 사도행전 속 아테네 사람들의 사례는 오랜시간이 지난 시점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포스트모던적인 문화를 설명하고 이해하기에 충분한 사례가 된다. 1세기의 아테네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들은 다양성의 문화였다. 그리고 그러한 다양성의 문화들 속에서 그들은 선택권을 발휘하는 속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이를 통해 문화적인 결정과 발전에 더욱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들은 그저 일방적인 정보를 전달받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받는 문화보다 그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문화를 원했던 것이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적인 문화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다양한 모습들로 존재하며 나타난다.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킹 서비스문화를 살아가는 세대들은 이미 이러한 참여적인 문화의 삶에 익숙하다. 개인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좋아요’ 버튼을 한번도 눌러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들은 삶의 영역에서 생각보다 폭넓은 영역으로의 참여적 삶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이다. 스윗의 말처럼 포스트모던인들은 상호작용할 수 없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만 같기도 하다.<sup>48</sup> 이미 1인 유튜버시대가 일상이 된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TV를 일방적으로 시청하던 세대에서 스스로가 방송을 만들어가고 구독자와 서로 참여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

---

<sup>47</sup> Ibid., 101.

<sup>48</sup> Ibid.

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면 시청하지 않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머무르지 않는다는 표현이 적당할 것이다. 일방적인 정보전달 및 동의만을 해야 하는 형식에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스스로가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문화형식을 소비하기 원한다. 상호작용하기를 원한다. 김난예는 이러한 젊은 세대를 가리켜 자신들의 정체성확인 및 확립을 위해 일방적인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정보를 직접 찾고, 필요에 의해 참여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말한다.<sup>49</sup>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현시대의 기독교 문화와 예배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스윗은 참여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교회 활동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성만찬을 포함한 예전적 활동 뿐만 아니라,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참여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적용해 가야 함을 말하고 있다.<sup>50</sup> 또한 예배의 요소 중 설교에 대해서도 회중이 참여할 수 있는 ‘상호 작용적 설교’에 대해서 말한다. 설교하는 중간 중간 회중의 반응을 물어보고, 들으며 진행하는 대화 형식에 가까운 설교형식을 취하므로 인하여 회중도 설교의 형식 안에서 참여하는 예배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sup>51</sup> 이러한 ‘상호 작용적인’은 ‘끝내지 않은’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중간 중간 2분이나 3분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요소를 적용함으로 인하여 회중이 예배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

<sup>49</sup> 김난예 외 8명 공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기독교교육 학습 공동체* (서울: 요단출판사, 2014), 94.

<sup>50</sup> Leonard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15.

<sup>51</sup> *Ibid.*, 117.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예전의 형식에서도 이러한 ‘상호 작용적인’ 적용은 이미 시도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성찬식이나 장례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과 견해들이 제시되고 적용되는 가운데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며 최근 첫 부활주일을 맞이하기에 앞서 몇몇 교회들은 성도들의 참여를 위해 온라인 성찬을 준비하여 시도하기도 하였다. 물론, 신학적, 예배학적인 논란의 여지는 얼마든지 존재하나 성도들의 필요를 확인하며 참여할 수 있는 예전으로의 적용적 시도는 ‘상호 작용적인’ 예전으로 인도하는데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스윗은 장례 및 추모 예전에 대하여 포스트모던 목회자들이 이러한 현실과 가상 영역 모두에서 추모와 관련된 여러 장소, 그리고 다양한 예전에 익숙해져야 함을 역설한다.<sup>52</sup> 전통을 지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을 지키느라 아무도 참여하지 못하는 예전만을 고집한다면, 이 또한 시대적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sup>53</sup> 하신 성경말씀처럼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장소와 형식의 다양성을 넘어서서 들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기본적인 통로가 준비되어야 이후에 신학적, 예전적 논의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시도와 동시에 상황별, 장소별 신학적이고 예전적인 논의는 계속 자세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성도에게 다가갈 수 있고, 성도에게 공감될 수 있고, 성도에게 와 닿는 형식으로의 ‘상호 작용적인’ 예전을 연구하여 제시해야함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

---

<sup>52</sup> Ibid., 120.

<sup>53</sup> 로마서 10:14-15.



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일방적인’ 참여는 더 이상 시대에 적응할 수 없는 오래된 유물과 같은 형식이 되어버렸다. 포스트모던인들에게 ‘일방적인’ 참여의 형식은 반응하기 싫은 정도의 것이 아닌, 부정적, 혐오적 회피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모습은 최근 정치적 상황과 코로나19의 사태로 벌어진 사회적 현상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다. ‘참여적인’, ‘상호 작용적인’ 소통이 필요한 시대적 상황에 놓이게 된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한국교회는 선제적 조치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심각성과 전염성의 우려로 국가적인 공감과 제한적 조치가 요구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선제적 조치로 반응될만한 자세와 사고가 한국교회에는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다. 상황의 심각성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직 한국교회의 ‘일방적인’ 참여 독려와 ‘일방적인’ 교계의 방향성들만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을 뿐이다. 사회의 참여적 모습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일방적인 형식과 모습을 보임으로 인하여 사회적 신뢰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후 여러 많은 이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호 작용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많이 존재한다. 결국 시대를 읽지 못하고, 세대에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한 교회들은 외면을 당하거나 존재의 위기에 이르기까지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포스트모던’ 세대를 넘어 ‘포스트코로나’, ‘뉴 노멀(New Normal)’의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는 일정한 주기로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외면 받는 교회, 아무도 참여하지 못하는 예배가 아닌, 한 영혼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고,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가 되어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회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호 작용적인’ 참여가 가능한 교회와 예배 그리고 예전적 모습들이 회중의 필요에 맞추어 다양하게

개발되고 적용되는 일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지(Image)와 은유로 사고하길 원한다.

스윗은 포스트모던인들에게 나타나는 주요한 세 번째 특징으로 ‘이미지(Image)’와 은유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미 수많은 이미지로 소통하고 있으며, 이 이미지들은 때로는 이야기로, 때로는 음악적 감성으로, 때로는 그 이상의 어떠한 것들로 우리와 소통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이미지는 글이나 문서보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특징이 있으며, 사람들은 이러한 감성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통한 소통에 상호 작용적으로 끌려가는 관계가 형성된다고 말한다.<sup>54</sup> 우리는 이미지를 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휴대폰 문자를 주고받을 때에도 ‘^^; , -.-’ 등과 같이 특수부호를 조합한 이미지에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여 전달하는 것이 익숙하다. 오히려 이러한 표현 없이 글자만 보내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의심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SNS의 일종인 카카오톡은 우리의 감정을 실어서 표현할 수 있도록 수많은 이모티콘을 서비스하며 판매하고 있다. 이제는 이모티콘 없는 건조한 문자나 글은 포스트모던인들에게 소통의 오류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아울러 스윗은 교회문화 내에서도 이러한 은유, 이미지, 상징, 이야기 등의 요소가 중요한 소통의 기제임을 밝혀준다.<sup>55</sup> 예수님의 이야기나 성경의 많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로 자체로서 비유로, 은유로 전해질 수 있는 느낌과 배경이 있다. 그러나 문자중심의 전달과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배경적 요소들이 빠지고 생략될 수 있

<sup>54</sup> Leonard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33.

<sup>55</sup> Ibid., 135.

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히려 많은 소통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온전한 전달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세기 동안 성경 속 이야기는 현대의 교리와 율법으로 문자중심의 소통이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또한 포스트모던시대의 사람들에게 아직도 문자중심의 전달이 유일하고, 전통적인 소통의 방식으로 인지되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지고,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자중심의 말씀해석으로부터 벗어나 이미지 해석의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강조한다.<sup>56</sup> 은유라는 것은 무거운 주제를 들어올리는 작용을 하기도 하며 어떠한 장면과 순간들을 아주 쉽게 인식하게 하며 설명해주는 영감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문자와 설명중심의 방향성보다는 이미지중심의 은유나 비유중심의 방향성으로 소통을 하셨기 때문이다. 물론, 이미지를 추구하는 방향성의 장점과 동시에 단점 및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단점과 위험성 때문에 되지도 않는 문자중심의 소통을 고집하는 것은 더욱 불필요하고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오히려 이미지를 추구하는 세대에게 균형 잡힌 건전한 교회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전달하는 과제가 필요한 것이다.

3040세대의 신혼가정에게서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적인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들은 이미 활자로 된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 등을 보지 않는 세대이며, 온라인 기사에서도 사진이나 이미지가 없는 형식은 흥미를 갖지 못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sup>57</sup> 2007년도에 조사된 포레스터 리서치(Forrester Research)에 의하면 “Y세대”<sup>58</sup>들은 단순한 메시지나 짧은 문장과 이미지를 통한 소통을 선호한다고

---

<sup>56</sup> Ibid., 143.

<sup>57</sup> <http://www.lgeri.com/report/view.do?idx=16562>

<sup>58</sup> “네이버 지식백과”, “미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6~1965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로, 보통 1980년 초반부터 2000년 초반 사이에 출생한 세대들을 일컫는다. Y세대는

말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만 알 수 있는 언어적 표현과 방식들을 즐겨 사용하며 다양한 신조어 및 비속어, 줄임말 등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문자중심의 소통문화는 중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흥미마저 느끼지 않는 요소로 치부되어 있는 것 같다. 이들은 소통문화에 이미 이미지나 은유에 대한 장치와 방식들이 삶의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세대이다. 모호함을 지닌 은유나 이미지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들은 은유나 이미지소통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에 이를 통한 사고와 해석, 추론의 그들만의 방식들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나 은유는 이들의 삶을 연결시키기도 하며, 공감적 연대를 이루어가기도 한다. 이들에게 연결되고, 연대적 공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적 차원의 은유 및 이미지 소통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스윗은 이러한 은유가 사고의 근본적 도구이며, 이를 통해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고 삶이 변화된다고 말한다.

“은유는 장식 그 이상이다. 은유는 사고의 가장 근본적인 도구다. 은유는 추론의 결과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원인 자체다. 예배의 위력이 그토록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은유를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고 삶을 변화시킨다.”<sup>59</sup>

이러한 이미지적 요소는 포스트모던 문화뿐만이 아닌 인간의 정신적인 사고 및 특별활동의 자체가 지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sup>60</sup>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방식 자체가 말이 아닌 이미지로 사고하는 방식이기 때문인 것이다. 결국 포스트모던인들에

---

베이비붐 세대가 낳았다고 해서 에코세대(메아리세대)라고도 불리며, 다른 나라 문화나 다른 인종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 포용력이 높으며, 지적 수준과 도전정신이 높은 편이다. 개인·개방·감성주의가 특징으로, 모방심리와 호기심이 많고, 트렌드에 민감해 쇼핑을 즐기고 소비력도 왕성한 편이다.”

<sup>59</sup> Leonard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41.

<sup>60</sup> *Ibid.*, 140.

게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근본적인 소통의 힘은 말의 힘이 아닌 은유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스윗은 또한 나이키의 상징을 예시로 설명하면서 힘의 궁극성은 단어가 아닌 은유를 결정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도 말한다.<sup>61</sup> 우리에게도 은유를 결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한국교회에도 위기 가운데 3040세대 신혼가정들에게 더 나아가 많은 시대의 성도들에게 다가가며 영적소통을 이루기 위해 은유를 결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예수님 당시에 은유와 비유를 통한 설교와 소통이 주를 이루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제는 다시 우리가 잊고 있던 중요한 소통의 방식, 은유와 이미지의 방식을 한국교회가 추구하며 연구하며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문자에 흥미를 잃은 세대, 이미지와 영상미에 더 쉽게, 익숙하게 접근하는 이 세대에게 우리는 이미지를 통한 영적 소통, 신앙과 교회적 역할의 적용을 준비하며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

관계(Connected)가 살아있는 공동체(Community)를 원한다.

스윗은 포스트트모던인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네 번째 특징으로 "관계(connection)"를 말한다. 포스트모던 문화에서는 그 어떠한 중요점과 특징들보다도 관계가 중요하며 문화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모든 문제는 이러한 관계와 협력의 문제라고 이야기한다.<sup>62</sup> 우리는 이미 인터넷 중심의 문화를 통해서 많은 곳에 연결되어지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연결(connected)을 넘어 초 연결 시대의 문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나 지역, 공간을 뛰어넘어 모두가 자신들의 선택이 연결될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을 만

---

<sup>61</sup> Ibid., 141.

<sup>62</sup> Ibid., 166-167.

들어가거나 참여하기를 원한다. 웹사이트나 전자 상거래 시장이 이와 같은 주도적 역할을 이행하고 있음을 스윗은 언급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공간에서 단순한 정보화인이나 거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보 확인을 위해, 거래를 위해 모이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드백을 받고, 이를 위한 또다른 영역을 형성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인터넷공간에서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도 하고, 문의하기도 하며,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도, 공동공간의 모임에 상호적인 참여를 이루어가기도 한다.

새들백교회의 온라인 사역자인 케빈리 목사는 그의 최근 목회자사관학교 강의 인터뷰에서 교회에 온라인 사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온라인에 있기 때문’이라는 인상적인 말을 남겼다.<sup>63</sup>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이고 제한된 상황과 거리두기가 일상인 시대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연결되기를 원하며, 만나기를 원한다. 온라인에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을 원하고 관계를 원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현재에도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 카톡 등 수많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사람들은 거의 실시간으로 접속 즉,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시간,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확장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장(Field)이 이미 상승하고 있는 현실이다.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모임이 제한되고,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도 초연결의 시대와 상황으로 가능해졌고, 이러한 공간에서의 모임과 관계들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포스트모던인들의 특성과도 관계가 있다.

스윗은 말하기를 포스트모던인들은 “이웃과 도덕, 그리고 영적인 가치의 연

---

<sup>63</sup> 스티브 차,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 *목회와 신학* 3월호(2021), 30.

결 구조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싶어한다”<sup>64</sup>고 표현한다. 이러한 관계와 연결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를 원하며, 연결을 통한 회복을 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연결이 확장되어질수록 교회의 역할은 개인의 본 모습을 회복시켜주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65</sup>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가 만연한 문화를 소유한 시대에서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선택공동체라는 연합의 장소로 관계를 맺어가며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개인주의의 추구가 혈연이나 지연 공동체였다면 이제는 서로의 선택에 의해 함께 소통하게 되며 공유하게 되는 공동체들로 연결되는 영역의 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sup>66</sup> 이를 위해 교회에 관계성을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과정들을 준비하고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스윗은 교회가 더 많은 규칙을 지키는 것과 더 많은 전통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면서 바른 관계에 집중하는 중요성을 잃어버렸다고 말한다. 교회가 중요한 교회적 전통과 신학적 요점을 남겼을지라도 정작 중요한 사람을 놓치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잃어버린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로 인하여 관계가 살아있는 공동체성을 회복할 때에야 비로소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시작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sup>67</sup> 또한 세상의 구원에 필요한 것이 관계의 용기라고 말한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용기, 이 세상에서 관계를 맺을 용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용기가 세상을

---

<sup>64</sup> Leonard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69.

<sup>65</sup> Ibid.

<sup>66</sup> Ibid., 163.

<sup>67</sup> Leonard Sweet, *관계의 영성*, 윤종석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1), 15.

구원하는 데에 필요한 일인데, 우리는 이러한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관계보다는 규칙과 요점, 관계와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이면적인 것들에 집중하면서 구원에 필요한 관계를 놓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sup>68</sup>

스윗은 이러한 포스트모던 성도들의 갈망에 응답하기 위해 먼저는 관계성의 치유적 측면을 목회적 역량에서 우선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한다.<sup>69</sup>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며 힘을 얻기도 하고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신과 육체적인 부분에 의한 전인적인 건강과 안정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연결된 관계 속에서 포스트모던인들에게 필요한 치유의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한다.<sup>70</sup> 포스트모던인들과의 다양한 관계 즉, 개인, 창조물,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을 얻고, 능력을 얻기도 하며, 필요한 치유의 경험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포스트모던 상황에 필요한 관계의 역량들을 준비하고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포스트모던의 관계적 특성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을 공유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sup>71</sup> 일반적으로 포스트모던을 말할 때에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다양성이다. 다양성을 가지고 공존하는 대상에 맞추고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교회적 분산과 복합성이라는 것이다.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구조와 프로그램 및 문화로는 포스트모던인들의 관계를 연결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다양

---

<sup>68</sup> Ibid., 18.

<sup>69</sup> Leonard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72.

<sup>70</sup> Ibid., 173.

<sup>71</sup> Ibid., 174.



성이 점점 증대되는 문화속에 살아가면서 교회적으로 회중들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부분은 다양성의 존중과 다양성을 위한 교회적 준비가 될 것이다. 예배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회중들의 필요가 다르고, 취향과 형식이 달라 기존의 전통예배만을 고집하다가는 많은 포스트모던인들의 회중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각자의 방법과 다양한 형식을 파악하고 취합하여 필요에 맞는 형식과 장소에서의 예배 형태를 고안하고 맞춰주는 관계적 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일관화된 방식과 일관화된 형식으로는 포스트모던인들을 연결짓기에 많은 제한성이 따른다는 말이다. 예수님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대상들에게 다가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던 모습들을 보여주셨다. 연령에 따라, 문화에 따라,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그들의 필요에 맞추어 다가가시며 관계성을 만들어 가셨다.

세 번째로 포스트모던인들과의 관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야기성을 강조한다.<sup>72</sup> 관계성 즉, 공동체성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근원중의 하나가 바로 이야기성이라는 것이다. 이야기의 힘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경험, 혹은 전달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삶의 자리와 경험들을 이야기로 시스템화하는 것은 관계적 향상에 지대한 영향력을 키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도 성경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실재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야기로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회중들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연결 짓게 되어졌으며 이야기를 통한 복음의 전달력은 이외의 다른 많은 기술보다도 월등하게 그 역할을 이루어 냈다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인들 또한 복음과 하나님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보고, 만져보고, 체험되는 이야기

---

<sup>72</sup> Ibid., 176.

로서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러한 이야기적 요소들이 짧은 동영상이나 미디어, sns의 여러 다양한 형식으로 역할을 대신하여 이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그들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과 접근성들을 개발하고 준비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는 사회적 참여에 대한 부분이 관계성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sup>73</sup>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이유, 정확히 표현하여 관계적 단절을 초래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사회적 참여와 관련된 부분일 것이다. 전염병의 확산되는 시기, 사회적 차원의 참여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및 “비대면” 모임이나 식사금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함께 참여하기를 독려해 왔다. 그러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대부분의 참여하지 않는 집단이나 대상들이 기독교 단체로 보도되면서 교회는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관계적 단절을 철저하게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이웃을 배려하는 봉사나 사회 참여적 개혁의 일들에 가장 비참여적인 이미지로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거론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관계로 전락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 현실이다. 포스트모던인들은 사회적으로 선한 일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 이웃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배려하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는 참여적 교회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사태를 통해서 교회는 더욱 독단적이고, 폐쇄적이며, 이웃주민이 아닌 교회만을 위한 교회로 인식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교회는 어떻게든 세상 속으로 들어가 관계를 만들어야 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하며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

<sup>73</sup> Ibid., 179.

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작금의 시대에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교회 밖 세상에서 참여적으로 움직이며 살아 숨쉬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회복하는 일일 것이다.

문화적 공감을 원한다.

3040세대 신혼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징을 레너드 스윗의 EPIC을 통한 문화적 특징으로 살펴보았다. ‘경험(Experience)’을 소비하기를 원하고, ‘상호작용적인’ ‘참여(Participatory)’를 원하며, ‘이미지(Image)’와 은유로 사고하며, ‘관계(Connected)’가 살아있는 공동체(Community)를 원하는 문화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이들만의 문화적 특징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때론 기성세대를 공격하는 것 같기도 하며, 기성세대와의 단절을 원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서로를 무시하거나 단절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만의 개인적이고, 조금은 이기적인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들에게도 기성세대가 필요하며, 서로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의 방식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확장되며 미디어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들이 발전된 세대라고 해서 인간적 공유가 필요 없어진 것은 아니다. 단지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연결되기를 원하는 것뿐이다. 디지털 시대가 되었지만, 발전되고 세련되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불안해 한다. 우울증이 증가되며, 많은 인간적 필요에 의한 결핍 증상들이 호소되고 있다. 문화가 발전하고 주변의 상황들은 부족함 없이 세련되어졌지만, 오히려 정신적인, 인간적인 결핍에 의한 증상들은 더 다양해지고 증대되어 가고 있다. 미디어의 각종 프로그램들만을 보아도 세대를 초월하여

서로가 연결되고, 서로의 삶을 함께 향유하도록 돕는 예능이나 프로그램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불안한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상황에서 연결되기 위하여 가상의 현실 뿐만 아니라 초자연을 통해서라도 자기를 찾고 싶어 한다.<sup>74</sup>

이러한 문화적세대의 필요와 요청이 기존의 한국교회에서 포용 될 수만 있다면 교회는 또 다른 교회적 성장을 이루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기성세대들의 편협한 시각과 폐쇄적인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젊은세대 즉, 포스트모던적 특징을 가진 성도들을 대체로 포용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문화가 다르고 다양한 세대가 교회 안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신앙에 대한 생각이나 관점이 수용될 수 있는 분위기에야 하고, 공동체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수용적 분위기의 공동체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문화는 기성세대의 전통적인 신앙형식이나 교회문화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신앙에 대해서나 교회문화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의문을 품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풍토를 가지고 있다.<sup>75</sup> 신앙이 모든 면에서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이나 의문 혹은 필요에 의한 다름에 의해 요구되는 방향성의 제고 등 많은 요청들이 설명되지 않은채, 기성세대의 문화적 고수를 앞세워 덮여지고, 차단되고, 무시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분위기는 새로운 문화적 세대들에 대하여 억압적이며, 폐쇄적이고, 소통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교회로의 적응이 많이 제한되는 상황들로 존재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원하는 것은 그들만의 제도적 구조에 이들이 참여하기를 원하며, 기존의 성도들과 교회적 활동이나 문

<sup>74</sup> 홍윤선, *딜레마에 빠진 인터넷* (서울: 굿인포메이션, 2002), 165.

<sup>75</sup> 정재영, *교회 안나가는 그리스도인*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5), 77.

체에 대한 헌신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들만의 리그에 맞춰진 일방적 순종과 적응만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세대에서도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다. 신앙적 관심과 열심을 내어 함께 참여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이들도 많다. 그러나 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닫혀 진지 오래이며, 이들의 필요를 필요로 인정해주고 공감해줄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3040세대 신혼가정들은 현재까지도 그들의 필요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공감해줄 교회를 찾고 있다. 이미 들어와 있는 교회내에서도 그들의 다양한 필요와 고민을 끊임없이 어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교회를 떠난 3040세대 신혼가정들에게 질문하다가 놀란 것은 그들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싶어하며, 신앙적인 갈급함이 있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의 공급을 끊임없이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적 차원에서 그들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회복해 가기 위한 필요에 의해 교회를 옮기고 선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아직 많은 교회는 5060이후 세대들의 기반에 의해서 교회운영이 이루어진다. 교회의 최대 의사결정인 당회나 교회의 주된 업무 등을 이끌어가는 세대는 5060이후의 세대들이며, 이들은 3040세대 신혼가정에 대한 문화적 특징과 필요에 대해서 공감하기 어려운 환경적 요소를 소유하거나 환경적 요소를 향유하고 있다.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뉴노멀시대라는 말이 시대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가운데에 이제는 교회는 이제 한두 세대의 특정한 문화적 특징을 수용하는 준비만이 아니라, 10년단위로 변화되고 바뀌는 문화적 특징들, 세대들에 대한 수용적 자세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끌려오기를 기대만 하고, 전통과 관례만을 고수한다면,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문화적 세대들을 오히려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다른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들 세대의 특징과 어려움을 듣고, 인정해주는 일만으로도, 교회공동체 내부의 다양한 문화적 특징들은 공존할 수가 있으며, 함께 연결될 수 있고, 하나의 복음으로 여러 형태의 성도들이 공존하는 하나님나라의 구현이 가능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문화특징을 소유한 세대를 품기 위한 공감에 대한 이해를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한다.

## 제 III 장

### 공감에 대한 이해

#### 공감의 일반적 이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난 교회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공감능력의 부재였다. 이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많은 신뢰를 잃었다. 이전보다 더 합리적이지 못했고, 이성적이지 못했고, 상식적이지 못했던 행보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교회가 하나님과의 공감에 집중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하나님나라와 복음전파를 위해 세상과 공감하는 일도 중요하다. 더 나아가 교회내부에서 세대와 세대를 공감하는 능력은 더욱 중요하다. 위기 앞에 드러난 한국 교회의 분명한 문제인 공감능력의 부재가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많은 한국교회 내 위기의 문제들을 살펴보게 하였다. 사실, 다음세대, 젊은 세대, 3040세대에 대한 교회적 진단들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문제들이다. 이들에 대한 교회적 대안을 찾기 위해 많은 세미나와 연구를 수많은 교회와 기관에서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자도 이러한 자리에 수없이 참석해 보았지만, 실제적인 대안보다는 그저 형식적인 문제분석과 방법들이 주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근원적인 대책은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를 위한 목회적 대안을 찾아가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펼쳐지면서 공감은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어버렸다. 2020년 9월 3일에 방영되었던 TV 프로그램 「다큐 플렉스」의 ‘호모 언택트’ 편이 최재봉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명백하게 소비자 권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공한 유튜버들이 보여주는 킬러 콘텐츠의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SNS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의 요소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콘텐츠의 진정성Authenticity입니다. 팬덤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고, 팬덤을 만들려면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고, 킬러 콘텐츠는 고객이 스스로 열광하는 문화를 만들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포노 사피엔스 문명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삶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공감”이라는 것이다. 얼마나 공감할 수 있고, 어떻게 공감하며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성공뿐만이 아니라 생존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최재봉 교수는 언택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름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고, 열광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공감의 문제는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전에도 공감이 기업과 사회적인 여러 측면에서 사활을 결정짓는 요소였지만, 이제는 그 부분이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제는 하나님과는 공감하려 했다가는 하나님나라와 복음전파의 사명 의 성패 뿐만아니라 교회의 생존까지도 위협을 받을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하나님 뿐만아니라 교회간에도 공감해야 하며, 교회 내 다른 세대들간에도 공감을 해야 한다. 또한 시대와 세상에도 공감할 줄 알아야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세상에서도 공감을 얼마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한 기업이 성공하기도, 망하기도 하는 사례를 보게 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야후(Yahoo)와 구글(Google)의 차이이다. 공감 때문에 야후(Yahoo)는 망했고, 공감 때문에 구글(Google)은 생존을 넘어 성공을 이루었다. 야후(Yahoo)는 검색 서비스, 이메일의 유료화, 복잡한 광고,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문어발식 콘텐츠 때문에 소비자와의 공감이 잘 안되어 점



점 외면 받을 수 밖에 없는 기업으로 전락해버렸다. 반면, 구글(Google)은 오히려 뒤늦게 시작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파악 및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오히려 성공의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제는 어떻게, 얼마나 공감하느냐의 문제는 성공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청년사역의 현장에서 오랫동안 보아왔던 열심 있던 믿음의 영적 리더들이 결혼 후, 장년교구로 이동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현상들에 점점 더 주목하게 되었다. 함께 했던 시간만큼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사실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 낯설게만 다가왔고, 이에 대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과 목회적 관심으로 대안을 찾아보게 되었다. 앞장에서 다루었던 사회적, 문화적 특징에 대한 이해가 바로 그 첫 번째 고민의 출발이 되었던 것이고, 두 번째 고민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서 기술될 “공감”에 대한 부분이다.

교회의 공감능력 부재가 사회적으로만 문제시 된 것이 아니었음을 3040세대 신혼가정들을 통해 알아가게 되었다. 전통적인 교회, 오래된 교회일수록 새로운 세대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하여 그들의 필요와 관심을 외면하거나 혹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부족한 모습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들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물론, 젊은 세대들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들이 어떤 세대인지,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이들을 수용하고 교회공동체로 적응시키기 위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지 고민해보지 않았고,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자는 3040세대 신혼가정들과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삶의 환경을 공유하며 이들의 삶에서 신앙의 어려움과 교회로의 적응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공감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대부분 많은 교회에서 믿음의 선배들 즉, 기성세대들은 청년에서 결혼하여 장년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소리로만 이끌어가려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 익숙하지 않은 인도, 부담스러운 인도, 불편한 인도가 이들에게는 교회공동체로의 적응에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먼저 믿었던 성도들이 그들만의 문화와 전통으로 자리매김한 환경에서 새로운 세대 즉, 결혼한 3040세대 신혼가정들을 수용하기 위해 어떠한 공감의 자세와 방법들이 필요한지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한 목회적 적용을 도출해 보려고 한다.

### 상담심리학에서의 공감이해

공감이라는 용어는 근대심리학의 발달과 함께 1909년부터 하나의 어휘로 자리잡게 되었다.<sup>76</sup> 이는 근대 심리학에서 의식과 무의식의 내적인 역학관계를 관찰하고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공감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토론과 필요한 실험을 자각하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견주어 비슷한 어휘로서 ‘동정 (sympathy)’는 공감보다 먼저 정의된 공감과 비슷한 어휘로 다른 사람의 어려운 상황이나 처지를 보면서 측은한 느낌을 느끼는 감정을 의미한다. 이와 비교하여 공감은 동정과 정서적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이 둘의 실제적인 내용은 다른 내용을 가지게 된다.<sup>77</sup>

공감은 1872년 미학에서 사용한 독일어 ‘Einfühlung(감정이입)’에서 유래되었으며, 자신의 감성을 어떠한 대상에게 투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용어로 이해되

<sup>76</sup> Jeremy Rifkin, *공감의 시대*, 이경남 역 (서울: 민음사, 2010), 18.

<sup>77</sup> Ibid., 19.

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sup>78</sup> 이로부터 시작된 공감에 대한 관찰이 1909년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티치너(E.B. Titchener)<sup>79</sup>가 독일어 ‘Einfühlung(감정이입)’를 미국 식인 ‘공감(empathy)’으로 번역하면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sup>80</sup> ‘공감(共感)’에서의 ‘공(共)’ 즉, 내성에 대한 부분은 자신의 내적 느낌, 충동, 감정, 생각을 탐구하면서 정체성과 자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얻어내는 방법이며, ‘감(感)’은 타인의 정서적인 고통의 상태로 들어가서 그 고통이 마치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공감(empathy)’은 수동적인 ‘동정(sympathy)’과는 다르게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뉘앙스를 품고 있으며 타인의 경험에 직접적으로 동일하게 느끼고, 공유하고, 그 일부가 되는 경험에 대한 느낌을 공유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공감 연구자인 박성희는 공감이 이처럼 과정으로 정의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결과적인 부분으로 정의되기도 한다고 말한다.<sup>81</sup> 심리학자 프로이트(Sigmund Freud)와 같이 상대방의 내면 속에서 심리적인 관찰과 연구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으로 참여하는 기제로 보는 입장에서는 공감을 과정적인 수단, 도구, 기제 정도로 인식하며 이를 위한 과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그러한 일련의 과정뿐만이 아니라 공감은 정서적 일치를 이루는 현상의 일환인 결과적인 것으로 보는 입장도

---

<sup>78</sup> Ibid.

<sup>79</sup> 티치너(Edward B. Titchener)는 유럽에 있을 때,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빌헬름 분트(Wilhelm Max Wundt)와 연구작업을 함께 하며 ‘공감(Empathy)’에 대한 업적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sup>80</sup> 네이버지식백과, “공감(Empathy).”

<sup>81</sup> 박성희, *공감학(어제와 오늘)*(서울: 학지사, 2004), 31.

있음을 이야기한다. 내담자 중심의 상담 즉, 공감에 대한 상담기법을 적용하며 연구해온 칼 로저스(Carl Rogers)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경험한다고 말한다. 또한 공감을 통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고통까지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성의껏 들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장 눈가가 촉촉해진다. 다름 아닌 기쁨의 눈물이다. 그는 속으로 생각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어 주는 사람이 다 있군요. 이 사람은 마치 내 입장에 서 본 사람 같습니다’<sup>82</sup>

칼 로저스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공감이 무엇인지, 공감의 필요와 공감에 의한 유익함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공감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아를 내던져가면서 상대방의 경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우며,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 가치 수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거나 관찰하려 들지도 않는다고 말한다.<sup>83</sup> 즉,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이나 처지에 대하여 인지적, 정서적인 공유를 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총체적인 반응으로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감적 자세와 반응의 일련의 과정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며, 이 과정들을 통해서만 연결되고, 나타날 수 있는 공감적 반응들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장들은 공감을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나 상황에 대한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공감에 대한 다양한 설명과 또 다른 접근의 살펴봄이

---

<sup>82</sup> Jeremy Rifkin, *공감의 시대*, 22.

<sup>83</sup> *Ibid.*, 21.

필요할 것이다. 공감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견해와 시각을 바라볼 줄 알아야 우리에게 필요한 공감적인 반응과 자세를 더 고취시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확인과 이를 통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 필요한 자세를 준비해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공감은 단순히 인지적, 정서적 인식과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공감하시고, 이 피조세계를 바라보시며 다가오시고, 반응하시는 영적인 영역에 이르는 관계까지 많은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성과 감성과 영성으로의 반응을 포함한 타자와의 대상에 대한 반응들은 결핍과 상처로 얼룩진 많은 반응적 관계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 공감은 돌봄, 사랑, 긍휼, 이해의 개념 들과도 연계적인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요소에 이르기까지 공감에 대한 영역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공감에 대한 요소를 살펴볼 때에 우리는 사회적이고, 교회적인 간극의 사이에서 필요한 공감적 요소를 준비 및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각각의 요소별 공감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확한 공감이 필요하다.

공감의 개념은 심리학적 영역에서는 인간중심 상담의 대가인 칼 로저스(Carl Rogers)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으며, 정신분석적 영역에서는 자기 심리학의 대가인 하인즈 코헷(Heinz Kohut)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이들에게 이렇게 발전되고 연구 될 수 있도록 공감개념을 미학적인 영역에서 성격의 영역으로 전환시키며 연대기적으로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초기 정신분석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이다. 공감의 개념은 1930년대 경에 많은 성격 이론연구자들에게 의해서 사용되고 연구되어져 왔다. 이후 1950년경에는 인간중심 치료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개념이 적용되고 사용되며 이후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발전을 통하여 실제적인 임상과 학문적인 업적들을 쌓아오게 되었다. 1960년경에는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이 공감개념을 주로 사용하였고, 이후에는 이타적인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심리학자들과 발달심리학자들이 공감에 대한 개념을 직접 연구 및 사용을 하게 되었다.<sup>84</sup>

이러한 일련의 연구와 임상적 과정들을 통해서 공감을 통해 나타나는 역할과 기능들을 연대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기능이 바로 치유적인 역할과 기능이다. 심리학적 영역과 정신분석적인 영역과 이외의 수많은 심리 발달의 영역에서 공감의 유무에 의한 관계적 회복뿐만이 아니라 내적치유와 회복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공감을 통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연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은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치유하는 역할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와 업적을 쌓아온 대표적인 심리학자가 바로 칼 로저스(Carl Rogers)이다. 칼 로저스는 인간중심으로 접근하는 대표적 학자이며, 모든 치유적 기제는 내담자에게서 나오고 내담자를 중심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 학자이다. 이는 내담자를 어떻게 공감하고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치유적인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기도 한다.

로저스의 성격이론에서 공감의 개념은 더없이 중요하다. 그리고 심리치료의 영역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sup>85</sup> 로저스는 공감의 중요성에

---

<sup>84</sup> 김영관, *공감과 체험*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6), 22.

<sup>85</sup> Ibid.

대해 말하면서 “사람들은 민감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될 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성장을 촉진하는 자세 또는 치유적인 태도를 발달시킨다”고 공감의 치유적인 기능에 대해서 강조하였다.<sup>86</sup> 이에 대한 로저스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우리가 그동안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무비판적이고 수용적인 특징의 공감적 분위기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돌보아 주는 태도를 취하도록 만든다.
2. 누군가 이해하며 들어주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창자 속 깊은 경험, 자기 자신의 모호하게 느껴졌던 의미들에 대해서 더욱 많이 공감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정확하게 듣는 것이 가능해진다.
3. 자기 자신을 더욱 많이 이해하고 소중히 여겨주게 되면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하여 새로운 측면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 새로운 측면은 더욱 정밀하게 기반이 잡힌 자기 개념의 한 부분이 된다.<sup>87</sup>

로저스가 후에 추가적으로 연구하며 정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속에는 상호작용적인 두 단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삶을 일시적으로 경험하며 사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내담자의 삶에 대해서 상담자의 느낌을 의사소통 하는 단계이다. 이는 바로 공감의 인지적 요소에 의한 부분이다.<sup>88</sup> 공감을 인지주도적 개념으로 사용했던 대표적인 또 다른 학자로 조지 허버트 미드(George Herbert Mead)가 있다. 미드는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인간의 자아가 어떻게 생겨나는가에 대한 연구와 업적으로 큰 공을 세운 사람 중 한 명이다. 미드에 의하면 이 자아발생과정에서는 입으로 하는 말이

---

<sup>86</sup> Carl R. Rogers, *칼로저스의 사람 중심 상담*, 오제은 역 (서울: 학지사, 2007), 173.

<sup>87</sup> Ibid.

<sup>88</sup> 김영란, *공감파 체험*, 23.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자신이 하려는 행동이 남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행동을 통제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sup>89</sup> 그래서 미드는 공감을 정의함에 있어서 말을 통해 상대방의 역할을 취해보고 상호작용을 촉진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로서 공감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은 공감적 능력을 발휘하고 실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바렛 레너드(Barrett Lennard)는 인간중심적 접근을 통한 상호작용적인 의사전달, 소통의 측면 이면에 의식을 경험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로저스나 미드의 상호작용적인 상대간의 공감과정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정확한 공감(accurate empathy)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확한 공감은 공감의 성과와 관련된다고 이야기한다.<sup>90</sup> 이러한 과정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해왔던 즉, 정확공감에 관한 연구로 대표될 수 있는 트루악스(Truax)는 정확한 공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확공감은 청담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러한 경험의 의미를 청담자에게 반영되고 되돌려주는 상담자의 역량이다.<sup>91</sup>

정확한 공감은 상담자나 치료자가 내담나 청담자의 개인적인 세계와 경험을 자신의 것처럼 인지하는 능력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확한 공감은 현재 느끼고 인지하는 부분에 대한 상담자의 이해된 지식, 경험, 민감성 등을 내담자의 현재적인 상황과 느낌에 조율된 말로, 언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과정을

---

<sup>89</sup> 네이버지식백과, 조지 허버트 미드 인용.

<sup>90</sup> 김영관, *공감과 체험*, 24.

<sup>91</sup> 박성희, *공감학(어제의와 오늘)*, 49.



의미한다. 그리고 이때 만일 내담자가 상담자로 하여금 자신과 동일한 정서를 느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치료자에게 적용되지 않아도 될 요소로서 이야기 한다. 상담자가 그러한 정서적 전이를 이루는 것은 오히려 상호작용적인 소통을 이루는데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상태나 상황을 말로서 표현하며 상호작용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정확한 공감의 측면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치유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적인 소통과 정확한 공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바렛 레너드(Barrett Lennard)는 서로간의 공감적 행동은 3단계의 순환적 과정이 존재함을 제시하였다. 먼저는 공감적 이해의 과정을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공명하는 단계이며, 이를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표현하는 단계, 그리고 상담자의 표현된 공감을 내담자가 지각하는 세 단계를 구분될 수 있고, 이러한 세 단계가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구조로서 상호작용적인 정확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였다.<sup>92</sup>

공감의 치유적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내담자에게 맞는 공감의 유형이 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내담자에 따라서 도움이 되는 공감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내담자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험을 상담자가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을 공감으로 자각하기도 하며, 어떤 내담자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현재의 상태에 상담자가 참여하는 것을 공감으로 지각하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다른 내담자는 상담자가 자기노출을 하거나 지지해주는 것을 공감 받는 것으로 인지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공감을 위해서는 많은 다양한 상황적 맥락과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과 달리 내담자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

---

<sup>92</sup> 김영란, *공감파 체험*, 24.

에서 상담자가 하는 인지적 공감, 상호작용적인 소통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보게 된다. 이와 반대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말과 언어적 표현과 상관없이 좋은 치료적 관계라는 맥락에 있을 때에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잘못 이해하거나 필요하지 못한 말을 하고 있더라도 이를 비효과적인 개입으로 인지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개입으로 인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듣고 말해 준다 할지라도 그 당시, 그 사람의 상황과 맥락, 시기에 대한 섬세한 부분을 파악하고 확인하며 그에 맞춰지는 공감을 다르게 적용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공감적 자세를 취한다 하여도 내담자가 이를 부정하거나 불편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담자 중심의 필요, 내담자의 당시의 맥락과 시기에 맞춰 진행되는 공감은 그 내용과 지식에 상관없이 치유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교회적인 관계와 활동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설명되어질 수 있다. 교회내에서도 서로간의 주기와 시기가 다르고, 서로의 생활상, 문화상의 특징들이 다르기 때문에 공감하며 참여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대에 대한 관심이, 공감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그들에게 맞지 않는 공감적 자세와 의사소통은 오히려 이들에게 부정적인 반응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3040세대 신혼가정에는 그들만의 특별한 군집성이 있고, 그들에게 필요한 시기적 특징과 문화적 특징이 발휘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각양각색의 다른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는 대상에 대해 정확한 공감을 가지고 적용하며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일 것이다. 물론, 개인주의로 점철된 문화 속의 3040세대에게 공동체적인 정확공감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이러한 일의 시도를 통해 개별적이고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

의 발돋움이 가능해질 것이고, 이를 통한 공동체적인 정확공감의 결과와 반응이 이루어질 것이다.

공감을 위해 인간중심적 접근과 태도가 필요하다.

공감<sup>93</sup>이라는 어휘의 의미와 같이 누군가의 마음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는 오랜 시기를 거쳐 논의되어 왔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그러한 많은 논의들 가운데 많은 심리학자들의 연구과정을 통해서 공감은 인간중심 접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제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sup>94</sup> 또한 상담사에게 많은 상담방법과 내담자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방법과 기제가 있고, 상담기법들이 있지만 여러가지 많은 방법들 중에서도 내담자 중심의 공감적 이해를 전달하는 것만큼 큰 효과와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은 없다는 사실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만큼 공감을 하느냐 마느냐, 공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는 상대방과의 연결, 서로 다른 객체의 연결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내담자 중심 즉, 인간중심적 접근과 태도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발휘 하느냐의 문제는 공감의 성패에 가장 우선적으로 주요한 영향을 행하게 될 것이다.

로저스는 인간의 본성에는 긍정적인 관점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신뢰한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내담자 자신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제가 있으며 이를 잘 이끌어 주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요 태도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먼저는 인간본성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과 신념을 가질 것을 요구하며, 무엇보다도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

<sup>93</sup> 그리스 말 *empathia*로부터 유래 되었으며 *empathia*의 *em*은 “in”, “into”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pathos*는 “고통”, “열정”을 의미하며, 이 둘을 합성하면 “안으로 들어가 고통을 함께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sup>94</sup> 김영란, *공감파 체험*, 27.

어떠한 부정적인 모습이나 불가능의 모습이 경험될지라도 무조건적인 긍정의 자세와 무조건적인 신뢰와 수용의 태도를 가질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담자가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중적 경청”과 “느낌의 반영”을 체계화 시켜 나아가기도 하였다.<sup>95</sup> 물론, 이러한 내담자의 반응에 집중적으로 경청하고 그 느낌을 반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근적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내담자의 전인적인 회복을 이루어 갈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인간중심적 접근에서의 공감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는 내담자에 대한 동일시와 내담자에 대한 존경을 넘어 내담자를 그 자체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신뢰하는 태도까지 포함하게 된다. 대부분은 그 존재론적인 자체를 수용하기까지 접근하기 어려워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거리와 역할을 구분하는 상담자의 자세는 내담자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공감적 접근의 불확실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담자가 상처를 받고 혼란스럽고 어려워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소외감과 두려움과 민감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때에는 자신의 불안을 채워주고 회복시켜줄 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이해와 지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전인적인 수용과 신뢰의 태도라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기제도 인간의 본성 안에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과 심리, 환경적 요소들을 채워주는 전인적인 수용과 신뢰의 태도야말로 공감이 공감되게 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접근과 태도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간중심 접근의 로저스의 공감은 내담자를 향한 태도와 자세

---

<sup>95</sup> Carl R. Rogers, *칼로저스의 사람 중심 상담*, 152.

의 원리에 그 근본이 세워져 있다. 그러나 로저스는 상담자의 태도에만 집중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 이와 함께 치료자의 반응에도 많은 시간과 연구를 할애 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내담자의 느낌을 정의하며 인지구조화하는 치료자의 활동을 명료화 (clarification), 반영(reflection), 느낌의 반영(reflection of feeling)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다.<sup>96</sup> 그러나 무엇보다도 로저스의 연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며 의미가 부여되었던 공감에 대한 중요성은 치료자의 반응이나 그러한 기술적 이론이 아닌 치료자의 태도라는 것이다.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과 동일시와 같은 치료자 즉, 상담자의 태도는 공감적 접근과 유용을 나타내는 결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끌어낸다.

교회 공동체나 교회 리더십 특장이나 세미나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교육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경청하는 자세나 그들을 향한 성경적인 긍휼을 위해 취해야 하는 태도나 자세를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한 훈련의 중요성을 모르는 이는 없다. 그러나 더 구체적이고 반복적이고, 본질적인 공감하는 태도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적용하는 목회적 전략이 지금과 같은 시대에 더욱 필요할 것이다. 다음세대가 중요할 수록, 세대차, 문화차에 대한 다양성이 많이 제시될 수록, 서로를 존중하며 공감하는 무조건적인 긍정의 자세가 교회공동체 안에 더욱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자세를 통한 목회적 대안의 연구와 개발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태도와 더불어 그 필요에 의해서 활동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공감 받고 있다는 신앙의 장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허울뿐인 태도로 여겨져 분명한 거리감과 연결되기 어려운 상황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기

---

<sup>96</sup> Ibid.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공감하는 자세나 태도와 함께 공감의 원리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공감적 자세와 태도를 갖추기 위한 공감의 원리가 필요하다.

인간중심 접근에서 내담자를 공감하기 위해 중요한 인식론적인 조건은 편견을 버리는 일이다. 내담자 그 자체로 존중하고, 수용하고, 경청하기 위해서 상담자의 경험, 생각, 판단 일체를 멈추고 버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상담자 또한 경청의 자세를 취하며, 얼마든지 자신의 살아왔던 경험과 지식과 편견에 의한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공익광고에서 방송하는 “대한민국 듣기평가”라는 제목의 광고영상을 보게 되었다. 그 영상에서 전하는 내용이 바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자아정체성이 확대되며 개인주의적 입장이 확대되어 가다 보니 간단하고도 사소한 이야기를 듣는 일에도 자신의 판단과 선입견의 잣대로 조율하려 하는 시대풍자적인 모습을 보았다. 경험이 많을수록, 지식이 많아질수록, 소통하는 정보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귀담아 듣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 ‘옳은 말도 많이 하면 잔소리다’ 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옳은 생각, 옳은 말일지라도 상대방에게 공감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원리가 바로 선입견, 편견을 버리는 일이다. 상담자 자신의 관점과 가치를 과감하게 버리는 일부터 공감의 단계를 시작할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것이다.

한편 김영란은 인간중심 접근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공감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를 말한다. 그 첫 번째는 내담자의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감정, 태도, 신념, 가치 기준을 체크하는 감수성에 대한 부분이며 두 번째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외적인 부분과 함께 내적인 부분까지 이해하고 공감하며 존중한다는 것을 알려

주는 전달과 소통에 대한 부분이다. 이것은 또한 과정과 경험적 공감의 두 가지 원리로 요약됨을 말한다. 그래서 첫째는 “공감적 조율의 원리(an empathic attunement principle)이며, 두 번째는 공감적 의사소통의 원리(an empathic communication principle)이다.”<sup>97</sup>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공감적인 이해를 소통하는 것은 내담자에게 결핍과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동시에 성장과 회복을 위한 중요한 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신분석적 접근에서도 동일하게 공감에서 의사소통적 기능과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정신분석적 치료에서는 이러한 의사소통적 공감이 정신치료의 가장 근원적이고 기초적인 원리이며 실제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원리에 입각하여 인간중심 접근에서 치료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두 가지 주요한 실제적 원리가 있다. 그 첫 번째는 치료자가 내담자의 현재의 상황과 진술 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고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게 여겨지는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과정 중에서 내담자의 성장과 회복가능성을 집중하며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내담자의 내적인 중심에 있는 회복탄력성, 회복의 자원에 얼마든지 초점을 맞추어 보면 그리고 이를 반영시켜줄 수만 있다면 내담자 중심의 성장과 회복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결론적으로 요약 정리해보면 첫 번째 원리는 무조건적인 수용과 지지 및 긍정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둘째 원리는 성장가능성을 보며 반영하면서 이를 통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원리를 적용함에 있어 상담자의 자세와 태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반응에서도 끝까지 공감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뿐만 아니라 중간과 이후의 상황적

---

<sup>97</sup> 김영란, *공감파 체험*, 33.

인 반응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가능성의 원리, 무조건적인 수용과 지지의 원리를 적용하며 실천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공감적 자세와 반응을 위해 어떻게 수용적인 의사소통을 할 것인지, 어떻게 지지적인 반응과 말투와 적용을 이루어 낼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멈추지 않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의사소통, 어떠한 차이에서도 어떠한 간극에서도 존중과 수용을 하는 자세와 모습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이는 지속적인 성장과 회복과 연대의 결과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공감의 원리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확신과 필요성을 계속 인지하면서 지속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공감에 대한 치료적 기능과 역할을 아는 것이다. 공감의 원리와 태도에 의하여 일어나는 공감을 통한 치료적 기능과 역할을 확인하고 인지하는 일은 공감적 자세와 적용을 실천하고 지속시키는 데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공감은 치유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공감은 내담자의 내적 결핍이나 상처 혹은 연결되기 어려운 관계나 상황적 현상들을 회복시키며 치유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먼저 많은 이들은 성장과정을 통해 많은 결핍과 상처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로 인한 단절과 거부반응 등은 다양하게 존재하거나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일은 상담의 과정이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및 적응의 과정과 단계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인간중심 접근에서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공감은 내담자에게 있어 외부 대상자 즉, 상담자나 치료자의 관계나 공감이 차단되는 경우에 있어서 내담자의 경험 과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시키거나 회복시키거나 확장시키는 일을 만들어낸다. 내담자 스스로 자기 공감의 상실



이나 결핍으로 인해 개방되지 않는 경험의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닫혀진 경험영역에 상담자로부터 충분한 신뢰와 수용, 존중과 적극적 지지의 공감을 받게 되면 이전까지 닫혀왔던 경험영역 즉, 내담자 스스로 피하고 연결 짓지 못했던 영역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며 자신의 느낌과 경험을 수용함으로써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경험 영역의 확장을 이루어 가게 된다. 이는 관계의 회복과 확장, 자기수용의 영역의 확대에 까지 이어지게 된다.

또한 공감은 내담자가 자신 스스로의 기억과 경험을 관계하는 방식을 긍정적 인 방향으로 학습하도록 돕는다.<sup>98</sup> 충분한 공감적 이해와 지지는 자신의 경험일지라도 안정된 심리적 환경과 변화를 통해서 이전의 기억들, 경험들, 느낌들을 다시 새롭게 해석하고, 기억하며, 느끼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어린시절 공감적 소통의 실패로 인해서 형성된 내담자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재조정 되도록 돕는 일은 이외의 많은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내담자의 의미 있는 관계들로부터 학습 되었어야 할 자기공감능력의 부재가 뒤늦게 학습되고, 경험되어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경험에 공감하는 일은 그 느낌, 그 경험 그대로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을 공감적으로 관계하는 형식으로 내재화 되게 된다.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소통 즉, 공감과정을 통해서 경험되는 결핍의 채움, 인정과 존중과 긍정의 경험 즉, 이미 경험하고 채워졌어야 할 사랑의 경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긍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생성 내지는 확장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내담자는 자기를 공감하는 방법을 의미 있는 타인 즉, 부모나 가족 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아닐지라도 내담자를 위한 상

---

<sup>98</sup> 김영란, *공감과 체험*, 35.

답자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과 경험으로 소유할 있게 된다.

더 나아가 공감은 내담자가 자신의 삶에서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거나 위기를 만날 때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익숙하지 않은 경험과 불편한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 순간들을 어떻게 직면해야 하는지, 어떻게 조율하며 상쇄시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들을 스스로 학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한다.<sup>99</sup> 이처럼 내담자 스스로가 직접 상황과 환경의 변화와 반응에 반응하면서 공감을 통하여 내담자의 내면에 스스로 지속적인 변화를 선택하며 많은 어려움의 경험들을 적응해 나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성장의 증거이기도 하다. 치료자 즉, 상담자로부터 공감을 통한 상담을 받아야만 했던 입장에서 이제는 스스로가 공감을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과 상황을 치유하며 변화 및 성장 시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불완전과 부정적 경험을 치료받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더욱 놀라운 효능이요 성장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감을 통해 받은 치유의 효능으로 스스로가 공감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치유하기에 이르게 되며, 순간순간의 연결에 대한 적용과 직면하는 방법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과 상황과 그리고 타인에 대한 새로운 통합을 얼마든지 이루어 갈수 있게 된다. 이는 일관된 통합, 일정하고 제한된 통합과는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자기공감은 사람과 사람간의 공감과 연결의 길을 열어가게 되며, 자신과 타인에게 공감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연결된 관계를 통해 또 다른 치유의 길을 열어가는 결과를 만들어 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간중심 접근에서의 공감을 사용한 연결, 통합의 궁극적인 효과, 성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sup>99</sup> Ibid., 36.

## 성서에서의 공감이해

성경에서는 공감에 대한 직접적인 어휘나 표현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감을 의미하는 비슷한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인해서 공감적 상황이나 관계에 대한 부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공감이 내담자를 향한 무조건적인 수용의 자세를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쩌면 공감이상의 공감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뛰어난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이다. 인간에 대한 구원의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경의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다. 공감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감은 다양한 표현으로 성경 속에서 제시되어지고 있다.

어휘적인 측면으로 성서에서 제시되는 하나님의 공감적 표현을 살펴보면 먼저 구약성서중의 제시되는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חֶסֶד)”를 예로 들 수 있다. 히브리어 “헤세드(חֶסֶד)”의 의미는 은혜, 긍휼, 자비, 동정, 견고함, 사랑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신약성서의 “엘레오스(ἐλεος)”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 또한 은혜, 자비, 평강, 동정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듯 어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무조건적인 수용의 자세, 무조건적인 베품의 자세, 사랑의 자세를 표현하는 공감적 어휘들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공감의 성품을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말씀의 표현으로, 문맥적으로, 상황적으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공감을 무수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몇몇 구절의 면면을 살펴보자면 먼저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 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라고 말씀하듯이 사람의 마음을 보시

고, 집중하시고, 아신다고 기록한다.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공감, 같이 알고, 같이 느끼고, 같이 이해하는 공감을 말한다. 또한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신다고 기록하는 장면이 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경청의 하나님이시며, 마음을 알아주고, 지지 하셔서 치유와 해결의 응답을 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공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사야 63장 7절에서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라고 말하며 무조건적인 자비, 은총, 긍휼과 사랑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레위기서를 비롯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객과 고아와 나그네를 향한 그들의 아픔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배려, 긍휼과 사랑에 대한 강조의 말씀들을 제시하고 있다.

신약성서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구약적인 인간을 향한 사랑과 공감의 표현이 훨씬 구체적으로 실천 적용되어 나타나는 구체화의 요체가 나타나는데, 바로 성육신의 공감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16절의 기록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제시되고 있듯이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심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온전한 하나님이면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야 말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극치의 공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빌립보서 2장 6절~7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기록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공감

의 극치로서 생각과 감정의 차원을 공감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행동과 환경의 실체로 까지 공감하시며 나타내신 사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육신의 과정이야말로 죄악으로 멸망 받을 수 밖에 없는 인간들의 존재론적 실재의 아픔을 공감하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성육신을 통한 표상과 십자가상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직접적인 공감의 적용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최대치가 바로 성육신의 과정이다.

또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공감은 인간의 연약하고 부정적이고, 죄악적인 부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또 다른 인간을 이와 동일하게 공감하며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의 공감은 인간을 치유하신다. 그리고 치유 받은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감에 힘입어 또 다른 인간을 공감할 수 있게 되며 치유와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게 된다. 헨리 나우웬의 말에 의하면 우리 인간이 겪는 상처나 고통은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한다. 상황이나 환경의 구조가 변경되지 않을지라도 예수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고통의 공감을 통해서 우리는 더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더이상 어렵거나 힘들지 않게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나우웬은 치유란 “우리 인간이 겪는 상처가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sup>100</sup>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과 먼저 연결되어 치유 받은 “상처 입은 치유자” 들이 또 다른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며, 기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얼마든지 발휘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또 다른 “상처

---

<sup>100</sup> Nouwen, Henri J. M,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피현희 역 (서울: 두란노, 1999), 25.

입은 치유자”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성경에서의 공감은 한 영혼의 공감으로 끝나지 않는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공감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결과가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으로 연결되었고, 또 수많은 죄인, 환자 등 하나님의 공감으로 인하여 변화 받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 그 이상의 공감의 열매들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의 연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인하여 그 빛을 발하게 되었다. 제자 한 명 한 명을 공감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어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다가가 치유와 회복의 열매들을 이어가게 하셨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 성서는 수많은 공감의 내용들로 가득 차있다. 왜냐하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의 내용들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이다. 이를 구약과 신약의 측면에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약에 나타난 공감이해

구약성경에서 공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구약성경의 내용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공감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은 구약성경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인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기를 원하시며,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또한 그들의 상황과 환경에 들어가 그들이 회복의 경험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수 많은 공감적 화동을 이루어 가셨음을 보게 된다. 구약성경 속 하나님은공감의 주체로서 활동하시며 모습을 나타내신다. 언제나 먼저 다가가시며,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공감하시며, 회복시켜 나아가는 흐름의 연속이다.

구약의 환경에서 억압, 착취, 인권, 차별 등 불평등과 삶의 파괴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삶의 현장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복’이라는 개념으로, ‘언약’이라는

과정으로, ‘율법’이라는 도구로 모든 상황들에 직접적으로 다가가시며 하나님의 전적인 활동을 통한 도움과 사랑을 말씀하시고, 선언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sup>101</sup>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방향성을 의미하며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감은 다른 이의 고통과, 어려움에 참여하고 반응하면서 변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참여적인 사랑, 관심, 개입은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발적인 참여이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이 그 본질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02</sup>

이처럼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은 “헤세드(חֶסֶד)”로서 표현된다. 하나님의 호의 차원이 아닌 인간을 향한 사랑의 본성에 대한 성실과 언약에 대한 사랑의 본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헤세드’는 언약의 수혜자인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이들을 향하여 무조건적인 마음과 정성을 베풀어 이들을 회복시키려 하는 자비로운 마음과 행동의 자세가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은 언제든지 언약을 맺는 인간의 편에서 언약을 통하여 인간의 나약한 삶의 영역에 개입하시고, 이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sup>103</sup>

하나님의 구약성경에서의 공감은 이러한 인간과 언약이라는 과정으로 연결하여 참여하시면서 세상과 인간과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참여하시기도 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성실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언약적 행위와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불평등, 억압,

<sup>101</sup> Walter Brueggemann, *구약신학*,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293.

<sup>102</sup> *Ibid.*, 296.

<sup>103</sup> Abraham Joshua Heschel, *예언자들*, 이현주 역 (서울: 삼인, 2004), 354.

착취 등 인간이 겪는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들에 일일이 반응하시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공감은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게 하며, 순간순간 참여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의 본질적인 자세에 대한 성실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연결시킨다.<sup>104</sup> 아울러 하나님의 공감은 하나님의 정념(pathos)로서 표현되기도 하며, 이는 인간의 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는 하나님의 영역이며, 이러한 일련의 관계된 반응에 대한 본능적인 참여와 반응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정서적인 움직임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며 이는 성실과 헌신, 사랑의 동기라고 말할 수 있으며 공감의 동기, 공감의 원인으로서는 역사하기도 한다.<sup>105</sup>

이러한 구약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대표적인 공감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는 구원의 행위에서 뚜렷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사건은 구약성경의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 되며, 이는 하나님의 긍휼(compassion)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공감으로부터 그 본질적 출발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된다. 출애굽기 3장 7절~8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과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며 참여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게 된다.

---

<sup>104</sup> Ibid., 355.

<sup>105</sup> Ibid., 36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sup>106</sup>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았다고 말씀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과 상황과 그 마음의 상태까지도 하나님은 공감하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경험하시며 그들의 아픔으로부터 건져내시고자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보고, 듣는 것까지는 공감 없이도 가능한 일이지만 그들의 아픔을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들을 지금의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내고자 한다는 결단과 행위적 계획의 구체적 적용은 하나님의 공감적 마음과 자세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공감은 ‘공휼(compassion)’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신명기 26장 5절~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공휼의 성품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구원계획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변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sup>107</sup>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러한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진행되었으며,

---

<sup>106</sup> 출애굽기 3:7-8.

<sup>107</sup> 신명기 26:5-9.

이러한 과정이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과 자세로부터 가능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설명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대 받는 상황과 모습, 애굽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러한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긍휼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살피사 이들의 삶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행해주셨노라고 기록한다. 이러한 패턴 즉, 고통이나 문제를 고백하고, 이를 듣고 함께 나누며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감과정은 구약성경의 크나큰 사건의 모습 즉, 구원의 역사에 대한 전형적인 패턴을 이루게 된다. 이후 이어지는 홍해와 광야의 사건, 크고 작은 대적들과의 대치상황, 음식물이 없어 목이 마르거나 배고픔에 고통받는 상황, 그리고 이후 정복전쟁의 상황에 들어가면서 전쟁을 해야 하는 그 모든 순간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 그들을 공감하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역사 차원에서의 공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또다른 타자로의 공감에까지 그 영역을 확대시켜 나아가게 된다. 그 중심에 한 획을 긋는 것이 바로 십계명 두 돌판 사건이다. 십계명은 애굽의 억압받던 노예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역사로 속박을 벗어난 자유의 백성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회복의 증거로서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의 증표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담아 놓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책임 있는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sup>108</sup> 사랑하는 관계, 공감하는 관계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확실한 책임 관계가 형성되게 되었으며 또한 이를 통한 타자와의 사랑에 대한 공감과 사랑의 확대까지 이루게 되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십계명에 기초한 이웃에 대한, 약자에 대한 말씀의 실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방인’, ‘외국인’ 으로서도 표현되며 십계명의 계명들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로까지 그 말씀과 사랑의 영역을 확장시켜 포함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과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로 자유의 백성들이 되었듯이, 이들 또한 ‘외국인’, ‘이방인’, 고아나 과부 등 약자에 대한 삶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공감적 자세로서 그들의 삶에 참여적으로 다가가 회복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공감적 관계를 실천하며 적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공감으로 인하여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억압에 고통 받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에게 공감적 자세로, 사랑으로, 긍휼로 다가가 하나님의 역할에 함께 동참하며 회복의 역사를 세워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십계명은 이러한 공감적 자세와 요청이 그대로 스며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본성이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공감적 자세와 정서적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삶과 환경을 인도해가는 것이다. 이렇듯 공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구체적인 돌봄을 뜻한다고

---

<sup>108</sup> Jeremy Rifkin, *공감의 시대*, 266.

아브라함 헤셀은 정의하기도 한다.<sup>109</sup>

구약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 공감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묘사되는데, 이는 바로 ‘예언자들’에 대한 내용이다.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서의 사람을 공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먼저 공감적으로 다가가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감과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인데, 주로 구약성서에서 나타나는 방식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어려움과 고통에 공감하기 위하여 예언자들을 부르시고, 대리자로서 사용하기도 하시며 또한 그들의 고통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는 이중적인 공감의 차원을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학계에서 최초로 공감론을 신학적으로 규명한 아브라함 헤셀에 의하면 하나님 공감의 이중에서 대해서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서로 상호 공감적으로 느끼는 공감적 방향성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뒤따라 느끼고, 공감하는 방향성이다. 즉, 하나님의 구약적 공감에는 하나님의 느낌을 인간이 함께 같은 느낌과 마음과 정서적 반응으로 느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먼저 느끼신 공감에 대하여 뒤따라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하여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여 그 느낌을 전해 받는 방향성을 말한다.<sup>110</sup> 이러한 공감의 방향성은 결국 하나님의 정념(pathos)가 없이는 하나님의 공감적 본질과 근성이 없이는 예언자도, 어떠한 특정한 회복된 인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감을 얻을 수 없으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공감적 반응과 자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특정한 인간, 예언자들은 하나님과의 정념(pathos)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일치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공감을 또다른 인간에게 적용하거나 이를 통한 하나님의 공감적 역량을 발휘해 내게 된다. 하나님의 정념(pathos)

<sup>109</sup> Abraham Joshua Heschel, *예언자들*, 355.

<sup>110</sup> *Ibid.*, 474.

즉, 공감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과, 한계와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정념(pathos)에 집중함으로써 인하여 얼마든지 회복의 경험을 얻을 수 있고, 이유의 반응과 결과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구약성경에서의 공감은 특정한 사람, 예언자들의 삶을 통해서 다가오셨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공감적 역사와 사건을 통해 다가오기도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뜻, 사건 등을 통해서 인간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본성과 정서적 반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으며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며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랑이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성경의 많은 사건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었다.

### 신약에 나타난 공감이해

신약에서 나타난 공감의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성육신에 대한 신학적, 역사적 논의와 연구는 많이 되어져 왔다. 그러나 합리적, 이성적 연구를 떠나 공감적 접근에서의 성육신에 대한 이해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성육신이야 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공감하신 공감의 최대의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신약성경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구조를 보아도 성육신만큼의 공감적 사건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만큼 성육신이라는 과정은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고, 기대할 수 없었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공감의 결과물이리라.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악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사건을 말하다. 한편 이러한 성육신의 사건은 구약성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여 기록하였기 때문

에 신약성서에 국한된 공감의 측면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어쩌면 신약성서를 중심으로 한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공감적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으로 표현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sup>111</sup>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시고, 인간과 관계를 형성하시고, 인간의 상황과 여건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느끼시면서 그들의 고통의 한 가운데에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지탱해 나아가시는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 사람의 조건화를 이루어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적인 수용 이상의 무조건적인 일치를 이루어 주신 존중과 공감의 극치를 보여주신 역대적인 사건인 것이다. 뿐만아니라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을 넘어 죄인 된 인간이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죽음의 경험까지도 직접 경험하시며 인류의 모든 전인격과 전역사적 경험을 이루어 내신 것이다. 아울러 바울서신의 빌립보서 2장 6~8절의 말씀은 성육신을 자기 비움의 과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sup>112</sup>

<sup>111</sup> 요한복음 1:1; 14-15.

<sup>112</sup> 빌립보서 2: 6-8.

김균진은 성육신 사건을 인간과 세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의 사건으로 표현한다.<sup>113</sup> 그리고 십자가는 죄와 심판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을 위해 담당하신 하나님의 자기계시라고 표현한다.<sup>114</sup> 이러한 자기비움, 하나님의 자기를 낮추심의 사건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공감적 자세와 역할을 극대화 시켜준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셨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신 인간의 고통과 삶의 환경과 여정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이러한 복잡다단한 과정을 취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성과 본체는 그대로이시나 인간을 공감하시고, 그들에게 들어오시기 위하여 스스로가 제한적인 과정을 취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비움의 성육신적 모습과 자세는 사역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적용 실천되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성육신적인 공감의 모습과 자세는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육신을 통해 나타난 공감적 자세와 모습의 적용과 실천 편이라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은 객, 고아, 과부, 외국인, 고통과 압제에 시달리는 자들, 질병에 걸린 자, 귀신들린 자, 그 모든 자들을 수용하시고,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친히 그들의 필요에 맞추어 소통해 주시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들의 근원적인 죄와 질병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영위에 대한 방향성까지도 제시해 주시며 사역의 현장을 이루어 가셨다. 당시 예수님 당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교육을 잘 받은 바리새인과 종교지도자들이 거부하며 수용하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 수용하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모습을

---

<sup>113</sup>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II* (서울: 연세대출판부, 1987), 173.

<sup>114</sup> *Ibid.*, 183.

신약성경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현장은 긍휼과 자비와 수용적인 자세의 연속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 사역의 공감적 본질을 근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9장 35-36절의 말씀이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sup>115</sup>

예수님은 많은 사역의 현장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보이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한다. 당대의 많은 종교지도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당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러한 감정적 공감을 이루었다는 표현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는 무리들을 향한 감정적 공감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들의 상황을 보시고,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는 표현을 사용 하였듯이 그들의 정서적 반응까지도 함께 느끼고 공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원천은 이러한 공감적 자세와 정서적 동일시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알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동일하게 아파하고, 경험한다는 차원의 정서적 동일시의 공감적 자세이다. 예수님은 이처럼 성육신을 통한 하나님의 공감을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실천하고 적용하는 모습을 보이셨다.

성육신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두드러진 성품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공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무리들 즉, 이 땅에서의 인간들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 그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

<sup>115</sup> 마태복음 9:35-36.



정서적 작용을 이해하고 느끼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들의 영, 혼, 육의 차원으로 함께 경험하고, 함께 느끼며 전인적인 공감작용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과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 속으로 들어와서 전인적인 차원에서 인간을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사건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고 관계 맺기 위하여 그들의 고통에 직접참여하면서 이를 위해 스스로를 향한 제한성과 낮추심을 발휘하여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구원의 역사, 자비와 사랑을 구현해내는 전인적인 인격적인 역사의 사건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 죽음과 고통으로부터 부활과 승리의 삶으로 새롭게 세워진 복음의 사건은 또 다른 고통 당하는 이 땅의 많은 죄인과 무리들에게, 누구에게든지 공감적으로 반응될 수 있으며,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표징이요 가능성으로 제시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약자, 또 다른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수용하고 공감하는 반응의 차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사건이 어느 누구에게서든지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적인 통로, 복음을 전해주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이 땅에서 불평등, 억압, 착취, 파괴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이들의 고통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진 것이다.

이러한 성육신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공감은 사람들의 중심을 죄악과 상처와 고통의 상태에서부터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구원역사로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확대되어 나아가게 한다. 이러한 성육신의 과정은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고 회복시키는 공감사역이며, 또한 회복된 이들을 통하여 또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제자로서 함께 역할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공감적 자세를

취하여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역할하게 한다. 이를 김균진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는 창조이며 해방이며 계약이자 사권이 있는 공감 사역이라고 표현한다.<sup>116</sup> 물론, 예수님의 성육신의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공감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을지라도 개인마다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개인적 한계와 은사의 범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공감적 자세와 사역을 이행하는 데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의 공감적 자세와 자기 비움, 낮추심의 요소들은 현대에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영혼들을 마주하려 할 때 바라보아야 할 성경적 공감의 모델이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사역의 공감모델이 될 것이다.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여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감적 모델로 삼아 공감하는 사역자, 공감하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sup>116</sup> Jurgen Moltmann, *삼위일체와 하나님 나라*, 김균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40.

## 제 IV 장

### 공감이론을 적용한 3040세대 공감목회

#### : 치유하는교회 10교구를 중심으로

#### 사회적 공감

##### 결혼공감: 신혼부부학교

3040세대 신혼가정들에게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온 것은 결혼 이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해 나아가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전의 열심과 상황과 환경으로는 새롭게 변화된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의 신앙생활을 적응해 나아가는 것이 스스로는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의 고백은 이해 될만한 환경적 요소를 반영한다. 교회내 공동체에서는 이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모델로 삼을 만한 선두주자가 없이 세대간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 결혼 후 물어볼 믿음의 선배, 자신의 현장과 환경을 공감적으로 지지하고 인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개인주의 문화에 의하여 서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강요하지 않는 문화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요인도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혼 후 세세한 부분까지도 보고, 듣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앞으로 이들의 신앙의 발걸음에 도움을 얻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들의 결혼 후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멘토로 삼아준다 하여도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개인적인 해석에 치중하게 된다면, 이 또한 건설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혼 후 많은 신혼가정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본보기가 없고,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자신들의 자율성에 의해서 침체되거나 갈등함에 지쳐 도태되거나, 혹은 결혼 후 필요한 사회적 정보에만 의존하여 신앙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 사회적 정보 중심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혼 후 신앙생활의 적용과 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의 삶에 들어가고, 이들의 신앙에 들어가 공감하며 치유와 회복 성장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공감을 이를 신앙적 도구를 준비하며 적용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시기와 가족생활 주기에 맞춰진 신혼부부학교이다. 전체적인 커리큘럼과 주제는 다음과 같다.

<표2> 신혼부부학교 커리큘럼

분	일	내용	장소
주	일	인정이 필요한 남자 · 안정이 필요한 여자	양선홀
주		부부중심원칙 - 부부십계명	양선홀
주	일	호칭 · 말투	양선홀
주		배우자의 성장배경	양선홀
주	일	관심과 간섭 사이 - 용서배우기	양선홀
주	일	친밀감 - 3가지	양선홀
주		부부의 재정관리	양선홀
주	일	수료식	삐아띠(레스토랑)
주	일	영적공동체① - 소그룹 모임	양선홀
주	일	영적공동체② - 소그룹 모임	양선홀

결혼 후 이들이 장년세대와 바로 연결되기 힘든 시기적 어려움들을 감안하여

신혼부부학교와 소그룹<sup>117</sup>을 연계하는 커리큘럼 일정으로 준비하게 되었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목장에 연령이나 상황을 맞추고, 관계나 지역의 같은 연대감을 확인하여 소그룹을 연결시켜주어도 소그룹내에서 정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기존의 목장에서 서로를 알고, 경험해왔던 기존의 문턱을 새롭게 결혼하여 들어가는 가정이 넘어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며, 기존의 목장은 어느 정도 임신과 육아와 출산에 대한 단계와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제 막 결혼한 신혼가정들과도 나눌 수 있는 공감대가 많이 차이가 나다보니, 서로가 노력해야 겨우 적응하여 하나의 목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신혼부부학교를 진행하고자 했던 취지는 이들이 교회공동체 내에 조금 더 잘 정착하고 적응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일차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이를 위한 방편으로 소그룹으로의 연계를 주차 과정으로 편성하게 되었다. 신혼부부학교의 주차 내용들을 함께 듣고 서로 논의하며 묻고, 답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서로의 가정에 대해 더 친밀히, 그리고 자세히 알아가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룹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최대한 이들의 모임과 강의와 나눔이 지루하지 않도록, 서로에게 공감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의 내용들을 준비하였으며, 이를 통한 소그룹 형성과 교회공동체 내 정착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 시도하였다. 이러한 방편의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진행과정들을 진행해 나아갈 수 있었다.

---

<sup>117</sup> 치유하는교회의 소그룹은 가장 작은 단위의 셀을 목장이라 칭하며 이러한 목장이 연합하여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며 이러한 마을이 또 모여 교구를 형성하게 된다. 치유하는교회 3040세대 신혼가정은 신혼부부학교를 통해서 새로운 목장을 형성하며 서로의 유대감을 향상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lt;표3&gt; 신혼부부학교 Q-SHEET

시간	소요	구분	내용	담당	비고
13:30~ 13:50	20'	준비 및 세팅	노트북, 마이크, 음향 프로젝터 연결	김성무	프로젝터 화면 에 웰컴이미지 띄워 놓기 (포스터)
			<블루투스 스피커 세팅> -미리 음악을 틀어놓는 다.	김성무	핸드폰으로 스 피커를 연결하 여, 사운드를 자유롭게 조율 하도록 준비: 강의시는 잔잔 하게, 나눔 할 때는 조금 크 게 사운드 조 율(CCM 가사 없는 피아노버 전)
			<데코 및 테이블세팅> - 바인더(제공) - 테이블 모듬을 만들 - 아름답게 장식 - 출석부 및 1주차 프린트물 세팅 - 이름표 세팅 (크게보여야함)	섬김이 1	-테이블 보 및 장신구(캔들) 등 꾸며졌다는 분위기가 연출 될수 있도록 -매주 제공되 는 프린트물을 보관할 바인더 와 볼펜 등은 선물로 제공. 바인더에 예쁜 글씨로 라벨로 이름까지 미리 붙여줌. 개인 당 1개씩
			<간식준비> 인원수에 맞게 테이블에 준비	섬김이 2	매주 간식이 제공되어야 함. 인원에 맞 게 테이블에 세팅. EX) 과 일, 닭강정, 샌 드위치, 음료, 물, 커피 등등 매주 가능한 1

					가지씩 준비
13:50~ 14:00	10'	웰컴	<p>&lt;배너 환영&gt; -입구 섬김이1,2환영 -안쪽 목회자 환영</p> <p>&lt;BGM 크게&gt; -밝고 따뜻한 음악</p>	목회자 섬김이 1,2	<p>-입구에서 배너와 함께 환영한다. (섬김이1,2: 가능하면 엄마같은 권사님을 섭외)</p> <p>-환영시에는 BGM을 크게 틀어 놓는 것이 좋다. 익숙한 팝송도 좋다.</p>
14:00~ 14:10	10'	O.T	<p>&lt;섬김이 소개: BGM 작게&gt;</p> <p>&lt;대표기도: 목회자&gt;</p> <p>&lt;O.T: 취지설명, 출석강조&gt;</p>	목회자 섬김이 1,2	인사-기도-취지설명-프로그램진행일정안내-회비안내-개인별소개(이름, 나이, 결혼연차, 애칭, 배우자장점3가지)
	60'	강의&나눔	<p>강의(영상)-나눔-</p> <p>강의(영상)-나눔-</p>	모둠별	남,여 모둠을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남자의 입장에서, 여자의 입장에서 나누게 하는 것이 필요)
		광고	다음주에 만나요~		bgm크게 밝고 신나는 분위기

<그림3> 신혼부부학교 홍보 포스터(봄 시즌)

2 0 1 9 신 혼 부 부 학 교

결혼♡만들기

**신혼부부학교**

일시  
**2019년 9월 22일(주일)**  
 매주일 오후 2:00 (10주) 시작

장소  
**양선홀(4층)**

회비  
**커플 2만원**  
 무단 결석 없을시 수료하는 날 전액 돌려 드립니다

신청 및 문의  
 김성무 부목사 010-3527-9144

선착순 10커플 마감합니다




LOVE



<그림4> 신혼부부학교 홍보 포스터(가을 시즌)



# 신혼부부학교

일시

**9월30일(주일) 시작**  
매주일 오후 2:00-3:30 (10주)

장소

**양선홀(4층)**

회비

**커플 2만원**

무단 결석 없을시 수료하는  
날 전액 돌려드립니다


신청 및 문의

김성무 부목사 010-3527-9144

선착순 10커플 마감합니다

<그림5> 신혼부부학교 홍보 포스터(코로나 시즌)


둘이 하나 되는  
특별한 시간




# 어서와~ 신혼부부학교는 처음이지?

**2020 신혼부부학교 개강**

대	상	결혼 5년차 이하 부부는 <b>모두가능!</b>
일	시	5월30일(토) 오후 4시 4주간 진행
장	소	양선홀 (4층)
회	비	커플당 2만원 <small>무단 결석 없을시 수료하는 날 전액 돌려드립니다</small>
신청 및 문의		김성무 부목사 010-3527-9144



 화곡동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치유하는교회  


신혼부부학교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홍보에 관한 부분이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 프로그램과 강의 내용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능한 할 수 있는 홍보전략을 최대한 동원하여 준비하게 되었다. 먼저는 신혼부부학교 대상자들에게 공감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색상과 디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눈에 띄는 가독성 있는 색상과 계절감, 그리고 상황적인 접근도를 연결할 수 있는 방향성 있는 멘트를 적용하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교회내 벽보에 붙일 종이로 된 홍보포스터 전단과 함께 주보와 위임목사님의 광고시간의 독려를 요하는 광고멘트와 함께 SNS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SNS전용 이미지까지 동시에 준비하며 전방위적으로 홍보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학교에 대한 경험이 없고, 이에 대한 중요성, 피드백을 알지 못하는 많은 가정들은 일정과 진행사항에 대한 질문만 많이 할뿐 정작 신청하는 가정들은 없었다. 그래서 주변에 결혼 후 아직 신혼부부학교를 참여해보지 못한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직접 연락하며 상담하며 참석자로 독려하여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청년의 시기와 달리 가장 중요한 기도제목인 결혼에 대한 기도제목이 사라져 교회내 공동체성에 대한 절대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 최대한 지루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 내에 집중할 수 있는 방편들을 준비해야 했다. 그래서 잠깐의 틈도 느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음악적 요소를 사용하게 되었다. 처음 신혼부부학교를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편안함과 따뜻함,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카페에서 흘러나올 만한 배경음악을 틀어 놓고, 실내 인테리어와 데코를 준비해 놓았다. 또한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거창한 웰컴 인사는 생략하며, 간단하게 필요한 안내 위주로 웰컴의 과정을 준비하게 되었다. 진행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섬김을 받는 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간식과 강의와 나눔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은 섬김이와 헬퍼를 통해 공급하며, 정리 및 마무리도 섬김이들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시간의 일정을 담당하게 하였다. 환영과 인사와 강의와 나눔, 그리고 마무리하는 그 모든 사이시간에도 잠깐의 어색한 틈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배경음악을 들려주어 처음 만나 함께 나누는 대상들에 대한 어색한 분위기를 최소화 하였다. 이를 통해 첫 시간을 통하여 서로의 기본적인 어색함을 누그러뜨리며 남은 주차 동안 함께 진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 &lt;그림6&gt; 신혼부부학교 첫 번째 강의안(학습자용)

2019. 09. 22

## 결혼만들기 ①

O.T



강의

부부 = (     ) 와 (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 하시니”(마19:4-6)

① ★내 ((     ))에게 중요한 것은?

---



---

② 남자들은 ‘(     )이 중요하고, 여자들은 ‘(     )’이 중요하다  
= (     )이 필요한 남편 + (     )을 원하는 아내

적용(1주일동안)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광고



<그림7> 신혼부부학교 두 번째 강의안(학습자용)

2019. 9. 29.

# 결혼만들기 ②

**Review. 내여자 내남자**

“부부” = ( ) 와 ( )

- ① ( )이 필요한 남편 ( )을 원하는 아내
- ② 남자들은 ‘ ( )’이 중요하고, 여자들은 ‘ ( )’이 중요하다.
- ③ 내 (( ))에게 중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좋은 부부가 되는 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남편을 인정하고 아내의 안정감을 도와주기 시작하면 즉시 행복한 부부가 된다. 다른 가정, 다른 부부와 비교하지 말고 내남자가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여자가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자. ‘인정’과 ‘안정’이 남자와 여자가 원하는 전부는 아니지만 친밀한 부부가 되는 좋은 출발점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자. 서로 요구하면 힘들고 먼저 배려하면 쉽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원리를 따라가면 그분이 도와주신다. 갓블레슈~♥ (마태복음19:4-6)

**적용(나눔)**

Q) 지난 주일에 내준 과제를 하면서 느낀 점은? 못했다면... 각오 한마디^^

**강의**

**생각해보기**

**'Antonio Stradivari 1704'**

어느 추운 겨울 날 런던의 한 악기상에 남은 바이올린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인을 보더니 가지고 있던 악기를 사달라고 하면서 통사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이 바이올린을 사주세요. 무엇이든지 사먹어야 하니 얼마라도 주세요." **값어치가 없는 악기로 생각한 주인은 그에게 적선을 한다고 생각하고 바이올린을 단돈 5달러에 샀습니다.**

그런데 불을 켜고 먼지로 뒤 덮인 바이올린을 살펴본 그는 이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악기에는 다름이 아니라 **'Antonio Stradivari 1704'**이라는 기절할만한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사라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으려 했던 **거장 스트라디바리의 바이올린이었던 것입니다.** 값으로는 도저히 따질 수 없는 대단한 가치를 지닌 물건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가 대가로 받았던 돈 5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급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귀한 것의 가치를 모르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순간의 어려움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가치 없는 대상처럼 상대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히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이러한 절박함 때문에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인생에 실패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절박한 환경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절박한 환경은 누구든지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한 번만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후회할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항상 필요합니다. 배우자에게 무례하게 반응하기 전에, 실수하기 전에, 불필요한 말을 하기전에, 배우자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켜나갈 장치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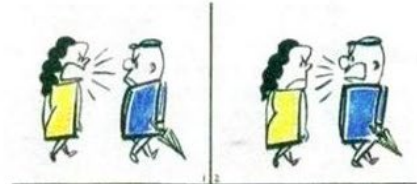
## &lt;그림8&gt; 신혼부부학교 두 번째 강의안 나눔 자료1 (학습자용)

**사랑 만들기**

다음은 가정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기본 질문들입니다. 당신의 가정 건강지수는 얼마나 되는지 진단해 보십시오. 숫자 1은 '전혀 아니다'에 해당되고, 숫자 5는 '매우 그렇다'에 해당됩니다.

- ① 우리 부부는 같은 삶의 목표와 비전을 추구하고 있다.

(1, 2, 3, 4, 5)



- ② 나는 매일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고 드린다.

(1, 2, 3, 4, 5)



- ③ 우리 부부는 평소 충분한 대화시간을 갖고 있다.

(1, 2, 3, 4, 5)

- ④ 부부간에 갈등이 생겨도 그로 인한 후유증은 생기지 않는다.

(1, 2, 3, 4, 5)

- ⑤ 평소 배우자와 나누는 육체적 사랑에도 만족한다.

(1, 2, 3, 4, 5)

- ⑥ 배우자의 지인, 친구, 직장 동료들의 이름을 웬만큼 알고 있다.

(1, 2, 3, 4, 5)

- ⑦ 가계 수입과 지출을 규모 있게 관리하고 있다.

(1, 2, 3, 4, 5)

- ⑧ 양가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거나 아니면 안부 전화를 드린다.

(1, 2, 3, 4, 5)

- ⑨ 신앙생활에 관련한 갈등이 없다.(배우자나, 양가 가정)

(1, 2, 3, 4, 5)

- ⑩ 우리 부부는 평소 다른 가정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2, 3, 4, 5)



★ 각 문항마다 표시한 점수를 합산해 보십시오. ( )점

## &lt;그림9&gt; 신혼부부학교 두 번째 강의안 나눔 자료2 (학습자용)

**마음에 새기기**

'행복한 부부생활을 위한 10계명'이 있습니다.

함께 읽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 ①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말라.
- ②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외에는 고향을 지르지 말라.
- ③ 눈이 있어도 흠은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말라.
- ④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 ⑤ 아픈 곳을 꺾지 말라.
- ⑥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말라.
- ⑦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
- ⑧ 결코 단념하지 말라.
- ⑨ 숨기지 말라.
- ⑩ 본래의 중매자를 따돌리지 말라.





<그림10> 신혼부부학교 세 번째 강의안 (학습자용)

2019. 10. 6.

# 결혼만들기 ③

## Review ①. **내여자 내남자** “부부” = ( ) 와 ( )

- ① ( )이 필요한 남편 ( )을 원하는 아내
- ② 남자들은 ‘( )’이 중요하고, 여자들은 ‘( )’이 중요하다.
- ③ 내 (( ))에게 중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 Review ②. **부부중심원칙 (부부십계명)** **낡은 바이올린의 가치 ‘Antonio Stradivari 1704’**



세계적 거장의 바이올린일지라도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없다면, 푼돈의 가격으로 팔릴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그 가치를 확인하지 않고 무시하며 지나가려할 때가 많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그 과정을 넘어갈 때에, 우리는 정작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정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배우자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치를 확인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부부사이의 조율된 원칙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봅시다~♡

>> 소중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 )이 필요하다. 가정을 가정답게,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룩한 ( ).  
 ex) 친구도 아닌, 부모도 아닌 부부가 대화하며 세워야 합니다. 디테일이 중요~^^ 부부의 일은 부부끼리..♡

**Q) 부부원칙 10가지, 서로에게 조율된 부부중심원칙을 한번 나누어 보세요.**

**강의**

**생각해보기**

### 어느 부부이야기

어떤 부부가 한 부부에게 저녁식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쌍의 부부는 맛있는 음식을 함께 즐기고 나서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초대받은 아내가 집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남편을 흘깃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턱으로 시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몸짓을 모른 채합니다. 남자들은 사업, 정치 문제에 관한 토론을 열중하여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아내는 헛기침을 하기도 하고 짜증스럽게 발톱으로 거실 바닥을 두드리기도 하며, 남편을 쏘아보았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남편은 집에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에스코트하기 위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손을 뿌리치고 급히 차에 타 버립니다. 남편은 아내가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내처럼 남편도 차에 올라타서 문을 “꽂” 하고 닫고는 거칠게 시동을 걸더니 마치 비상출동이라도 하듯 거칠게 운전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입을 다문 채, 차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Q)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누가 잘못된 것일까요?**

- 남편의 입장에서..
- 아내의 입장에서..



<그림11> 신혼부부학교 세 번째 강의안 나눔자료(학습자용)

## 사랑 만들기

부부사이의 대화에도 존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친밀감과 배우자가 필요로 하는 친밀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친밀감의 정도에 따라 함부로 말하거나 무시하는 어투 혹은 부정적인 어투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차원의 대화를 넘어서서 깊은 영역까지도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부의 대화는 부부관계의 친밀감의 정도를 보여 줍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부부의 대화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 1. 우리 부부의 대화는 몇 등급입니까?

- ① 5등급 : 상투적인 대화  
(대답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대화로 "밥 목자", "날씨 좋다" "가자" 등 의례적인 단계)
- ② 4등급 : 다른 사람에 관한 대화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내 생각은 빠져 있는 단계)
- ③ 3등급 : 나의 생각과 판단을 포함한 대화  
(신뢰가 형성된 관계로 자기 노출을 시작하는 참다운 대화가 시작되는 단계)
- ④ 2등급 : 자신의 기분과 감정까지 포함하는 대화  
(단순한 의견만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계, I-메시지 사용가능 구간)
- ⑤ 1등급 : 완전히 감정을 나누며 인간적으로 신뢰와 존중감이 느껴지는 대화  
(열린 마음과 정직함을 기초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대화, 존중할 어투가 늘 가능한 단계)

### 2. 우리 부부의 성숙한 대화를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면?(해당 되는 모든 것에 O표 하십시오)

- ① 가치관 (     )
- ② 서로의 문화 (     )
- ③ 비판의식 (     )
- ④ 침묵 & 끊임없는 수다 (     )
- ⑤ 인생 배경(상처, 감정의 응어리, 어려웠던 환경 등) (     )
- ⑥ 신뢰 상실 (     )
- ⑦ 감정의 폭발 (     )
- ⑧ 바쁜 생활 (     )
- ⑨ 육체의 피로 & 연약함 (     )
- ⑩ 스트레스(개인, 직장, 가정 등 외부적 스트레스 상황이나 요인) (     )

### 3. 평소에 배우자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부정적인 언어는 무엇입니까?

(Ex: "됐어", "그만해", "잘났어", "왜?" "몰라", "뭘?", "야!" "하지마(설명생략)" "안돼(설명생략)" 등)

### 4. 내가 어떤 말을 해 주어야 배우자가 좋아하겠습니까?

## 말씀에서는

(야고보서 1:19-20을 읽어 봅시다)

"19.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림 12> 신혼부부학교 네 번째 강의안(학습자용)

2019. 10. 13

# 결혼만들기 4

**review ③+α** 부대화는 ( )이 중요하다.

- ① ( )은(는) 배우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척도이다.
- ② 배우자에 대한 ( )이 무너지면, 사랑의 경계선도 무너진다.
- ③ 배우자에 대한 ( )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력의 한계가 온다.
- \* 하나님을 ( )할 줄 아는 자만이 배우자를 (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review ③+α** I - 메시지(나 진술법)

- ① 부부사이에 ( )것이 많을수록 힘들어진다.
- ② 서로에게 ( )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 ③ 대부분은 ( )에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대화가 아닌 충동적 비언어를 사용할 때가 많다.
- ④ 보이지 않는 언어도 언어이다.
- ⑤ '나는 ---- 이/가 ---- 이렇게 (말)할 때 ---- 마음이 들어'

**과제나눔**

**생각해보기**

간재만

아름: 당신, 내가 당신을 떠나면 어떻게 할 거야?  
남편: 그런 거 필요도 무어야.  
아름: 나 사랑해?  
남편: 당연하잖. 죽을 때까지.  
아름: 당신 혹시 바람 칠 거야?  
남편: 뭐 도대체 그 먼 건 왜 묻는 거야?  
아름: 나 매일 매일 키스해줄 거야?  
남편: 당연하잖. 자기도 그러고 싶은걸.  
아름: 당신 나 때릴 거야?  
남편: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아름: 나 당신 믿어도 돼?  
남편: 응.  
아름: 여보~.

“여보! 몸이 너무 안좋은 거 같아요 안아픈 곳이 없이 다 아파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내가 아팠을 때다. 목이 붓고 열이 나는 걸보니 감기에 걸린 것 같으며 힘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진지하게 나름대로의 처방법을 들려주었다. “그래? 그럴 때는 십자가를 묵상해.” 아내는 한동안 말없이 나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말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십자가가 싫어질 것 같네.”

어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부도 원가족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혼자 살았다. 낮에는 시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학에 다니며 청소년기를 보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혼자 해결해야 했다. 몸이 아프면 무조건 참았다. 어려운 일을 건디는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처음 교회에 나가서 십자가를 알게 되었을 때부터 나는 십자가가 좋았다.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이 좋았다.

나는 그분의 참을성을 무척 존경했다. 그러나 아내의 성장 배경은 나와 달랐다. 서로 돌봐주고 챙겨주는 따뜻한 가정에서 자랐다. 누가 아프면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관심과 사랑을 쏟고 정성껏 간호해주었다. 가까이 사는 가족은 찾아 오고 먼 곳에 있는 가족도 몇 번이나 전화해서 안부를 묻곤 했다. 신혼 초에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라서 아내가 내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정말 몰랐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내 말은 최선이었다.

**당신의 '따뜻한말 한마디'**

말귀는 칭어도 재촉으로 들리니 때로는 기분적이지 않고, 그렇고 그런 부부용 해한(해한)가도.

**Q) 무엇이 문제일까요?**

- 1. 남편은 남편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봅시다.
- 2. 아내는 아내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봅시다.

## &lt;그림 13&gt; 신혼부부학교 네 번째 강의안 나눔자료1 (학습자용)

## 사랑 만들기

## 1. 좀더 구체적인 대화유형 체크하기

각 문항에 '예'라고 답할 경우 1점을, '아니오'라고 답할 경우 0점을 부여하세요.

점수 합계를 냈을 때 3점 이하라면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01 배우자와 대화할 때 나의 말하는 유형은?	예	아니오
나는 말을 차분히 잘하는 편이다.		
나는 내 감정을 잘 표현하는 편이다.		
배우자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말을 내뱉지 않는다.		
말하기 전에 생각해보고 이야기한다.		
바라는 것에 대해 잘 표현한다.		

02 나의 듣는 유형은?	예	아니오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들은 다음 대답하는 편이다.		
배우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듣는 편이다.		
배우자의 말을 들을 때 상대방 감정까지 이해하는 편이다.		
들으면서 배우자의 속사정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		
배우자가 이야기를 충분히 하도록 격려한다.		
정확하게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의 말을 요약한다.		

03 나의 갈등 해결 방법은?	예	아니오
의견 충돌이 생기면 상대방 입장을 파악하려고 하는 편이다.		
문제를 의논하기 위한 시간과 장소를 미리 제안한다.		
의견 충돌이나 문제에 대해 대화로 해결하려고 한다.		
배우자가 나의 결정에 따르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배우자와 의견이 대립해 싸움이 되더라도 일부러 저주지 않는다.		
문제에 대해 의논하다가 해결이 안된 채 중단하는 경우는 없다.		

MEMO

<그림 14> 신혼부부학교 네 번째 강의안 나눔자료(2) (학습자용)

## 2. '대화법 가이드' 기억하기

나와 배우자의 대화 유형을 체크해보았나요? 평소 자각하지 못했던 '화법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제 '대화법 가이드'를 참고해 봅시다.

### ① '나 메시지'를 활용할 것

부부는 배우자의 행동과 말을 관찰하는 입장이어서 모든 대화를 '당신은'으로 시작하기 쉬운데 이는 자신이 비난, 공격, 참견 당한다고 생각하기 쉬운 화법이다. 이때 주체를 '나'로 놓고 말하면 상대는 당신의 생각, 감정, 원하는 것들을 무시하거나 오해하지 않게 된다. 단 이 화법을 구사하려면 일단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고상한 척하느라 말을 빙빙 돌리거나 감정을 속이면 상대에게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역효과만 부른다.

예) 당신 요즘 집안일을 하나도 도와주지 않네. (X)

내가 아까 당신한테 쓰레기를 버려 달라고 했는데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니 내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 섭섭해. (O)

### ② 상대방의 감정을 축소하지 말 것

어떤 사건 때문에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이를 위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거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상대의 감정을 함부로 무시해버리면 배우자는 더 큰 상실감을 맛보게 될 터. 결국 당신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을 키우게 된다.

예) 당신은 그까짓 걸 가지고 밤새 잠을 설치고 그래. 제발 신경 좀 꺼라. 나까지 잠 못 잤잖아. (X)

당신이 잠을 못 잘 정도로 신경을 쓰는 거 보니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나 봐. 오늘은 편하게 잘 수 있으면 좋겠다. (O)

### ③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 것

제멋대로 결론을 내린 뒤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함부로 배우자의 생각, 동기, 목적을 판단해 '내가 다 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인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상대는 결국 대화를 포기해버린다.

예) 대체 어떤 여자를 만나고 다니길래 이렇게 늦게 와? 내가 싫으면 싫다고 말로 하지. 꼭 그렇게 해야겠어? (X)

여보 요즘 자주 늦게 오는데 무슨 일 있어? 내가 좀 불안하네. (O)

### ④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것

선물을 주고 포옹하는 행동은 친밀감이나 애정 등의 감정을, 반대로 고함을 지르거나 문을 광 닫는 등의 행동은 미움, 속상함, 분노 등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비언어적 표현은 느낌의 이유와 배경 설명이 없어서 상대방에게 매우 불분명하게 전달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자.

### ⑤ 정기적인 부부대화의 시간을 정해야 한다.

'밥 줘' '불 꺼' '자자' 빼고 도무지 할 얘기가 없다고? 대화에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일단 어색하더라도 대화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해보자. 아무리 바빠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테이블에 마주 앉는 습관을 들이는 식으로 말이다. 10분도 좋고 20분도 좋다. 떨감이 있어야 불꽃이 지속되듯 이야기거리를 찾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같은 책을 읽고 같은 드라마를 보고 생각을 교환하거나 종교 활동, 취미 생활을 함께하는 정도면 적당하다. 잠시 컴퓨터, 스마트폰을 멈출 것. 이런 식으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이야기꽃이 피어날 것이다.

<그림 15> 신혼부부학교 다섯 번째 강의안1 (학습자용)

2019. 4. 7

## 결혼만들기 ⑤

**review ④ 배우자의 ( )을 알아.**

① 나와 배우자의 ( )을 알아.  
ex) 아팠을 때의 처방 법, 말투의 의미, 의견일치가 안 되는 대화에서의 반응

② 나와 배우자의 ( )을 알아.  
ex) 양말, 수건, TV 등

③ ( )로 갈등이 생길 때  
(i) 우선 ( )를 멈춘다. (ii) 배우자를 ( )생각을 버린다.  
(iii) ( )이 생긴 이유를 부드럽게 묻고 배우자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

④ 각자의 ( )가 무엇인지 알아.

**과제나눔**

**생각해보기-1 관심과 간섭 사이**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힘써 노력해야 하는 일이 많다. 서로 이해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다.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신혼부부학교를 통해 성경적인 부부생활을 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나의 가벼운 말 한 마디에 마음이 깨져버리는 아내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우리 부부에게 갈등과 위기의 원인이 되는 작은 여우들이 있다. 그것은 서로에게 간섭하는 말이다. 관심과 조언이라고 생각해서 말하지만, 결국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황이 된다.

아내를 다이아몬드 꽃병처럼 소중히 여기고 작은 여우들을 분별력 있게 철저히 잡아내야 가정이 아름답게 지켜진다는 생각에 간섭하는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삼각형의 밑면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꼭짓점에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기본이며,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인 것도 알았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공동체인 가정을 세워가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부부와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영혼,몸이 건강하고 행복(거룩)하기를 소원한다.

- 홍00(결혼 23년차) -

**Q) 배우자가 어떤 말을 할 때에 간섭받다고 생각하는가?**  
**Q) 배우자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잔소리처럼 느껴지는가?**

**생각해보기-2**

어떤 사람이 독사에 물렸다. 그는 '이 독사가 감히 나를 물다니...' 하면서 독사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갔다. 그 결과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분을 풀다가 독이 퍼진다. 분을 풀다가 회복의 기회를 놓친다. 독사에게 물리면 빠르게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그것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는 시간에 독이 자신의 온몸으로 퍼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죽지 않으려면 독사를 죽이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복수를 버리고 자신을 먼저 치료해야 한다.

-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

<그림16> 신혼부부학교 다섯 번째 강의안2 (학습자용)

### 사랑 만들기

#### “용서” 배우기



**Q) 상처는 내가 받았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하나요?**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이 ( )이기 때문이다.  
 품고 있는 칼 때문에 ( )가 아프기 때문이다.  
 칼을 빼내야 ( )가 가능하다.  
 마음의 칼을 빼내는 것은 ( )로 가능하다.  
 ( )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막11:45)

#### Q) 용서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하죠?

- ① 용서할 힘이 ( ) 없음을 ( )해야 한다.
- ② ( )께 내 감정을 다스려 달라고 ( )해야 한다.
- ③ ( )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요20:22,23)



#### Q) 용서는 어떻게 하나요?

용서한다고 ( )말고  
 ( ) 용서를 선포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18:18)

#### Q) 언제까지 용서해야 하나요?

용서가 ( )까지...

“그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마 18:21,22)



#### Q) 용서하면 좋아질까요?

( )이 아닌 ( )가 된다.  
 ( )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 )이 일하신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마18:18,19)

<그림17> 신혼부부학교 여섯 번째 강의안1 (학습자용)

2019. 4. 21

## 결혼만들기 ⑥

**Review ⑤** 나를 살리고 가정을 세우는 ( ) 배우기

① 관심과 간섭 사이 - ( )하는 말 멈추기  
 (i) I - 메시지로도 마음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  
 (ii) 풀리지 않는 감정(짜증, 정떨어짐 등)은 쌓인다.  
 (iii) 그때는 ( )라는 치료제를 주입해야 한다.

ex) '이 독사가 감히 나를 물다나...' - 죽지 않으려면, 독사를 쫓아가서 잡아 죽이는 일을 포기해야 한다.

② ( ) 배우기  
 ♡용서할 ( )이 내게 없음을 ( )해야 한다. ♡( )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  
 ♥용서한다고 ( )말고 ( ) 용서를 선포하라.

**과제나눔**

**생각해보기-1** **친밀감**

결혼하고 20년 동안 '부부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다. 이 단어조차 듣지 못했다. 가족의 시간에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했다. 사역으로 바빠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고 선교단체 간사로서 참석하는 예배가 많아서 집에 오면 쉬려고 했다.

그러다가 2013년부터 부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 이후 맞이한 변화와 열매는 놀라웠다.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영적 친밀감을 경험했다. 교회의 공예배, 선교단체의 예배, 아이들과 함께 드린 가정 예배 등 많은 예배가 있었지만, 부부 예배는 우리에게 영적 충만함을 주었다.


우리 부부의 삶과 사역은 '부부 예배'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구분된다. 만약 결혼 초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부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것이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전7:3-5)"

**Q) 글을 읽고 생각한 것을 나누어 봅시다.**

"평강의 하나님은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spirit)과 혼(mind)과 몸(body)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살전5:23)

- > 영, 혼, 몸은 서로 다른 방과 같다.
- > 각방을 여는 열쇠도 다르다.
- > 영, 혼, 몸의 모든 영역에서 친밀해야 한다.





<그림 18> 신혼부부학교 여섯 번째 강의안2 (학습자용)

## 사랑 만들기

Q) 영적으로 친밀한 부부가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보자.

- 부부에게 시간과 방법 정하기
- 언제 배우자와 손잡고 기도하고 싶은지 나눠보라.

Q) 정서적으로 친밀한 부부가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보자.

- 현재 배우자의 정서적 필요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는 한 가지 일을 정하자.

Q) 부부의 친밀한 성생활을 위해 함께 공부할 책을 선정하고, 공부하라.

- 부부의 결혼 연차나 형편에 맞는 부부관계횡수를 의논해보라.
- 부부의 건강한 성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없는가?
- 부부관계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대화, 임신기간과 생리기간에  
대해 의논하라.
- 출산 직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라.
- 부부가 부부관계를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어떤 방법을 찾을지 생각해 보라.

<그림19> 신혼부부학교 일곱 번째 강의안1 (학습자용)

2019. 5. 5

# 결혼만들기 7

review ⑥ **친밀감**

① 영(spirit)적 친밀감 - 가정예배(큐리에배:주중1회이상), 잠자기 전 손잡고 기도해주기(매일)

② 혼(mind)적 친밀감 - 상대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게 되는 환경이나 조건. 영화, 드라마, 맛집 등

③ 육(body)적 친밀감 - 부부 안에서의 스킨십, 퇴근후 말없이 6초이상 안아주기(매일), 각방 절대금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전7:2-6)

**과제나눔**

생각해보기 **우리 부부의 재정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카드고릴라와 함께하는 대학생 설문조사  
사회생활의 시작을 함께 할 나의 첫 신용카드!  
가장 원하는 카드 혜택 분야는?  
(총 1,023명 참여)

Q1) 부부의 재정은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각자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Q2) 나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는가?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났는가?

Q3) 우리 가정의 재정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장·단점은?

### <크리스천의 재정관리>

- ① 한도
- ② 12why 기법

<그림20> 신혼부부학교 일곱 번째 강의안2 (학습자용)



**청지기**

**서론**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주님과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의 역할, 우리의 역할**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부채** 부채는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

**조언** 지혜로운 사람은 조언을 구한다

**정직**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이다

**드리기** 드리는 것이 복이다

**일** 주께 하듯 열심히 일하라

**투자** 꾸준히 저축하라

**관점** 현명하게 소비하라

**영생**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

**시대 불변의 경제 원칙 7가지**

1.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라. (시24:1)
2. 문서화된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세우라(잠언 16:9)
3. 소득보다 적게 소비하라(잠13:11)
4. 부채 사용을 피하라 (잠22:7)
5. 소비지향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피하라 (딤후전6, 빌 4장)
6. 영원한 편점을 가지라 (시편24)
7. 관대함의 기쁨을 가지라 (고후 8-9장)의 원칙을 알고 성경으로 돌아가면 재정적 평안함을 갖게 된다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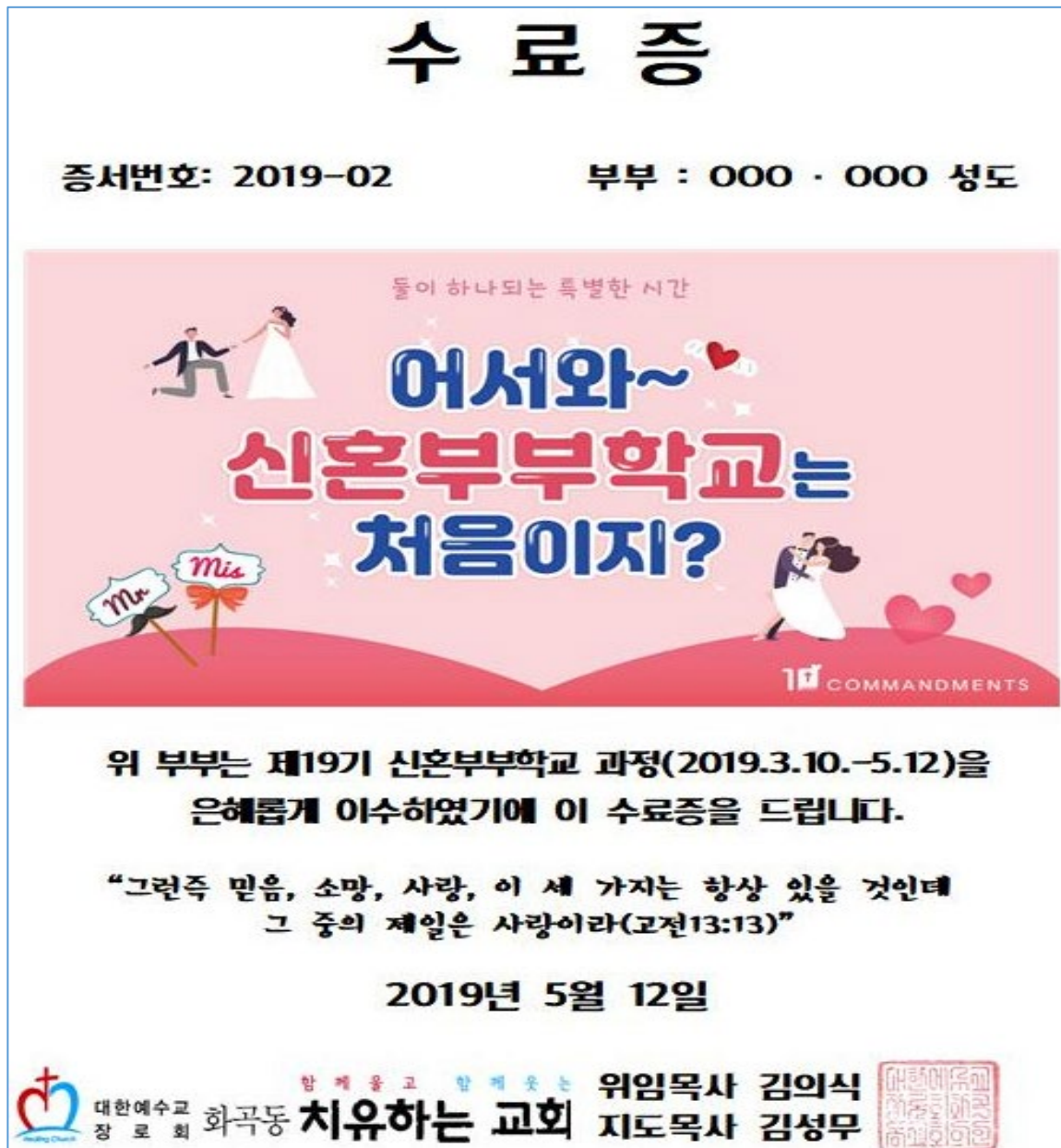


신혼부부학교 강의 내용은 전체 7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는 더 많은 내용으로 구성하려 하였으나 여러 번의 시행 착오 끝에 7주 이상의 긴 기간 동안 참여하게 하는 일이 신혼가정들에게 부담이 되고 무리가 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렇다고 3주나 4주로 짧게 하는 경우에는 서로 간의 유대감이 형성될만한 충분한 시간적 경험이 부족하다 판단되어 필요한 내용만을 전하기 위한 기간으로 7주의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총 6번의 신혼부부학교를 진행해오면서 가장 참여도와 반응이 좋았던 기간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결석률을 최소화하며 서로가 서로를 신혼가정이 겪어내는 공통의 관심사를 나눔으로 인하여 친밀해지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적인 내용은 앞에서 다루었던 3040세대 신혼가정들의 사회적 특징을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살펴보았듯이, 2,3단계를 지나면서 알아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루게 되었다. 물론, 이 모든 내용은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이 가능하도록 준비 및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한 신앙으로의 연결점도 바라보게 되었다. 또한 믿음이 약한 배우자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기에 최대한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로서 신앙적인 관점보다도 일반론적인, 사회학적인 관점을 더 많이 설명하고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들을 통하여 신앙이 전혀 없던 배우자가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가정들의 성향과 관계된 내용들을 주로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남자와 여자의 입장에서 서로 연대하며 그룹을 나누어 그룹 나눔과 토의를 이끌어가면서 각 가정의 남성끼리, 여성끼리 더 많은 애착과 연대가 형성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교회내 신앙 프로그램이나 신혼부부학교 프로그램으로의 결과만이 아닌, 결혼 후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는 형,

동생, 언니, 동생의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게 되어서 신앙적인 차원의 관계와 나눔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일반적인 관계와 소통까지도 함께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형성된 공동체적 연대는 이후 목장을 형성시키고, 교구와 교회로의 정착과 적응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림21> 신혼부부학교 수료증



## &lt;그림22&gt; 신혼부부학교 수료 감사카드

TO. 하나님께 사랑 황00♥김00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황00·김00 가정을 축복합니다^^ 길고도 짧은 신혼부부학교를 은혜롭게 참여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00 형제와 00지매가 함께해 주어서 저에게는 더욱 은혜넘치는 순간들이었어요. 결혼 전과 후의 삶의 자리가 많이 다른만큼,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두사람을 위해 저도 함께 기도 많이 할게요~ 이후로는 이전보다 더 자신을 표현해주시고, 상대의 마음(감정)을 읽어주시고, 들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영적공동체 없이는 언제나 한계가 있기에 새롭게 만나게 될 목장안에서 더욱 풍성한 은혜로 나누어주시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축복으로 가득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갓붙이입니다♥

2019.5.12. 김성부 목사 드림

또한 7주의 과정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서로의 유대감이나 공동체성이 어느 정도 향상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들의 그동안의 참여 과정을 존중하며 칭찬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의미 있게 준비하며 새로운 영적공동체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동안 성경적 관점과 사회학적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던 내용을 듣고 나누고 적용하면서 변화된 내용들을 간증문의 형식으로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들로, 참여적인 관계들로 만들어가는 준비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동기부여 시키며 앞으로의 연대를 위해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들로 삼아 나아가게 된다. 이를 통해, 적응하기 힘들고, 정착하기 어려운 교회공동체로의 적응이 신혼부부학교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림23> 영적공동체 목장모임을 위한 가이드라인

# 목장모임



**Q1) 해야 하는 이유는?**

목장모임은 영적모임입니다^^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가 큰모임이라면, 목장모임은 소그룹으로 모이는 작은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장모임도 하나의 예배라고 할 수 있지요^^ 은혜받은 부분을 나눌 때에, 내 입술로 고백해 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 집니다. 예배시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지난 한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 보며 고백하고 나누는 일은 중요합니다. 이처럼 서로의 삶을 내어놓고 고백할 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이유가 확인이 되고 확실해 집니다.

“교회”는 건물의 개념보다는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성도의 모임이 활성화되고, 성장할 때에 우리는 세상적인 어려움에 끌려다니기 보다는 주를 향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영적 자존감, 믿음).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모임의 현상이 은혜가 넘칠 때도 있고, 지루할 때도 있습니다. 모이고 싶을 때가 있고, 모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공동체(영적가족)안에서만 할수 있는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와 내용을 위해서 서로의 필요한 부분들을 수시로 소통하면서 목장모임의 방향성을 만들어 가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히10:25)**

- ① 영적상태확인 & 영적회복(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마24:42)
- ② 영적분별 & 성장(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마7:7)
- ③ 비전(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잠3:6)

**Q2) 모임을 진행하는 방법?**

- ① 기도(목자가 시작기도)
- ② 은혜나눔(한주간의 삶에서 주셨던 은혜 or 예배중 주셨던 은혜)
- ③ 적용나눔(주보에 나온 나눔 주제 중 외닿는 1가지) ※ ②번과 접철 수 있습니다.
- ④ 기도제목 나눔(3가지씩)
- ⑤ 기도(마무리 기도: 기도제목을 나눈 후 형식은 다양하게 선택하여 기도할수 있음)

**\*마무리 기도 형식/ i)통성기도+대표기도로 마무리, ii)별폐기도+대표기도, iii)한마디씩기도+대표기도**  
**\*은혜나눔 이후 자연스럽게 한주간 적용 할 수 있는 결단사항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리더의 역할?**

- ① 기도+주중연락(1시간 기도하려다 안하는 것 보다 1분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
- ② 말씀준비(설교나 성경공부를 준비하는게 아닙니다. 말씀요약본 챙기기/2부예배후 비치됨)
- ③ 사회자 역할(목원 한명씩 이름부르며 나눌 수 있도록 순서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 ④ 경청,공감,격려(할수 있는 1cm를 해주시면 됩니다.) 칭찬과 지지가 목장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 ⑤ 임무분담(목원 한명 한명에 대한 임무를 서로가 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임무분담 예/ i)말씀요약본 챙기기 ii)서기(기도제목 적고 카톡에 올리기) iii)악보 및 찬양담당 iv)간식 준비 담당 등 \*사소한 일이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임무 하나씩을 담당해 주면 좋습니다★**

---

=> 남·여 목장나눔 구분(격주나 한달주기로..)  
=> 매주 목장보고 부락드립니다.(출석 및 성경읽은 장수 및 기도제목 + 특이사항)  
=> 특이사항(임신,출산,시골방문,해외여행,입원,장례,전도,신앙적질문,요청 및 문의사항 등)

신혼부부학교의 전체적인 일정이 끝나고 난 후 한주 정도 휴식기를 가진 후

에 지속적인 돌봄과 나눔을 이어가기 위하여 담당목사가 직접 목장모임에 대한 실체를 2주이상 인도하며 이들이 목장모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끼리의 목장을 잘 준비해 갈수 있도록 돕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목자와 부목자 즉, 공동체의 리더를 선출하게 되며, 신혼가정의 특성상 한 가정이 오랜 기간 리더의 자리를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동안 서로의 역할을 나누어 맡으며, 돌아가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소그룹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책임 분산형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목자로서의 부담을 줄이고, 목장의 구성원 모두가 서로 상호 참여적으로 목장의 모임과 상황을 확인하며 이끌어가는 구조로 신혼가정들에게 적합한 목장의 형태를 이루어 가게 되었다. 또한 부부가 함께 목장의 구성원으로 들어오는 만큼, 서로에 대한 이야기가 같은 곳에서 나누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들끼리의 모임으로 구분하여 부부끼리 오해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3040세대 신혼가정들의 교회내 공동체로의 정착과 성장과 주도적 역할과 돌봄이 확대 되어지며 지속성 있는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이끌어 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신혼부부학교 긍정적 평가에 대한 간증문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 신혼부부학교 4기 A 집사님의 간증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지 결혼하고부터 있는데 처음 신혼부부를 하다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가며 다 끝까지 수료하지 못했었다. 그러다 이번 새해 들어와서 심방을 오신 목사님과 권사님 추천에 다시 신혼부부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솔직히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다. ‘전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빠져야겠다. 아이까지 있으니 전 보다 더 핑계 댈거리가 많겠지’ 란 생각이었다. 그런데



교구 권사님이 되신 시어머님께 미리 아이를 부탁 드린다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긴 했지만 1주차, 2주차될수록 아이가 있다고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게 아니었다. 시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시지 못하시면 아이를 데리고 수업에 참여를 했고 다행히도 아이도 평소보단 얌전하게 있어주어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신혼부부학교를 시작하기 전엔 오랜 기간의 연애기간을 보낸 우리 부부사이가 문제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점점 수업에 참여하다 보니 한 두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다. 심지어 장난식으로 벨는 말 또한 상대방에겐 상처가 되고 부부사이에 서운함이 쌓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잘못했던 점이 무슨 일이 생기면 배우자 탓을 하던 내 생각과 마음가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마다 내주시는 과제를 하면서 안하면 안할 수도 있는데 나 또한 남편과의 사이가 지금보다 많이 좋아지길 바랬던지라 속쓰러우면서도 목사님이 시키신거니 빼먹지 말고 하자란 생각으로 빼먹지 않고 과제를 했었다. 그런데 처음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나와 남편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서로 조금씩 상대방을 배려해주려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8주라는 시간 안에 이렇게 변했다는 것에 신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면 이렇게 바뀌는 것이 가능할까란 생각이 들기도 했다. 매 주마다 간식준비며 프린트물 준비해주시는 목사님과 권사님께 감사드리며 아이와 함께 수업을 듣는다는 것이 집중이 잘 안될 텐데 그래도 빠짐없이 수업에 함께해준 남편께 감사하며 아이를 볼 때 마다 웃어주고 예뻐해 준 신혼부부학교 동기 분들께도 이 자리를 통해 감사함을 전해드리고 싶다. 앞으로 부부간의 사이가 더 좋아지려면 지금보다 더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생각해줘야 하지만 신혼부부학교에서 배운 것만 해도 안 좋아질 일은 없을 것 같다. 유익하고 좋은 수업을 간식까지 먹으며 들을 수 있어서 8주는 너무 짧은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혼부부학교를 시작으로 앞으로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아기학교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육아를 참여해주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글을 마친다.

### 신혼부부학교 5기 B집사님의 간증문

신혼부부학교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하기 보다는 모든 것이 처음인 우리부부가 알아야 할 필요한 것들을 배우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로부터 아내와 아내 가족이 섬기는 치유하는교회로 최근에 옮기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혼부부학교를 해야 하는 것이 심적으로 부담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신앙의 모토이자 삶의 좌우명인 “모든 것을 나의 든든한 뻗은 주 하나님께 맡기자” 라는 마음으로 신혼부부학교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의 부담은 어느덧 한 주 한주 흘러 많은 것들을 알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으로 연결이 되었고, 제가 이런 간증문을 쓰는 것조차도 마음이 뿌듯해지고 제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을 만큼 풍성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번 신혼부부학교를 하면서 배웠던 것 중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것은, 모든 것이 처음이고 낯선 우리부부일지라도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면서 맞춰가다 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하시는 가정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를 인정하면 서부터 저에게는 서로를 향한 긍정적이면서도 놀라운 변화들이 경험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고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남자는 “인정”, 여자는 “안정” 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속 깊이 깨닫는 가르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슴 속에서 리마인드 하고 되 뇌이며 신혼부부학교 기간 내내 아내가 안정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

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제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아내보다 일찍 퇴근해서 아내가 오면 따뜻한 식사를 챙겨주었고,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든 환경에 안정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너무 놀랍게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영적으로도 훨씬 더 친밀하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이러한 가르침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 가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순리대로 풀어져간다는 사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신혼부부학교를 끝마치는 시점에서 좋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김의식 목사님, 그리고 신혼부부학교를 재미있고 알차게 구성하고 연구하시고 애써주신 김성무 목사님, 뒤에서 매주 간식을 챙겨주시느라 고생하신 권사님, 집사님께 이 간증문을 통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번 신혼부부학교를 시작하게 권해주시고, 매주일 성가대 간식을 챙겨주시며 마음속으로 응원해주신 나의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이신 장인어른, 장모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신혼부부학교를 같이 함께 해주고 신혼부부학교에서 배운 것을 옆에서 잘 실천하게 해준 사랑하는 나의 아내 김00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My life! My wife! 이렇게 감사할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비해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앞으로도 늘 서로를 배려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예쁜 부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정공감: 가정예배

3040세대 신혼가정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에 대한 부분이다. 청년의 시기에는 책임질 사람이 없어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이 무리가 없었지만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자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신혼가정들에게는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결혼가정들은 사회 초연생으로서 경제적 활동이 왕성히 이루어지는 시기이기에 항상 바쁘고, 피곤한 상태로 주일에 온다. 아울러 자녀가 생기고 어린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들 같으면, 기침이나 감기에 걸리기라도 하면, 체온이 조금이라도 오르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지도 못한 채 집에서 가정예배로 대신하여 드려야만 한다. 또, 아무런 제약 없이 주일에 나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허락 되었을지라도,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공식적인 예배당 안에서가 아닌 아이와 함께 드려야 하는 자모실에서 예배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본 연구자는 출산한 부모들에게,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먼저 자모실 예배에 대한 안내와 주의 사항을 항상 주지시키곤 한다. 아이들 뛰어다니고, 우는 소리 때문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울 것이며, 마음을 강하게 먹고 집중하여 귀 기울이면서 예배가 예배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렇다. 3040세대 신혼가정들이 결혼 후 출산하여 예배를 할 때에는 그렇지 않은 다른 세대의 사람에 비하여 훨씬 많은 집중과 노력이 있어야만 예배다운 예배를 조금이나마 따라서 드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어려운 사회적 특징으로 인하여 매주일 교회에 나오지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의 이유식을 주면서 아이를 돌보다가 돌아

가는 가정, 아이가 울어서 아이를 달래다가 돌아가는 가정, 아이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지쳐서 기분이 상하여 돌아가는 가정 등 주일에 교회에 마음먹고 나왔다가 예배에 대한 마음만 잃어버린 채 돌아가야 하는 일이 한 두 번의 일이 아닌 것이다. 이 부분을 위해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가정예배에 대한 적용과 실천을 생각해 내게 되었다.

가정예배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3040세대에게 가능한 가정예배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기 어려운 세대에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은 또다른 짐을 지워주는 일과 같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3040세대와 비슷한 연령대의 비슷한 자녀환경의 가족구성을 이루고 있기에, 집에서부터 예배가 예배되기 위한 가정예배를 실천하며 어떻게 하면 3040세대 예배가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가능한 예배의 형식과 품을 만들어가게 되었다.


가정예배에 대한 좋은 책들과 자료와 유명한 세미나는 많이 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삶의 분주한 현장가운데에서 치열하게 몸부림 치느라 예배준비 할 자세 갖추기도 힘든 3040세대에게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3040세대 가정예배의 가장 중요한 첫번째 가치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지 쉽게, 바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었다. 두번째 원칙은 길지 않고, 짧게 진행되면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느낌이 남을 수 있는 예배 형식이었다. 세번째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예배의 형식이었다. 이러한 예배의 형식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천해 보면서 다음과 같은 형식의 품을 완성하게 되었으며, 이를 3040세대 신혼가정들이 모여 있는 10교구에서 가정예배 세미나를 통해 방향성과 중요성과 방법에 대한 내용을 강조 및 주지시키면서 매주 화요일 SNS를 통하여 동일한

10교구만의 가정예배 순서지를 통해서 진행해 오고 있다. 위에서 아래로 소리 내어 읽기만 해도 예배가 되는 10교구만의 예배를 통해 많은 가정들이 예배에 참여하며 주일 자모실에서 드리지 못한 예배를, 주일 상황적 어려움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 예배를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대신하여 채워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가정예배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그리도 드리는데 실패한 부분에 대한 보충, 보완으로서의 예배요 신앙의 훈련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는 취지이다. 이는 3040세대 신혼가정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예배이며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교회 성전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다음세대에 대한 예배훈련까지도 확대되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lt;그림24&gt; 10교구 가정예배 가이드라인

# 가정 만들기

##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라!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가?!  
가정이 신앙의 안식처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오늘부터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여 생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하라!" - 마틴 로이드 존스 -

1주일에 1번 매주 화요일, 10교구가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

**Q) 왜 가정예배를 해야 하나요?**

가정의 형태는 다양화 되었으나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경험하고 채워져야 할 부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알아서 채워가는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함께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문화가 발전할수록 이러한 부분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영혼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가 가정에서 예배하며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회복하며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Q) 가정예배 최소인원은?**

2명 이상이면 충분합니다♥(예: 부부2명, 엄마와 자녀, 아빠와 자녀)

**Q) 가정예배 방법은?**

가정예배 순서지의 순서대로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시작기도 ① 찬양 1곡(순서지에 나온대로, 모르는 곡은 찬양곡 틀어놓거나 낭독)  
② 말씀읽기(한목소리로 함께 읽는 것이 좋습니다) ③ 기도제목 3가지 나누기(경청)  
④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해주기(축복기도하는 마음으로) ⑤ 주기도문

**Q) 주의사항은?**

예배답지 않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기도제목을 나누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집중이 잘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예배드리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읽고·기도하고·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릴 채우십니다.

**Q) 가장 중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서로를 위해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해줄 때 회복은 시작됩니다.

## &lt;그림25&gt; 10교구 가정예배 예시(1)

2020 6-4  
FAMILY  
WORSHIP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라!**

10+  
COMMANDMENTS

“하나님, 우리 가정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① 찬양하기 “믿음이 없이는”(CCM, 히즈윌)**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않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 유튜브 및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찬양을 들으시며 고백하시거나 가사를 읽고 고백하는 것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② 말씀읽기 “마가복음 5:25-34” (1절씩 돌아가며 읽습니다)**

25.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26.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27.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려라 29.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0.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1.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32.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 33.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니 34.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x2) 아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③ 기도제목 나눔하기 - “개인별 3가지씩(교회,나라,가정,개인 등)”**

**④ 축복 기도하기 - “손을 잡고 번갈아가며 축복기도 해주세요”(중요★)**

**⑤ 주기도문**

★ 예배 후 서로 한 번씩 안아 주세요(사랑과 위로의 멘트 한마디씩 해주세요) ★


10+  
COMMANDMENTS



## &lt;그림26&gt; 10교구 가정예배 예시(2)

2020 12-2  
**FAMILY  
WORSHIP**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① 찬양하기 “곧 오소서 임마누엘”(찬송가 104장)**

- ①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 ② 곧 오소서 지혜--의주 온 만물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 하--소서
- ③ 곧 오소서 소망--의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후렴)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 유튜브 및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찬양을 들으시며 고백하시거나 가사를 읽고 고백하는 것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② 말씀읽기 “신명기 30:11-20” (1절씩 돌아가며 읽습니다)**

11.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13.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14.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5.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16.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7.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19.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가정되어 주의 긍휼과 은혜로 어려운 시기를 감당케 하소서”**

**③ 기도제목 나눔하기 - “개인별 3가지씩(교회,나라,가정,개인 등)”**

**④ 축복 기도하기 - “손을 잡고 번갈아가며 축복기도 해주세요”(중요★)**

**⑤ 주기도문 ★ 예배 후 서로 한 번씩 안아 주세요(사랑과 위로의 멘트 한마디씩 해주세요) ★**

## &lt;그림27&gt; 10교구 가정예배 예시(3)

2021-4-1

**가정예배**

**FAMILY WORSHIP**

**읽고! 기도하고! 고백하라!**

Super TEN

“하나님, 우리 가정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① 찬양하기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가 322장)**

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가리세 온전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②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③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유튜브 및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찬양을 들으시며 고백하시거나 가사를 읽고 고백하는 것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② 말씀읽기 “로마서 13:1-14” (1절씩 돌아가며 읽습니다)**

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3.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5.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6.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8.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1.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1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주님,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가정, 교회, 나라되게 하소서”**

**③ 기도제목 나눔하기 - “개인별 3가지씩(교회·나라·가정·개인 등)”**

**④ 축복 기도하기 - “손을 잡고 번갈아가며 축복기도 해주세요”(중요★)**

**⑤ 주기도문 ★ 예배 후 서로 한 번씩 안아 주세요(사랑과 위로의 멘트 한마디씩 해주세요) ★**

## 10교구 가정예배에 대한 인터뷰 피드백

A집사: 카카오톡 이미지 한장으로 보내주니까 어느 상황에서든지 가족끼리 예배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

B집사: 위에서 아래로 예배가 드러질 수 있도록 순서대로 필요한 내용을 흐름대로 적혀 있어서 따라서 예배하기가 좋아요

C집사: 평소에 가족들끼리 손잡을 일, 기도해줄 일도 없는데 이제는 가족들끼리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손잡고 축복기도 하는 일이 익숙해져서 좋아요. 평소에 나누지 못했던 말들도 기도제목 말하면 하게 되니 좋은것 같아요.

D집사: 아직 아기가 없는데, 저희 부부 두명에서 예배하는 가정이라는 사실에 뿌듯하고, 감사하게 되는것 같아요. 둘이서 예배하는게 아직은 민망하고 잘 안되지만, 그대로 읽기만 해도 예배가 될수 있어서 생각보다 쉽게 예배할수 있어서 좋아요.

E집사: 저희는 육아로 제대로 된 예배 드리기도 힘든데, 아이 재우고 부부끼리 신앙중심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매주 화요일 오후 ‘읽고, 찬양하고, 고백하라’ 라는 구호를 외치며 10교구 가정 예배 순서지를 카카오톡 전체 리더창을 통해 전달하게 된다. 물론, 모든 가정이 예배드리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정해진 시간, 다른 말씀과 찬양과 계절과 상황에 맞는 순서지의 이미지를 통해 가정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계속 노출되게 하며, 또한 가정예배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전체 리더들과 나누면서 가정예배에 드릴 마음을 얻지 못하거나 부정적이었던 신혼가정들까지도 함께 예배에 더 동참하게 되는 긍정적 효과를 얻게 되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

는 성도들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비대면 예배라는 형식의 미디어를 통한 예배시청방식이 일반화 된 상황이지만, 예배를 보는 차원이 강한 비대면 예배보다 예배를 드리는 차원의 강조점이 부각되는 가정예배를 통하여 신혼가정들의 예배에 대한 회복과 채움과 신앙의 성장이 어려운 사회적 특징을 넘어서 은혜를 고백하는 예배세대로의 가능성을 기대해본다.

#### **영적공감: 치유프로그램(치유동산, 부부행복동산,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3040세대 신혼가정들의 시기는 미래를 향해 부지런히 준비하며 나아가는 시기이다보니 바쁘고 치열한 삶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적인 요소들, 영적인 요소들을 우선순위에서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다. 자신에게 필요한 내적인 채움이나 회복을 생각할 겨를 없이 삶의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해야만 하는 시기적 특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영적고갈 상태 및 영적회의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영적회복 할 수 있는 삶의 위치와 연관된 3040세대 신혼가정시기의 영적 맞춤 프로그램들을 보완하여 진행하고 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속 마음챙기기 어렵고, 제대로 된 예배도 드리기가 어려운 환경속에서 직장에서 치이며 가정에서 육아로 치이는 어려움이 삶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앙의 방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교회적 차원의 돌봄과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정들로 그들의 영적 공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과거의 상처와 압박과 속박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유와 회복의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표4> 치유동산 커리큘럼<sup>118</sup>

첫째 날(월) 고백의 날		둘째 날(화) 치유의 날		셋째 날(수) 과송의 날	
		6:00	섬김이 기상	6:00	섬김의 기상
		6:30	해바라기 기상	6:30	해바라기 기상
		7:00	This is the day 퍼레이드/예배 <목상1>	7:00	예배/마나니따 <목상 2>
		7:30	식사, 간식 ④ (G모양)	8:00	식사, 간식 ⑧ (O 모양)
		8:30	찬양 12	9:00	찬양 22
		8:50	치유의 말씀 ⑤ “성령의 역사” (30분)	9:20	치유의 말씀 ⑨ “제자의 삶” (30분)
		9:20	찬양 13	9:50	찬양 23
9:00	해바라기 교회 집합	9:30	십자가 등지고	10:00	치유의 말씀 ⑩ “크리스천 리더” (30분)
		10:10	찬양 14	10:30	종합발표 (방별발표 등)
10:00	해바라기 교회출발 (접수, 명찰 등)	10:20	치유의 말씀 ⑥ “경건한 신앙과 삶” (30분)	11:10	찬양 24
		10:50	두 번째 사랑의 선물 낭독 ②	11:30	치유의 말씀 ⑪ “영적 전투” (30분)
		11:00	치유의 말씀 ⑦ “은혜의 방해요인” 김성순 장로	2:00	찬양 25
		1:30	찬양 15		
2:00	해바라기 도착	1:40	식사, 간식 ⑤ (닷 모양)		식사, 간식 ⑨

<sup>118</sup> 김의식, 치유동산 (서울: 콤팩출판사, 2016), 27.

2:20	환영식 및 환영식사 간식 ①			2:10	(빛살 모양)
		12:40	찬양 16		
3:00	찬양 1			3:10	찬양 26
3:20	Table Grouping, 이름표 만들기, 자기소개, 방이름 짓기, Table name tag, 만들기, 발표	13:00	그룹기도회	3:20	The 4th day 결단의 시간 간증문과 설문지 작성 헌금, 섬김의 신청 등
4:20	찬양 2				
		14:00	찬양 17	4:20	짐 정리 및 사진촬영
4:40	치유의 말씀① “삶의 이상” (20분)	14:10	천지창조		
		14:40	찬양 18		
5:10	간식 ②	15:00	치유의 말씀 “희락의 벽” (20분)		
		15:40	간식 ⑥	5:20	찬양 27
5:30	찬양 3				
		16:00	찬양 19	5:40	파송식
5:50	첫 번째 사랑의 선물 낭독①	16:10	세 번째 사랑의 선물 낭독 ③		
6:00	치유의 말씀② “하나님 의 은혜”	16:20	치유의 말씀 “통곡의 벽” (20분)		

	(20분)				
6:30	찬양 4	17:00	찬양 20	6:40	교회로 출발
6:50	십자가 앞에서				
7:20	찬양 5	17:10	식사, 간식 ⑦ ( + 모양)		
7:30	치유의 말씀 ③ “건강한 교회” (20분)	18:10	찬양 21		
8:00	찬양 6				
18:10	식사, 간식 ③(W모양)	18:20	치유의 말씀 ⑧ “내적치유” (30분)		
		18:50	치유의 시간 각 방별로		
19:10	찬양 7				
19:20	치유의 말씀 ④ “성례” (30분)				
19:50	찬양 8				
20:00	성찬식				
20:30	찬양 9				
20:40	십자가의 길				
21:10	찬양 10				
21:20	세족식				
22:00	찬양 11 아브라조				
22:30	취침, 섬김의 회의	22:50	아가페		

우리의 신앙과 삶의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바로 과거의 상처이다. 미처 다루지 못한 어린 날의 상처, 미처 인지하지 못한 가정 및 결혼생활과 육아 경험으로부터의 상처,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안에 자리 잡은 세상과 공동체로부터의 상처 등이 우리 현재의 삶을 얼마든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2박 3일의 치유동산 프로그램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에 마음 문이 열려 지난 날의 상처를 표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함으로 지난 날의 상처를 치유 받도록 하는 일은 우리의 일상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그리함으로 주님과 성숙한 관계(신앙)와 주위 사람들과의 행복한 관계(삶)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표5> 부부행복동산 커리큘럼<sup>119</sup>

시간	첫째날(주일)	시간	둘째날(월)	셋째날(화)
		7:00	경건의 시간 (시1편)	경건의 시간 (시23편)
		7:30	부부 데이트	
		8:00	아침 식사	
		9:00	치유의 찬양	
		9:20	강의 2 신앙의 가정 설계	?
		9:50	부부 이야기	
		10:20	치유의 찬양	
		10:30	강의3 화목한 부부대화	
		11:00	함께 나눠요	
		11:30	조별발표	
14:00	행복을 향해 출발	12:00	점심식사	떡과 잔을 나누며 결단과 파송

<sup>119</sup> 김의식, *부부행복동산* (서울: 쿼란출판사, 2017), 18.



				(기념촬영)
		13:00	치유의 찬양	점심식사
		13:30	편지는 사랑을 신고	행복 담아 '집으로'
		14:00	부부 발표	
17:30	도 착	14:30	치유의 찬양	
18:00	저녁식사	14:40	강의4 부부행복의 비결	
19:00	산책	17:10	사랑의 산행	
20:00	치유의 찬양	18:00	저녁식사	
20:30	강의 1 성경적 부부의 행복	19:30	치유의 찬양	
21:00	함께 나눠요	20:00	세족식	
21:20	그룹발표	21:00	여보 미안해	
22:00	부부 행복의 시간	22:00	부부 행복의 시간	

1997년 IMF이후 수많은 가정들이 해체되는 너무도 불행한 현실이 있었다. 또한 포스트모던문화의 영향으로 이제는 더이상 가정의 해체와 이혼에 대한 문제들이 일상적인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가정의 불확실한 미래는 비단 사회적 현상으로만 국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앙이 있고, 믿음의 가정이라고 자부하는 크리스천 가정들에게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뿐만아니라 비록 이혼은 못했는지라도 정서적 이혼(Emotional Divorce)의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도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위기에 처해있는 가정들의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2박 3일의 부부행복동산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와 가정의 현실적 문제와 진단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다루며 행복을 회복하도록 한다.

<표6> 아버지학교 커리큘럼<sup>120</sup>

날짜	비디오	강의 주제	인 물	활동 과제
2005.9.6	MBC 사과나무 2005.1.29	1. 영성의 회복	아담	1. 경건의 시간 2. 당신의 자아상을 체크해 보세요 3. 아내에게 사랑 표현하기 4. 자녀에게 사랑 표현하기
13	2005.2.26	2. 상한 마음의 치유	아담	부모님께 사랑의 편지쓰기
20	2005.4.9	3. 행복한 인생	하박국	한주에 한번씩 가족의 시간 갖기
27	2004.11.20	4. 축복의 회복	아브라함	회개문 쓰기
10.4	2004.11.27	5. 아내와의 사랑	다윗	아내에 대해 칭찬할 것 20가지 쓰기
11	2005.2.12	6. 부부(가족)대화	마노아	1. 부부(가족) 대화 실습 2.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10가지 쓰기 3.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10가지 쓰기 4. 경건의 시간
18	2005.7.6	7. 은혜로운 신앙생활	아굴라	아내에게 사랑의 편지쓰기
11.1	2005.5.11	8. 신앙의 양육	사무엘의 부모	1. 자녀에 대해 감사할 것 20가지 2. 경건의 시간
8	2004.10.30	9. 사랑의 치유	디모데	1. 사랑하는 자녀에게 편지쓰기 2. 매주 토요일 저녁7시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시청하기 3. 경건의 시간
15	KBS TV는 사랑을 신고 2005.7.12	10. 사랑과 용서의 승리	다윗과 요나단	1. 직장(교회) 동료에게 사랑의 용서의 글쓰기 2. 경건의 시간
22	MBC 사과나무 2005. 4. 16	11. 종말론적 봉사생활	베드로	1. 아버지학교 간증문 쓰기 2. 경건의 시간
26	2005.6.8	12. 남은 생애의 사명	이사야	1. 리유니온 모임까지 받은 은혜 간직하기 2. 매일 경건의 시간 계속 갖기

<sup>120</sup> 김의식,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서울: 콤파스출판사, 2007), 10.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가정의 위기로 지적되는 하나가 바로 아버지의 부재이다. 다양한 가정의 형태와 문화로 인하여 아버지로서의 영역과 역할 그 필요성과 중대성이 약화되어 가정 내 아버지의 역할과 위치의 부재로 인한 많은 결핍 현상들이 심리적 문제, 영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남편, 아들, 아버지로서의 그 위치와 역할의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12주 코스의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먼저 아버지로서의 영성을 회복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부부관계와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을 감당하게 되며, 더 나아가 영적인 비전과 사명을 고취시키는 종말론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게 된다.

<표7> 어머니학교 커리큘럼<sup>121</sup>

날짜	비디오	강의 주제	인물	특별 활동	활동 과제
3.9	KBS 아름다운 용서2	1. 여성성의 회복	하와	조 이름 작성 포스터 그리기	1. 매일 경건의 시간 2. 부부 사랑 표현하기 3. 부모 사랑 표현하기 4. 자녀 사랑 표현하기
15	MBC 사과나무 2005.1.15	2. 영성의 회복	안나	나의 경건생활체크	회개문 쓰기
22	2004.12.4	3. 상한 마음의 치 유	하와	내적 치유	상한 마음의 치유 실천
29	2004.11.27	4. 남편과 의 사랑	밋세바	부부사랑 간증	나는 몇점짜리 아내인가?
4.5	2005.1.29	5. 부부 (가족) 대화	마노아 부인	부부대화법 실습	1. 부부(가족) 대화 실습 2. 남편(가족)이 제일 좋아하는 것 10가지 3. 남편(가족)이 제일 싫어하는 것 10가지

<sup>121</sup> 김의식,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서울: 콤파스출판사, 2006), 6.

12	2005.1.1(1)	6. 축복된 삶	사르밧 과부	주부재테크 특강	남편(가족)에게 감사하며 칭찬할 점 쓰기
17	2005.1.22	7. 행복한 인생	아버지 가일	가족의 시간 간증	나의 장래의 행복계획서 쓰기
26	2005.3.22	8. (시)부모와의 관계 회복	룻	나의 효도 체크	(시)부모님께 편지 쓰기
5.3	2004.11.6	9. 신앙의 양육	한나	자녀 특강	자녀에 대해 감사할 것 20가지
17	2000.2.5	10. 사랑의 치유	유니게	자녀 내적 치유	사랑하는 자녀에게 편지 쓰기
31	2005.1.1(2)	11. 은혜로운 교회 생활	브리스 길라	어머니십계명 작성	어머니학교 감상문 쓰기
6.7		12. 종말론적 봉사 생활	뵈뵈	세족식	

포스트모던 문화 속 가정의 위기의 주된 문제 중 아버지성의 결핍과 아울러 하나의 위기는 어머니의 역할과 위치의 부재이다. 어머니의 역할과 위치에서 가능한 채움과 영향의 가정으로서의 요소들이 결핍되어 수많은 정신적, 영적인 문제들이 가정내에서 드러나며 이를 위한 많은 대응책이 필요로 제기되는 시대이다. 그래서 이 시대 3040세대 가정들의 직접적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 함께 필요한 부분이 바로 어머니의 역할과 위치의 회복, 아내, 딸, 어머니로서의 회복이 절실한 것이다. 그러므로 12주 코스의 어머니로서의 여성성과 영성을 회복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남편과의 관계와 (시)부모와의 관계와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미래의 삶의 현장들을 은혜로운 교회 생활과 종말론적 봉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문화적 공감

### 심방공감: 상담심방

3040세대 신혼가정교구를 담당하면서 전임목회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들었던 충고와 조언 중에 하나가 바로 심방이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젊은 사람들은 집안을 공개하기 싫어하고, 전통적인 심방에 대한 회의적인 경향이 있고, 실용적인 방향성을 추구하다 보니, 집에 가서 심방다운 심방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교구 식구들이 심방을 받지 않더라도, 반응이 없더라도 지치지 말고 힘을 내며 최선을 다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그러나 그러한 조언 뒤에 내 마음속에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모든 것을 체념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심방 전략을 고민하게 되었다. 구태의연하게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심방에 대한 부분에서 3040세대 신혼가정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심방의 방식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마침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에서 상담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며 3040세대 신혼가정들의 상담학적 접근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전통적인 대심방이나 형식적인 예배위주의 심방보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전체적인 심방일정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더딘 일정일지라도 한 가정이라도 제대로 된 상담심방을 통하여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들에게도 심방에 대한 생각과 선입견을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먼저 전통 심방에 대한 문제점을 통해서 심방 상담의 주요성과 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에 대하여 치유하는교회 위임목사이자 치유상담대학원의 가족상담학 교수이신 김의식 교수는 전통심방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렇게 기술한다.

보통 기성교회에서는 심방을 정기 심방(대심방)과 유고심방으로 나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심방을 하면 일년에 봄, 가을로 나누어서 두 번 정기 심방을 하게 된다. 또는 적어도 일년에 한번 정도는 정기 심방을 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심방의 문제점은

- (1) 연례행사처럼 여긴다
- (2) 때로 몰려 다닌다.
- (3) 음식 준비에 몰두 한다.
- (4) 의례적인 예배에 그친다.
- (5) 개인적인 상담이 없다.
- (6) 성령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 (7) 피곤과 부담만 따른다.<sup>122</sup>

김의식 교수는 이러한 전통심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례적이고 전통적인 심방보다 심방대상자가 필요성을 느끼고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의미 있는 심방, 효과적인 심방인 상담 심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처럼 상담심방이야말로 포스트모던 시대에 필요한 심방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3040세대 신혼가정이 아무리 삶의 정황이 다양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기성세대에 비해 강할지라도 본인에게 맞춰진, 본인의 필요가 해결되고, 치유적인 경험과 회복이 있는 심방이라면 이러한 세대적 특징과 상관없이 심방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심방의 효과적인 간증과 나눔을 통해서 심방의 필요성과 도전을 분명하게 받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목회자가 심방대상자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심방이 아닌, 심방대상자에게 철저히 맞춰지는 상담심방이야말로 포스트모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심방이며, 3040세대 신혼가정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심방

<sup>122</sup> 김의식, “상담 심방, 이렇게 하라,” *목회와 신학* 제287호(2013), 62.

의 방식이라 생각한다.

김의식 교수는 상담심방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기도의 준비라고 강조한다. 상담심방은 형식적인 차원을 넘어서 치유와 회복이 경험되며 하나님의 파토스, 공감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심방의 효과적 진행이 어렵다고 말한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진정한 상담과 치유를 할 수 없기 때문”<sup>123</sup>이라는 표현처럼, 이전의 상담의 많은 경험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서는 그저 형식적인 심방이나 상담의 차원으로 경험되고 끝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상담심방은 기도로 철저히 준비하며 영적무장을 해야 하는 거룩한 부담을 안게 되는 심방이기도 하다.

아울러 많은 사람이 몰려다니는 것보다 담임목사 내외나 담임목사와 부목사가 동행하든지 아니면 부목사와 목자, 부목사 등 두세 명의 소규모 인원만이 심방대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임을 말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심방을 가게 되면 주의 사람들을 의식해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개인적인 아픔이나 상처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면 오히려 이후에 더 많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내밀한 이야기들을 나누지 못하고 마음 문을 닫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심방을 다닐 때에 심방의 많은 경험이 있고, 연령도 있어서 심방대상자에게 안정감을 주며,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교구권사 2명과 함께 상담심방에 참여하고 있다. 만약에 교구권사가 일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심방대상자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의 리더를 한 명 동행하여 주

---

<sup>123</sup> Ibid., 63.

로 본연구자를 포함한 3명이서 심방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야 심방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환경을 통해 자신의 상처와 아픔, 문제를 내어놓고 진지한 대화와 상담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담심방은 심방대상자에게 철저히 맞춰진, 심방대상자를 위한, 심방대상자가 참여하는 심방이 된다. 그만큼 심방에 대한 의미를 느끼게 되고, 심방을 통한 개인적 성장과 치유의 경험은 심방대상자 뿐만 아니라 가까운 가족, 목장 식구들에게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렇다면 심방의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김의식 교수는 상담심방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가족치료학자인 인수 김 버그(Insoo Kim Berg)와 스티브 드 셰이저(Steve de Shazer)부부가 고안한 “해결중심 단기가족치료(Solution-Focused Brief Family Therapy)"의 상담이론으로 상담심방의 구체적 방법을 적용 제시하였다. 본 연구자 또한 김의식 교수가 제시한 상담심방의 방법론으로 3040세대 신혼가정들을 심방하며 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 이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문제 분석 중심에서 문제 해결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 (2) 과거 지향적 상담에서 현재와 미래 지향적 상담으로 바꾼 것이다.
- (3) 상담자 중심에서 내담자 중심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다.
- (4) 크고 복잡한 문제 중심에서 작고 쉬운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것이다.
- (5)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자세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다.
- (6) 시간과 정성의 소모에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의 특징을 중심으로 “해결중심 단기가족치료(Solution-Focused Brief Family Therapy)"의 5가지 질문을 통한 상담 방법론을 한국의 목회현장에 맞춰 접목한 질문으로 바꾸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8> “해결중심 단기가족치료(Solution-Focused Brief Family Therapy)”의 5가지

질문<sup>124</sup>

순서	단계	질문내용
(1)	목표의 타협 (Goal Negotiation)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내담자의 문제의 윤곽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기적의 질문 (Miracle Question)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길 바라세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예외 발견의 질문 (Exception-Finding Question)	“그 문제가 어떻게 시작 되었나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함으로 원인치료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4)	대처의 질문 (Coping Question)	“그동안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오셨어요?”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잘 극복해온 문제 해결의 소극적 자원을 격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5)	척도의 질문 (Scaling Question)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
내담자에게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자원을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위의 5가지 질문을 순서대로 할 수도 있지만 심방대상자의 답변 상황에 따라서 질문의 순서를 바꾸어 진행할 수도 있고, 질문을 생략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문제의 파악과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부분을 성

<sup>124</sup> Ibid., 64.

도 본인에게서 찾아내고자 하는 방향성이다. 이는 칼 로저스(Carl Rogers)의 인간중심 접근의 방향성과도 같은 맥락이며, 무엇보다도 문제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가장 많이 해온 심방대상자의 관점을 공감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상담도, 치유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에 기독교 상담학자인 제이 아담스(Jay E. Adams)가 주창한 권면적 상담기법을 통해서 내담자 중심이 아닌 상담자중심의 권면이나 교육, 혹은 설교와 같은 형식의 상담을 수없이 진행해 왔었다. 또한 성도들도 이러한 목회자의 권면적 상담에 익숙해져 있어, 상담심방에서 사용하는 “해결중심 단기가족치료”의 5가지 질문기법을 제시할 때, 본인들의 내면의 이야기나 문제를 나누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담심방의 진행방식이 부담스럽거나 어렵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목회자가 문제의 근원부터 해결책까지 모든 것을 직접 제시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의 상황을 잠시 설교나 권면적 말씀으로 잠시 덮어두고 가는 것과 같다. 권면적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면내용은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고정화 되어 있다. “믿음으로 잘 이겨냅시다”, “사랑으로 더 잘 해 줍시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그래도 안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당신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정 할 말이 없을 대에 최후의 보루로 사용하는 권면내용은 “기도합시다”가 된다. 이외에 특별한 내용이나 도움이 될 만한 다른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권면적 멘트를 통해서 심방대상자의 문제의 근원을 이끌어낼 수도, 치유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문제에 대한 가장 많은 고민도 내담자 자신이 가장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과 해결책도 내담자가 공감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담자에게 해결책이 있다는 생각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내담자 스스로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

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4~5단계의 질문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반복된 질문을 통해 고백 되고, 다양화된 내담자의 고백을 목회자는 다시 요약 정리하여 메모해서 전해주며 이것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며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관련 말씀을 함께 제시해주며 지속적 관찰과 돌봄의 방향성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성령의 도우심임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문제의 근원과 해결책의 방향성을 관련된 말씀과 매일의 기도로 간구하다 보면 말씀 속에서 궁극적인 해결을 얻고 기도를 통한 위로와 성령의 지혜를 얻어 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치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심방대상자 본인에게서 고백하게 한 문제와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연결시켜주어 공감적이면서도 성경적인 영적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성경말씀과 관련된 메시지를 목회자는 심방대상자에게 전해주며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어서 곧바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면서 심방의 마무리를 회복의 가능성으로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이 상담심방의 마지막 부분은 제이 아담스(Jay E. Adams)의 권면적 상담 방법(Nouthetic Counseling)을 활용한 것이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권면적 상담으로 제시된 심방대상자의 문제적 상황과 관계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체험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마무리를 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상담신앙의 이론적 구성은 “해결중심 단기가족치료(Solution-Focused Brief Family Therapy)"방법과 제이 아담스

(Jay E. Adams)의 권면적 상담 방법(Nouthetic Counseling)을 연결시킨 방법론이며, 말씀과 성령의 간구를 통한 신앙적 차원의 결과와 치유의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성도님의 상담심방 후 그 과정에서의 치유와 회복이 성령의 역사로 경험되며, 마지막 권면적 상담으로 제시된 말씀이 삶의 실제적인 부분으로 적용된 간증내용을 다음과 같이 예시로 제시해본다.

#### A 성도의 상담심방 후 간증

신앙 안에서 결혼하며 축복받는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믿는 가정이고, 믿음으로 시작한 만큼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지만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의 관계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좋았는데, 아기를 낳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이 상처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었겠지만 무심코 던져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가시가 박히 듯 깊은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마음을 시어머니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며 너무 크게 확대해석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목사님께서 심방을 오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내 감정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들어 주시면서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미움이 아닌, 다른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상처가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표현 하나 하나에 시어머니의 어려웠던 삶이 녹아 들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알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모든 분냄과 성냄과 증오심 모두 시어머니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마귀가 좋아하는 것임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니, 저는 예수님보다 제가 더 귀하게 여겨지길 원했었고, 용서하고 또 용서 하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못했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했고, 신랑을 낳아준 어머님께 나도 모르게 심한 말을 한 사실에 대해서 그때부터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방이 끝나고 바로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통명스럽게 전화를 받으시는 느낌이었지만 시어머님께 먼저 죄송하다고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화가 풀리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더 확실하게 풀어 드리고자 제 총 비상금 12만원 중 10만원을 용돈으로 입금해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하니깐, 내 감정뿐만 아니라, 상황까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이번 명절에 웃으며 뵈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로마서 12장 14~21절을 말씀해주셨는데 요즘 "아싸~"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불쌍하신 우리 시어머님,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터놓을 사람 없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자식들마저 "엄마는 잔소리가 너무 심해"하며 등 돌리는데 그 속이 얼마나 탔을까, 얼마나 버거우셨을까, 이 모든게 감히 전 상상도 못하지만 어머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과 행동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안에 살지 못한 제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심방을 통해서 내가 느꼈던 관계의 어려움, 미움이라는 마음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 모임공감: 남선교회

3040세대는 가족생활주기로 확인해 보았을 때 가정과 직장에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는 세대이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적인 은혜를 등한시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많은 3040세대 신혼가정들을 상대하다 보면 이들도 말씀에 갈급한 심령들이며 은혜로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공감할만한 은혜의 공급과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은혜를 원하지만, 모임을 원하지만 교회의 책임과 성실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이들이 참여하기에, 다가가기에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방식의 모임과 전통이 있어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3040세대 신혼가정을 담당하면서 가장 부담스럽게 다가왔던 모임 중에 하나가 바로 남선교회 모임이었다. 교회적으로는 남선교회 모임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남성들의 교회적, 신앙적 참여로의 적극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명분과 동력을 제시하지만, 실제로 남성들의 남선교회로의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의 면들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모임이 모임 되도록 이끌어야 하는 담당목회자로서 모이지 않는 이들의 필요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었다. 물론, 신앙적으로 연약하거나 관심이 부족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여겨질 수 있겠지만 신앙의 열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몇명의 남성 성도들조차 남선교회 모임에 비참여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왜 참여하지 못하는지?’ ,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 를 질문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답변은 하나같이 동일했다. 도대체 주일에 예배 후 남선교회 모임을 정기적으로 왜 모여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의 말을 듣고 난 뒤 많은 생각과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다. 본 연구자 또한 그들의 말을 들으며 생각해보니 일리 있는 말이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한창 바쁘고 분주

한 시기를 살아가면서 주일에 되어서야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주일 예배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겨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후 가족들과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주중에 그 유일한 시간마저도 예배 후 또 다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차원에서 모임이 가지게 되는데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의 상황을 이해하고자 교회 남성들의 모임이나 활동을 독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각자가 분담하여 감당해야 할 교회의 영역이 있고,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지속적인 관점에서 남성들의 영적성장과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3040세대 남성 성도들이 모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으로 교구 남성 몇명과 깊은 논의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구태의연한 형식적인 남선교회 모임으로 의미 없는 모임을 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임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묻게 되었다. 그러자 ‘교회의 많은 자리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선교적 가치, 사회적 가치에도 영향력을 끼치며 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나눔 모임이었으면 좋게어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에 맞추어 만들어진 3040세대 신혼가정 남성들만의 모임인 “교회남자”가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 “교회남자”는 기존에 이어왔던 형식적인 남선교회 모임을 이들의 필요에 맞추어 한달에 한번씩 이들이 고민하는 신앙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주제강의와 나눔의 형식으로 진행된다면 참석할 때마다 회비를 모아 기존의 남선교회모임에서 지원하던 국내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피곤하고 지쳐서 많은 활동을 못하지만 영적성장과 선교적 가치라는 두가지 분명하고 공감되는 명분을 유지하며 모임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기존의 임원진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임의 방향성을 스스로 함께 만들어가며 발전 성장시켜 나아가는 주도적 모임으로 나아가기에 이르게 되었다. 그

래서 “교회남자” 를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28> 교회남자(1)

9교구 남성모임  
(2019. 1.20)

**교회남자 1**

하나님께  
가라미

**O.T**

**생각해보기-1**

Q) 내게 보여지는 “교회남자”는?

<보기>

좋은사람이다. 위선적이다. 불쌍하다. 종교인이다. 바보같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바쁜사람이다.  
성품이 좋다. 친절하다. 독선적이다. 배려심이 많다. 민감하다. 법을 잘 안지킨다. 기타 ( )

Q) 교회남자는 ( )하는(는) 사람이다.

=> 교회남자로서의 삶(정체성)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라도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라도 다가올 일은 다 헛되  
도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  
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전11:9)

**생각해보기-2**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낮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돌지어다”(전7:1-2)

미국에서 9.11테러가 났을 당시 뉴욕 시장은 루돌프 줄리아니였습니다. 줄리아니는 뉴욕이 대혼란에 빠졌을 때 강한  
리더십과 발 빠른 정책 마련으로 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 무명 복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무명 복서였던 아버지는 “맛을수록 침착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덕분에 그는 위기 대처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결혼식장은 선택이지만 장례식장은 필수”라고 가르쳤습니다. 왜그랬을까요? 장례식에  
가면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죽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인생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 길은 무엇인가?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Q) 최근에, 누군가의 장례식을 다녀온적이 있는가? 나의 마지막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Q) 삶의 분주함 속에서 나는 “가치”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찾아가고 있는가?



<그림29> 교회남자(2)



**Review. 교회남자①**

**교회남자는 ( )를 찾아가는 사람이다. 분주한 가운데에도 ( )를 찾아가고 있는가?**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라도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라도 다가올 일은 다 잊되도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11:9)

- ex) 앞에 걸린 젊은 엄마의 이야기 (KBS 스페셜 앞, 여자의 일생)
- ex) 헤어질 후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이야기 (일상학개론, 광고영상)

**교회남자②. ( )하는 남자(남편)**

**Q) 9교구 심방중 남편을 위한 기도의 제목 중 가장 많이 집계된 주제는?**

- ① 남편직장 ② 육아분담 ③ 부부소통 ④ 남편신앙 ⑤ 남편건강

“이삭은 사십 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육십 세였더라”(창25:20,21,26)

‘아내가 저런 눈빛으로 더 이상 나를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바보상자(TV) 앞에서 축구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지겹지도 않느냐는 저 눈빛...’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이런 시간을 보내야만 충전이 된다는걸 왜 모르는거지! 나에게도 시간을 줘야 할 것 아닌가!’ 아내의 눈총을 받을 때마다 나는 아내가 ‘시간 낭비’라고 여기는 축구경기를 나와 함께 즐겼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나의 기도는 간단했다. 하지만 그 간단한 기도가 27년 동안 축구는 일면식도 없던 아내를 열성팬으로 바꾸어 버렸다. 나는 그 일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며, 사실 지금도 믿기 어렵다. 아내는 응원팀의 심벌이 새겨진 셔츠와 모자를 쓰고 다니며, 경기가 끝날 즈음에는 괴성을 지르고 야단이다. 심지어는 좋아하는 선수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열변을 토하기까지 한다. 그런 아내의 말을 반박하고 싶은 때도 많지만 논쟁을 하는 것이 피곤해 그만 두곤 한다. 열성적인 축구팬이 된 아내와 함께 경기장에 가는 것이 내게는 인생의 큰 낙이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참으로 기도 응답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 마이클 오마산,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 저자의 남편 -

누구를 위해 기도하든지 기도는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아내가 주님을 모르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  
성경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다”고 말한다(고전7:14).  
남편은 기도로 아내를 도울 수 있다. 물론 남편의 기도가 아내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내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아내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하는가? 부부사이의 말이 무너지기를 원하는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아내를 위해 기도하라. -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에서 발췌 -



- Q1) 아내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 Q2) 남편이 생각할 때 내여자(아내)에게 필요한 기도제목은?
- Q3) 아내가 기도 받고 싶은 제목은?

<그림30> 교회남자(3)



9도쿠 담성모임  
(2019.4.14)

### Review. 교회남자

① 교회남자는 ( )를 찾아가는 사람이다. 분주한 가운데에도 ( )를 찾아가고 있는가?

- ex) 암에 걸린 젊은 엄마의 이야기 (KBS 스페셜 암, 여자의 일생)
- ex) 헤어진 후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이야기 (일상학개론, 광고영상)

② 교회남자는 ( )하는 남자이다. 아내와 자녀를 위해 어떻게 ( )하고 있는가?

- ex)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 - 남편의 기도로 아내가 남편의 취미를 사랑하게 되었다.
- ex) 남편의 기도로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다(창25:21)

### 교회남자③. ( )는 것이 다른 남자

Q)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빈도수에 따라 0~10까지 체크)

- ① 유튜브 ② 게임 ③ 주식 ④ 인터넷기사 ⑤ 영화·TV ⑥ 웹툰 ⑦ 말씀 ⑧ 음란성미디어  
( ) ( ) ( ) ( ) ( ) ( ) ( ) ( )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닮는다”는 말이 있다. 사람은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보는 것을 닮는다는 말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마7:16)란 말씀이 있다. 그냥 씨앗만 봤을 때는 잘 모를 수 있다. 땅에 묻혔을 때는 무슨 열매를 맺을지 알수 없다. 그러나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난다’. 결국 열매를 통해 증명된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된다. 우리는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요즘 자주 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나의 거울이다. (\*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6:7: 육체의 소유VS 성령의 소유)



#### 중독에 빠졌다는 의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 산다. 중독이란 무엇인가? '중독되었다'는 세 가지 의미와 특징을 가진다.

- ① ( )이다. 자신이 스스로 '중독에 빠졌다'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 )으로 무엇을 계속 하거나 보면 중독일수 있다.
- ② ( )이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조금해지고, 불안하고, 우울해진다. 반대로 하고 있으면 흥분하게 된다.
- ③ ( )이 있다. 좋지 않은 습관을 깨트리지 못하고, 반복해서 한다. 계속해서 마음과 발걸음이 중독으로 향하게 만든다.

한 청년이 교회 수련회에서 은혜를 듬뿍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온 그는 습관적으로 컴퓨터를 켜고 그 앞에 앉았다. 그런데 곧이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새 음란물을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중독의 행위적 패턴에 빠져 무의식적으로 음란물을 보고 있었다.

★ 중독의 가장 큰 폐단은 ( )이다. 중독의 해결책은 ( )이다.

- Q1) 나는 사람과의 관계, 대화, 소통, 공감하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는가(나의 관계는 괜찮은가)?
- Q2) 나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되기 위해 내가 더 절제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 Q3) 하나님의 말씀(하나님을)을 더 보기 위해 내가 결단할 수 있는 한가지는?

<그림31> 교회남자(4)



**Review. 교회남자는..**

- ① ( )를 찾아가는 남자이다. 분주한 가운데에도 **영적가치**를 찾아가고 있는가?  
ex) (KBS 스페셜 **삶, 여자의 일생**) ex) (일상학개론, 광고영상)
- ② ( )하는 남자이다. 아내와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ex) 남편의 기도로 아내가 남편의 취미를 사랑하게 되었다. ex) 남편의 기도로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다(창25:21)
- ③ ( )는 것이 다른 남자이다. 시간 날 때 내가 **더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ex) 교회 수련회 후 습관처럼 음란물을 시청하게 된 남자 ex) 천국에서 손만 보는 사람들의 그림(스마트폰 중독)

**교회남자 4. ( )하는 남자**



■ 1인당 명목GDP(2018) vs 행복지수(2019)

※ GDP(by 국제통화기금), 행복지수(UN)

순위	국가/영토	미화\$	행복지수	GDP
1	룩셈부르크	105,863	14	13
2	스위스	80,637	6	4
3	노르웨이	75,389	3	-
5	아이슬란드	68,711	4	- 1
6	카타르	61,025	29	23
7	미국	59,792	19	12
8	싱가포르	57,713	34	26
9	덴마크	56,631	2	- 7
10	오스트레일리아	55,693	11	1
11	스웨덴	52,925	7	- 4
12	네덜란드	48,555	5	- 7
14	오스트리아	47,347	10	- 4
15	핀란드	45,927	1	- 14
16	캐나다	45,095	9	- 7

Q) 당신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아래의 숫자에 그 정도를 표기해 봅시다)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Q) 어떻게 하면 당신의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구체적 사례나 항목을 표기)

( )

"남들은 다들 결혼도 잘하고, 애도 잘키우고, 일도 척척 해내는데 왜 저에겐 이 모든게 힘들게만 느껴질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몇 년 새 부쩍 늘었다 ... 과거에 비해 우리의 삶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부모 세대에 비해 밥 굶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저마다 수십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정신건강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반복되는 사실이다. 17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정신과 환자는 대폭 늘었다. 특히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급격히 많아져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IT산업이 빠르게 발전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눈을 뜨자마자 뉴스와 날씨를 확인하는 것부터 잠이 들때까지 스마트폰 세상과 접속해 있는 우리는 과연 행복하고 건강할까? - '자존감수업', 윤홍균 정신과의사 -

**이삭**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투므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또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므로 그 이름을 시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보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다 하였더라"(창26:19-22)

- 1.오늘도 거만하게 감사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 2.유난히 눈부시고 피곤하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3.정신 때렸는 스터제이를 약이서 감사합니다.
- 4.말이든 것들 한 동료에게 화를 주고 참을 수 있었던 나 자신에 감사합니다.
- 5.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사온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Q) ( )하는 남자가 되기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림32> 교회남자(5)



**Review. 교회남자는..**

- ① ( )를 찾아가는 남자이다. 분주한 가운데에도 **영적가치**를 찾아가고 있는가?  
- KBS 스페셜 **삶, 여자의 일생** - 일상학개론, 광고영상
- ② ( )하는 남자이다. **아내와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 남편의 기도로 아내가 남편의 취미를 사랑하게 되었다. - 남편의 기도로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다(창25:21)
- ③ ( )는 것이 다른 남자이다. **시간 날 때 내가 더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 교회 수련회 후 습관처럼 음란물을 시청하게 된 남자 - 천국에서 손만 보는 사람들의 그림(스마트폰 중독)
- ④ ( )하는 남자이다. **목상하는 남자가 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행복지수(1인당 GDP VS 행복지수): 산업혁명(정신과 환자 급증) - 이삭(우물 다름사건), 오프라윈프리(감사노트):언어

**교회남자 5. ( )듣는 남자**

**Q)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음악” or “찬양”을 듣고 있나요?**

- ① 10분이내 ② 30분이상 ③ 1시간 이상 ④ 되는데로 듣는다. ⑤ 들을 시간 없다.

**Q) 찬양을 들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임팩트 있는 변화가 아닐지라도..평온, 진정 등등)**

( )



“여호와와 그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낮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삼상16:14,23)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대하20:12,15,21-22)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질지라”(행16:25-26)

MEMO

<그림33> 교회남자(6)



**교회남자는 9교구 남성의 영성회복과 선교적가치를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매월 셋째 주 교회남자 모임과 미자립교회 후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교회: 화평한교회(최사라목사) 후원: 하나은행/ 373911-757-98707(이재웅) - 월회비 5천

**교회남자>>**

- ① ( )를 찾아가는 남자이다. 분주한 가운데에도 영적가치를 찾아가고 있는가?  
 - KBS 스페셜 **알, 여자의 인생** - 일상학개론, 광고영상
- ② ( )하는 남자이다. 아내와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 남편의 기도로 아내가 남편의 취미를 사랑하게 되었다. - 남편의 기도로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다(창25:21)
- ③ ( )는 것이 다른 남자이다. 시간 날 때 내가 더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 교회 수련회 후 습관처럼 음란물을 시청하게 된 남자 - 천국에서 손만 보는 사람들의 그림(스마트폰 중독)
- ④ ( )하는 남자이다. **목상(하나님생각)하는 남자가 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행복지수(1인당 GDP VS 행복지수): 산업혁명(정신과 환자 급증) - 이삭(우물 다름사건), 오프라윈프리의(감사노트):언어
- ⑤ ( )듣는 남자이다. **찬양을 찾아듣는 남자가 되기 위해 내가 새롭게 적응해 볼 수 있는 것은?**  
 - 찬양듣고 악령이 떠나간 사울왕(삼상16:14,23) - 찬양을 부르며 전쟁을 이긴 여호사박과 이스라엘(대하20:22)

**교회남자 6. 하나님( ) 보는 남자**

아이가 자랄 때 눈치 보는 정도가 심하면 소극적이고 위축된 성격으로 자랄 가능성이 있지만,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다면, 인격장애나 공감장애 혹은 사회적 이단어로 성장할 확률이 높다. 그 결과를 우리는 마스크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



'인격·행동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 3명중 2명은 10~20대의 젊은 층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격 및 행동장애는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지나친 의심, 공격성 등이 나타나는 인격장애와 중독적도박, 방화, 도박, 습관 및 충동장애, 성추체성 장애 등이 있다. 스스로는 잘 인식하지 못하나 타인과의 관계가 악화돼 사회생활 및 관계가 어렵거나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눈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주어진 상황을 때에 맞게 빨리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이는 직관적이고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이지요. 나이에 맞는 눈치는 사회성이 잘 발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눈치를 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상황이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대인지능'에 속합니다. 대인지능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지능이라고 일컬어지는 '실용 지능'의 일부로, '실용지능'은 원가를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언제 말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을 포함하는 능력입니다. - 심리학자 로버트 스톨버그 -

**Q) 나는 사람들(상황)의 눈치를 어느 정도 보는가?**  
 (안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본다)

**Q) 나는 하나님 눈치를 어느 정도 보는가?**  
 (안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본다)



"하나님을 경외(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잠12:13)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외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히 11:7)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9:10)  
 '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게 됨에 따라, 또한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분을 불쾌하게 하거나 앎을까 하는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나는 구분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분이 보시기에 승인받은 상태에 있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움직여 내가 가지고 있던 마약을 버기에 버려 없애 버리게 해주었습니다. 이후 나쁜습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헌신..'

<그림34> 교회남자(7)



**교회남자는 9교구 남성의 영성회복과 선교적가치를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매월 셋째 주 교회남자 모임과 미자립교회 후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교회: 화평한교회(최사라목사) 후원: 하나은행/ 373911-757-98707(이재웅) - 월회비 5천**

- 1 ( )를 찾아가는 남자이다. 분주한 가운데에도 **영적가치**를 찾아가고 있는가?  
 - KBS 스페셜 **알, 여자의 인생** - **일상학개론, 광고영상**
- 2 ( )하는 남자이다. **아내와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 남편의 기도로 아내가 남편의 취미를 사랑하게 되었다. - 남편의 기도로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다(창25:21)
- 3 ( )는 것이 다른 남자이다. **시간 날 때 내가 더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 교회 수련회 후 습관처럼 음란물을 시청하게 된 남자 - 천국에서 손만 보는 사람들의 그림(스마트폰 중독)
- 4 ( )하는 남자이다. **목상(하나님생각)하는 남자가 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행복지수(1인당 GDP VS 행복지수): **산업혁명(정신과 환자 급증)** - **이삭(우물 다름사건), 오프라윈프리(감사노트):언어**
- 5 ( )듣는 남자이다. **찬양을 찾아듣는 남자가 되기 위해 내가 새롭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 찬양듣고 악령이 떠나간 사울 왕(삼상16:14,23) - 찬양을 부르며 전쟁을 이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대하20:22)
- 6 **하나님( )를 보는 남자이다. 하나님은치를 보고 있는가? 사람은치를 보고 있는가?**  
 - 모세 VS 아론 -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쌓아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갈 때 가능한 일이다.**

**교회남자 7. ( )을 잘하는 남자**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의 선택을 한다. 아침에 몇시에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등등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완성이라고 할 수도 있다.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우리에게 언제나 중요한 삶의 요소이다. 그러나 매번 쉬운선택이란 없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이러한 선택은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고민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는 삶의 부분이 되어 버렸다. 나는 매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부분이 필요하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 “햄릿중후군”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떤 선택의 갈림에서 선택을 쉽게 하지 못하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표현하는 신조어이다. **일명, 선택장애**라고도 불리우는데 햄릿중후군은 병이 아닌 습관과 같은 것으로 현대사회에 빠질 수 없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다. 과도한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 등을 통한 넘치는 정보 속에서 결정을 미루는 태도나 습관이 형성된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성경 속 사람들의 선택>

- 1 **아브라함 VS 롯 (부동산)**    2 **요나 VS 니느웨 (미래의 방향성)**
- 3 **에서 VS 아굽 (영적 축복권)**    4 **부자청년 (소유(재정))**    5 **바울 VS 성령의 인도 (계획)**

<하나님의 뜻 분별 법>

『사탄의 계략』 - 워렌워터스비 -

- 1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or 나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인가?**
- 2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or 나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인가?**
- 3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는가? or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이 되는가?**
- 4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가? or 성급하게 서둘러야 하는가?**
- 5 **영적 평안이 오는가? or 갈등과 불화가 싹트는가?**

<12WHY 기법>

**Q) 최근에 내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 있는가?**  
**혹은 가정에서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은 없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선택하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적용은?**

<그림35> 교회남자(8)



**교회남자는 10교구 남성의 영성회복과 선교적가치를 위해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매월 둘째 주 교회남자 모임과 미자립교회 후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교회: 화평한교회(최사라목사) 후원: 하나은행 373911-757-98707(이재웅) - 월회비 5천**

- ① ( )를 찾아가는 사람이다. 분주한 가운데에도 **영적가치**를 찾아가고 있는가?
- ② ( )하는 사람이다. 아내와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 ③ ( )는 것이 다른 사람이다. 시간 날 때 내가 더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 ④ ( )하는 사람이다. **목상(하나님생각)**하는 남자가 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⑤ ( )듣는 사람이다. **찬양**을 찾아듣는 남자가 되기 위해 내가 새롭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 ⑥ 하나님( )를 보는 사람이다. **하나님눈치**를 보고 있는가? **사람눈치**를 보고 있는가?
- ⑦ ( )을 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교회남자 1 헌금**

Q) 나에게 헌금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가?

- ① 은혜와 기쁨이다. ② 부담과 고민이다. ③ 기타

Q) 내가 주로 드리는 헌금은 어떤 종류의 헌금인가?(중복표기가능)

- ①십일조 ②감사 ③주정(열정) ④국내전도 ⑤해외전도 ⑥목장사역 ⑦구제(금식) ⑧장학 ⑨일천번제 ⑩건축
- ⑪성구 ⑫강단헌화(10만원) ⑬교인식사(1구좌 10만원) ⑭특별헌금

Q) 헌금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 ① ② ③

Q) “헌금”은 왜 하는가? 언제부터 해오던 것인가?

Q) Offering VS Donation

“봉헌(헌금)”에 대해서 가장 실제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성경은 말라기서이다.  
 “십일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일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매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라”(말3:8-12)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나 나 만군의 여호와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 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와 식탁은 경멸히 여길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나 이제 그것을 너희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말1:6-9)



### 활동공감: 보물찾기(야외예배)

3040세대 신혼가정은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에 관심이 많이 있는 시기이다. 또 몇 년 전부터 주5일제 수업과 주5일제 직장의 환경적 구조가 많이 변화되면서 주말여행 및 캠핑 등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야외로 활동하고자 하는 수요가 점점 더 증대되어 오면서 이에 대한 사회 제반 시설들의 확충 및 교회별 교육적인 신앙적인 연계 프로그램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3040세대 신혼가정의 경우에는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와 체험학습 및 외부활동에 대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회적 차원에서의 야외활동을 겸한 프로그램의 준비는 필수적인 요소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충적, 문화적 배경으로 3040세대 신혼가정들도 교회내부에서만 신앙적인 활동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공감을 이루기 위하여 야외공간에서의 특별한 신앙연계 프로그램을 적용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울러 가장 은혜가 필요한 시기이지만 가정과 직장에서 가장 바쁘고 지치는 이 현실을 벗어나 새로운 환경과 관점에서의 신앙활동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연대하고, 다짐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은 교구적 상황에서도 중요한 일이었다. 이를 위해 고안하게 된 것이 “보물찾기”라는 이름으로 명명한 교구 야외예배였다.

또한 이 보물찾기라는 야외예배는 문화적인 배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가족 중 믿음이 약하여 교회에 잘 안 나오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구성원들을 교회 공동체로 인도할 수 있는 장(Field)이 되기도 하고, 또 비슷한 또래나 친한 지인 등을 초청하여 공동체의 장(Field)으로서 연대할 수 있는 초청잔치의 개념도 함께 내포하게 되었다. 실제로 평소에 교회에 나오지 않던 배우자가 보물찾기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고 교회 공동체로 적응하며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결실도 이루게 되었다. 꼭



하나의 방식이 아닌 다양한 장소와 방식의 접근으로 문화적으로, 시기적으로 침체될 수 밖에 없는 3040세대 신혼가정의 신앙의 시기를 새롭게 회복하고, 쇠신하며, 영혼 구원의 장으로 연결시켜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했으며, 이를 통한 공동체성의 연대와 확장, 발전과 성장을 기대해보게 되었다.

<그림36> 보물찾기(1)

## <진행순서>

전체모임장소/ 공원내 "10 유아수채화전시회"

시간	내용	♥♥♥	
10:00-10:20	집결 & 전체브리핑	경청해주세요^^	
10:20-10:35	전체사진	모여주세요^^	
	예배	찬양/ 부르신곳에서	다함께
		대표기도	서영숙 교구권사
	말씀 + 축도	김성무 목사	
10:35-10:45	광고 & 브리핑(보물찾기)	김성무 목사	
10:45-11:40	★보물찾기★	공원전체	
11:40-12:30	점심식사	모여주세요^^	
12:30-12:45	레크레이션	하성연 집사	
12:45-13:00	시상식	진행팀	

※ 상황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13: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7: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유의 사항※

- ① 일정표를 잘 확인하셔서 순서대로 함께 참여해주세요^^
- ② 구급약이 필요하거나 기타 도움이 필요할 때, 최갈매 권사님(진행팀 총무)에게 문의해주세요^^
- ③ 보물찾기도 중요하지만, 산책 & 사진찍기 등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도 만들어주세요^^
- ④ 교회차로 단체로 오신 분은 복귀시, 진행팀과 함께 주차장으로 이동해주세요^^
- 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주세요 순간이 달라질 겁니다^^



### 종합안내도

- ① 입구
- ② 주차장
- ③ 부천시물원(메표스)
- ④ 힐링센터
- ⑤ 자연생태박물관
- ⑥ 테마정원
- ⑦ 농경유물전시관
- ⑧ 부천무릉도원수목원
- ⑨ 야외화장실
- ⑩ 튼튼유아수채화원
- ⑪ 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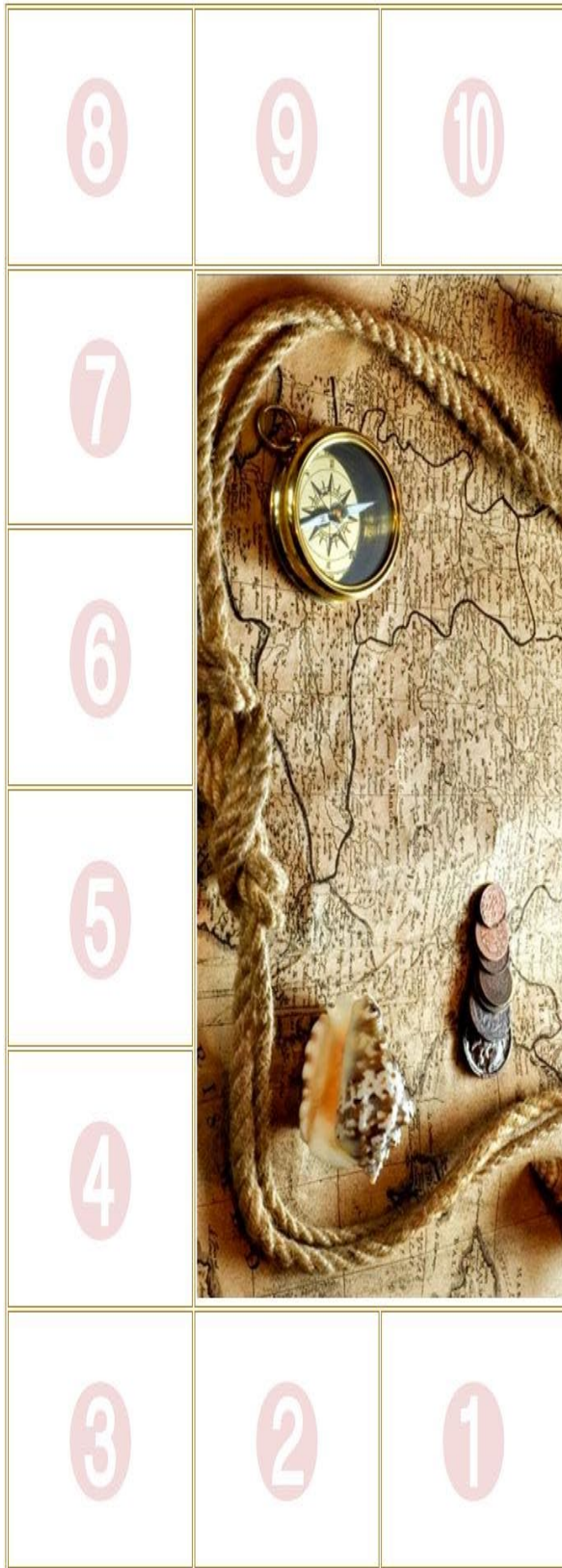
## 부르신 곳에서

Words & Music by 김준영 & 송은경



E E sus4 EM7 D/E  
 따스한 성령 - 남 - 마음 - 로 보내 - 내 몸  
 사랑과 진리 - 의 - 안 줄기 - 빛 보내 - 내 몸  
 AM7 G#m7 C#m7 F#m7 A/B E E7  
 을 감싸며 - 주어 지는평-안함 - 만 족함-을 느끼 내 부르신곳에서  
 을 감싸며 - 주어 지는평-안함 - 그 사랑-을 느끼 내 부르신곳에서  
 AM7 G#m7 C#m7 F#m7 A/B E D/E  
 - 나는예배하네 - 어떤상황에도 - 나는예배하네 - 부르신곳에서  
 AM7 G#m7 C#m7 F#m7 A/B E  
 - 나는예배하네 - 어떤상황에도 - 나는예배하네 - Fine 내가  
 AM7 B/A G#m7 C#m7 F#m7 A/B E E7  
 걸어갈 - 때길 - 이되 - 고 살아갈 - 때살 - 이되-는그곳에서 - 예배-하네 - 내가  
 AM7 B/A G#m7 C#m7 D B sus4 B E/G#  
 걸어갈 - 때길 - 이되 - 고 살아갈 - 때살 - 이되-는그곳에서 - 예배-하네 - 부르신곳에서

<그림37> 보물찾기(2)



## 제 V 장

### 결론

#### 요약 및 평가

본 연구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교회공동체 내부의 3040세대를 살리고 세워가 고자 하는 목회적 고민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청년세대와 장년세대 사이에 끼어 있어 어떠한 존재감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관심 받지 못하지만 정작 교회공동체의 다음세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세대인 3040세대를 담당하게 되었다. 모두가 가능성이 없고, 반응이 없는 세대라고 인정하면서 목회적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위로하던 그 멘트가 목회적 도전으로 연결되어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며, 이를 통한 지혜를 구하며 가능한 방향성을 찾아가게 되었다.

본 연구자가 경험했던 청년들은 뜨겁고, 헌신적인 복음의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었지만 결혼 후 교회공동체로 적응 및 참여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아이러니한 삶의 간극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고, 이를 통한 목회적 대안은 어떻게 준비하며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싶었던 것이 본 연구의 출발 과정이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가 알고 있는 신앙적, 관례적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과 이론을 찾다가 사회학적 이론인 가족생활주기를 찾기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이 가족생활주기는 현재까지 이해되지 않던 본 연구자의 궁금증을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것 같았다. 마치 사용설명서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립이 되지 않았던 이유를 발견한 것처럼 3040세대

신혼가정들의 상황을 근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이와 동시에 EPIC이론을 통해서 이들의 욕구, 소비문화, 일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관과 문화관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레너드 스윗이 말한 EPIC이론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최근의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EPIC이론에서 제시한 문화적 특징 뿐만아니라 포스트코로나와 뉴노멀시대에 따른 시대적 양상과 문화적 특징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알지만 이는 추후에 지속적으로 연구할 숙제로 남겨두기로 하였다. 문화는 계속해서 변하며 문화적 특징은 신속하게 업데이트되는 듯한 경향을 보인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EPIC이론의 특징들은 현재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을 가장 밀도 있게 제시하며, 가장 공감적인 자세로 접근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사회적 특징과 문화적 특징을 어떻게 공감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이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들의 특징을 알아도 어떻게 공감하는지 익숙하지 않아서, 서툴러서 공감적 접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목회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3040세대 신혼가정들의 사회적 문화적 특징을 알아 이러한 특징에 어떻게 공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공감목회의 전략이 필요했던 것이다. 공감이론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공감하는 태도인지, 공감적 자세인지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이외에도 공감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개인적, 공동체적 반응과 표현과 특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

있던 것 같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공감을 위한 메타인지<sup>125</sup>적 성찰과 이를 통한 공감적 자세로의 훈련과 성장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이론들의 연합과 융합을 통해 3040세대 신혼가정에게서만 적용될 수 있는 목회적 대안들을 살펴 볼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 특징을 고려하여 그 특징에 맞는 목회적 대안으로 신혼부부학교와 가정예배와 영적치유프로그램을 적용해볼 수 있었다. 물론 긍정적인 평가와 간증도 있었지만,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이론과 데이터적인 보충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문화적 특징을 공감하기 위한 공동체적 접근과 목회의 적용을 통해 상담심방과 교회남자 그리고 보물찾기에 이르기까지 문화와 분리된 교회만의 제도적 적용이 아닌 문화속으로 들어가 문화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며 교회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공동체중심의 목회적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많은 3040세대가 교회공동체로 연합하며 참여하여 공동체성을 이전보다 훨씬 확장하며 세워갈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연구와 적용에 대한 아쉬움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으며 실제 교회 목회현장에서의 성장과 번성을 이룰 수 있게 되어 많은 도전이 되었다. 이외에도 함께 다루지 못했던 세세한 필요 이상의 영역들이 존재함을 고백한다. 이들의 필요를 들으면 들을수록 함께 만들어가야 하고 새롭게 바꾸어야 하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러한 공감목회를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필요에 따라 맞추고 준비해나아가기 위한 시간적 여유와 연구의 과정들,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의 노력

---

<sup>125</sup> 메타인지(meta認知, 영어: metacognition) 또는 상위인지는 "인식에 대한 인식", "생각에 대한 생각", "다른 사람의 의식에 대해 의식", 그리고 고차원의 생각하는 기술(higher-order thinking skills)을 말한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고, 무엇을 잘 못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과 인지적 정도를 의미한다.

과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게 된다. 앞으로의 계속되는 변화와 변혁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러한 필요는 은혜의 열매와 간증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 결론 및 제언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교회적으로 준비하고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살피지 않으면 안되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역대상 12장 32절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이백 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라는 말씀을 기록한다. 변화되는 시대를 분간할 줄 알아야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윗과 함께 했던 많은 영적 리더들은 변화되는 상황과 시대를 분간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와 혜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지금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많은 문화와 문명의 현실을 일일이 파악하지도 못한 채 끌려가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교회적, 목회적 환경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모두는 리더의 역할과 위치에서도 시대에 끌려가는 삶에 허덕이며 나아갈 뿐이다. 우리의 생각보다 시대의 변화는 빠르며, 이를 통한 사람들의 변화와 다양성은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의 문화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 교회는, 목회자는, 영적리더는 누구보다도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들의 필요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제시하기 위한 맞춤형 접근과 신앙체계를 준비해가야 한다.

이 시대의 삶의 위기, 신앙의 위기, 교회적인 위기의 요인은 사람들이 은혜

에 대한 갈망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다. 삶의 환경이 이전보다 훨씬 나아져서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니다. 영적인 필요와 원함이 있으나 시대의 필요와 변화에 관심을 갖지 않고 구태의연한 접근과 방식으로 이들에게 일방적인 강요와 접근을 일삼는 교회의 현장에 그 요인이 있는 것이다. 변화하지 않는 교회현장, 시대를 분간하지 않는 교회의 전통적이고 구태의연한 현장과 방식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 받지 못하고, 다가가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교회는 오랜 전통에 의하여 변화되는 시대와 환경에 공감적으로 다가가지 못했다. 기념비적인 유물 같은 방식과 시스템이 사람들이 멀리하게 만들었고,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을 뿐이다.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자세를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며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시대를 분간하며 그들의 삶에 공감하면서 그들의 필요에 맞추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의 마음에 집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는 사람에게 눈물을 그치라는 교훈이 아니라, 그들의 눈물에 함께 눈물 흘리며, 다가가 눈물을 닦아주고, 그 아픔을 공감하며 그들의 필요와 상황에 맞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감목회의 자세와 적용은 급변하는 시대 속 갈급한 영혼들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맞춰진 방식으로 복음을 복음되게 전달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 사회적 공감

본 연구를 통하여 교회내 공동체에 정착하지 못하는 3040세대 신혼가정들의 면면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교회적차원에서 바로 보는 시각과 이들의 현실에는 많은 온도차가 있었음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아울러 신앙의 열심이 부족하여 교회공동체로의 참여를 주저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연결과 가능성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교회적 소통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3040세대 이후의 세대와 3040세대가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원하는 방향성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았다.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하여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소통의 장(Field)이 마련되기에는 가로막힌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많이 존재했던 것 같다. 시대를 분간하기 위한 열심, 3040세대와 변화되어 다양한 특징을 보이는 다음세대에 대해 귀 기울이고 공감하여 집중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미래교회에 필요한 자세요 대안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에게 사회적 공감을 이루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먼저 세대적 특징을 살펴보며 이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소통방식과 접근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물론, 이외에 다른 사회적인 기준과 다양한 삶의 해석에 관한 이론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카터와 맥골드릭(Carter & McGoldrick)의 6단계 가족생활주기를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듀발(Duvall)의 8단계 가족생활주기, 벡바르와 벡바르(Becvar & Becvar)의 역동적 가족생활주기, 에릭슨(Erik Homburger Erikson)의 6단계 가족생활주기, 골든버그(Goldenberg), 왈쉬(Walsh), 스티넛(Stinnett)등 가족체계와 가족발달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이론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를 통한 추가적인 연구와 학문적 도전은 다 살피지 못한 사회적 특징의 남겨

진 영역들에 있어서 객관적이고도 체계적인 확인을 위한 좋은 도전의 계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을 일일이 살펴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나마 그들의 사회적 특징을 살펴봄으로 인하여 시대 분간에 대한 적용과 실천을 이루어 볼 수 있는 대안적 방향성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쉬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여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사회적 특징에 대한 케이스별 연구 사례와 이들의 다양하고 자세한 특징들을 다른 추가적인 관계 이론들과 연계하여 생각해봄으로 인해서 단편적으로만 이해했던 사회적 특징의 대상과 이면을 조금 더 포괄적이며 풍성하게 확인하며 채워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사회적 주기와 시기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보는 일은 그동안 소통되기 어려웠던 세대에 대한 영역의 가리워진 부분을 밝히 보여주는 효과를 주는 것과 같았다.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다가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목양프로그램과 신앙체계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고 준비하며 적용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을 꼭 준비하고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는 과정만으로도 많은 공동체적 공감과 회복이 이루어졌다. 신혼가정들을 위해 준비한 신혼부부학교의 프로그램은 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혼이 아닌 결혼생활을 어느정도 진행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도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부부학교에 대한 부분도 그 가능성을 가늠하며 도전해보려고 한다. 이들 가정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리고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콘텐츠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며 적용하여 새롭게 변혁해 나아가는 목회적 대안이 지속적으로 계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한 교회별, 목회자별 연대와 집중

논의가 필요하며, 서로에 대한 사례를 함께 공유하며 장단점을 통한 이상적인 방향으로의 실천과 쇄신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이를 통해 미래교회로의 연결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나라와 복음의 적극적 개입과 도전이 영향력을 얻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 시기에 치유하고 회복해야 다음 단계로의 확장이 가능한 시기별 치유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적용하는 일도 또 하나의 도전적 과제였다. 바쁜 시대 변화와 일상의 흐름 속에서 놓치고 가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신앙적으로 살피며 회복할 수 있는 영적공감프로그램이야말로 사회적 주기 중에서도 큰 변화의 폭을 감당해 내야 하는 3040세대 신혼가정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한 많은 치유의 간증들은 교회공동체내로의 정착과 적응을 돕게 하였으며 이들의 미래적 삶의 방향성을 준비하며 긍정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해가게 하는 동력적 작용을 이루어 가게 하였다. 결혼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역할,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역할 가정내에서 서로 상대적인 역할로서 기능하고 가정으로서의 내적 성장과 회복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빈틈을 채워주는 중요한 역할로서 기능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단회적인 프로그램으로만 경험한다고 하여 모든 내적갈등과 단계와 단계 사이의 간극을 해결하는 원천적인 실마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시기를 긍정적으로 감당하며 다음단계로의 진입을 준비하며 계획하는데 상당한 효과와 도움을 주는 요인이 된다고 평가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가정내에서의 적극적 자원 즉, 치유의 자원을 통하여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으로의 가정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 문화적 공감

EPIC이론을 중심으로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을 “이 세대는 지식을 너머 경험을, 동의를 너머 참여를, 사고보다는 이미지를, 단절보다는 관계적 공동체 안에서 반응하고 변화한다”고 표현했던 레너드 스윗의 말과 같이 우리는 이들의 문화적 특징에 많은 관심과 집중적인 자세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교회는 많은 경험을 만드는데 생각보다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며, 참여보다는 일방적인 동의를 구하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었고, 이미지 보다는 글과 문서에 대한 시대에 뒤 떨어진 소통방식을 여전히 적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호소통적인 관계적 공동체보다는 일방적이고, 편협한 관계적 구조로 많은 이들의 공동체성을 약화시키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보다 많은 경험의 장(Field)를 만들고자 시도하며 노력하였던 사역현장의 연구결과를 함께 다루어 보게 되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연구의 과정과 피와 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정이고 내용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맞춰진 그들의 특징과 연계될 수 있는 많은 교회적, 목회적 경험들은 이들의 교회공동체로의 참여를 향상시키며, 어렵다고 판단 내려진 시대적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성장과 회복의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어 의미 있는 도전이었고 결실이였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교회 공동체로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3040세대 신혼가정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나오는 질문들이었고, 사역의 접목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완수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EPIC이론은 3040세대 신혼가정들이 필요로 하는 세대적, 문화적 특징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이를 통한 공감이론으로의 접목을 통해 “어떻게” 접근하며 공감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었다.

이전까지 목회적 영역에서 변함없이 시행되어오던 전통적인 심방의 형식과 틀을 벗어나 새로운 형식의 심방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않았다. 그러나 3040세대 신혼가정들의 문화적 특징을 고려하며 본질적인 요소처럼 굳어져 왔던 비본질적 요소인 형식을 새롭게 변혁시키며 구성하자 불가능해 보였던 많은 일들이 가능성을 넘어 은혜와 간증의 장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상담심방은 기존의 예배형식과 전통적인 방식을 철저히 혁신하며 일어난 상담적인 접근에서의 심방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새삼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한 본질적 성장과 회복은 이러한 전통적 형식에 집중하지 않았던 과감한 포기를 긍정적인 혁신으로 바꾸어 주기에 충분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신속하게 확인하며 이에 맞춰지는 연결의 심방형식은 이후 세대에서 또 다른 모양으로 적용된다 할지라도 필요한 방향성이며, 계속해서 연구 개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도 교회공동체 내에서는 필요성과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의례적으로 해오던 형식에 이끌려, 그러한 시스템에 의하여 많은 프로그램과 모임을 진행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되면서 모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모임 대상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통해 모임 수 있는지를 파악하며 조사하는 일은 순간순간 필요할 것이다. 그들의 필요를 듣는 자세가 바로 공감적 자세이며 그들의 필요를 통해 협력하며 모이고 구성하여 준비하는 많은 하나님나라의 모양과 복음전파에 관한 사명의 결실들은 다음세대를 향한 필요이상의 많은 도전과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리라. 시대가 변하면 변화될수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시대를 분간하며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세대가 달라질수록 세대에 대하여 그들의 필요를 듣고 경청하며 그들의 필요에 맞춘 목양의 방식을 변혁 시켜 나아 갈 필요가 있다. 어느

시대에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시대에 맞는 비본질적 형식이라는 통로가 다양하게 사용되어져 왔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개인별, 공동체별, 가정별, 시기별, 주기별 등 많은 다양한 차이 속에서 일관된 방식과 구태의연한 방식을 고집하는 일은 어찌면 복음 전파를 막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막아서는 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며 확인해야 할 본질 즉,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본질적 의미를 잊지 말아야겠다. 3040세대 신혼가정들에 대한 일련의 공감목회의 적용과 결과는 이후 세대에서는 또 다른 전통과 구태의연한 형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아무쪼록 변화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 나아가며 어떤 다양한 문화와 성향의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적 자세가 계속해서 연구 개발되어져서 시대를 막론하고, 상황을 막론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널리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미래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 문헌

## 번역서적

오구라 히로시. *서른과 마흔사이: 30대에 이루지 못하면 평생 후회하는 70가지*.

박혜령 역. 서울: 토네이도미디어그룹, 2010.

Abraham Joshua Heschel. *예언자들*. 이현주 역. 서울: 삼인, 2004.

Betty 외 2명 공저. *가족생활주기와 치료적 개입*. 정문자 역. 서울: 적성출판사, 2000.

Carl R. Rogers. *칼로저스의 사람 중심 상담*. 오제은 역. 서울: 학지사, 2007.

Irene Goldenberg and Herbert Golenberg. *가족치료*. 김정택 외 2인 역.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7.

Jack Balswick and Jidith Balswick. *크리스찬 가정*. 황성철 역. 서울: 두란노, 1998.

Jeremy Rifkin. *공감시대*. 이경남 역. 서울: 민음사, 2010.

Jeremi Lifkin. *소유의 종말*. 이희재 역. 서울: 민음사, 2001.

Jurgen Moltmann. *삼위일체와 하나님 나라*. 김균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Leonard Sweet. *관계의 영성*. 윤종석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1.

Leonard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서울: 도서출판 좋은씨앗, 2009.

Marti Olsen Laney and Michel Laney. *사랑과 성격 사이*. 박윤정 역. 서울: 다산박스, 2010.

Nouwen, Henri J. M.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피현희 역. 서울: 두란노,

1999.

Walter Brueggemann. *구약신학*.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 한국어 서적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II*. 서울: 연세대출판부, 1987.

김난예 외 8명 공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기독교교육 학습공동체*. 서울: 요단출판사, 2014.

김영란. *공감과 체험*.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6.

김용태. *부부 같이 사는 게 기적입니다*. 서울: 덴스토리, 2017.

김의식. *부부행복동산*. 서울: 콤파출판사, 2017.

김의식.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서울: 콤파출판사, 2007.

김의식.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서울: 콤파출판사, 2006.

김의식. *치유동산*. 서울: 콤파출판사, 2016.

박성희. *공감학(어제와 오늘)*. 서울: 학지사, 2004.

유영주 외 2명 공저.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2000.

이도영. *페어처치*.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임성빈. *21세기 문화와 기독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임성빈. *현대문화의 한계를 넘어서*.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정재영. *교회 안나가는 그리스도인*.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5.

홍윤선. *딜레마에 빠진 인터넷*. 서울: 굿인포메이션, 2002.

### 논문, 잡지, 기타 간행물

김의식. “상당 심방, 이렇게 하라.” *목회와 신학* 제287호(2013), 62.

스티브 차.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 *목회와 신학* 3월호(2021), 30.



최정숙.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부부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1996.

#### 웹사이트

[http://www.entermedia.co.kr/news/news\\_view.html?idx=4072](http://www.entermedia.co.kr/news/news_view.html?idx=407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7/10/712158>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09433>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48848&cid=43667&categoryId=43667>

[http://mhdata.or.kr/mailling/Numbers67th\\_201016\\_Full\\_Report.pdf](http://mhdata.or.kr/mailling/Numbers67th_201016_Full_Report.pdf)

<http://www.lgeri.com/report/view.do?idx=16562>

## V I T A

## PERSONAL DATA

Full Name: Seongmoo Kim

Place and Date of Birth: Sinan-gun, Jeollanam-do, South Korea, February 21, 1983

Parent`s Names: Hee-jun and Anna Kim

##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b>Deog-am High School</b> 9, Hagong-lo, Gimje-si,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15, 2001
Collegiate: <b>Chonbuk National University</b>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B.A.	Feb 22, 2008
Graduate: <b>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b> 251, Gwangjang-ro 5-gil, Gwangjin-gu, Seoul, Republic of Korea	M.div	Feb 14, 2013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김성무

Signature

Seongmoo Kim

Name typed

April 8, 2021

Date